

2021 청소년상담연구 • 228

청소년 자립준비도 척도 개정 및 타당화 연구

책임 연구자: 조 규 필

공동 연구자: 정 경 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Korea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e

청소년상담연구 228

청소년 자립준비도 척도 개정 및 타당화 연구

인 쇄 : 2021년 12월

발 행 : 2021년 12월

발 행 인 : 이기순

발 행 처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4805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9, 센텀사이언스파크(7층~10층)

T. (051)662-3115 / F. (051)662-3007

<http://www.kyci.or.kr>

인 쇄 처 : 신일디앤피

ISBN 978-89-8234-882-2 94330

ISBN 978-89-8234-001-7(세트)

비매품

본 간행물은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본 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전재할 수 없습니다.

간행사

가족지지체계가 취약하여 홀로서기를 통해 사회에 진출해야 하는 취약청소년들은 수십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는 꾸준히 요구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가정밖청소년, 학교밖청소년, 시설보호청소년, 범죄청소년 등 사회적 보호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의 자립수준은 매우 취약한 상황이며 우리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국가의 보호종료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 정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가정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최근에 와서야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소년자립지원정책이 강화되면서 청소년의 자립준비 수준 및 서비스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검사도구가 개발되었지만 노후되거나 현장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자립준비 수준을 주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립준비도 척도와 매뉴얼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는 취약청소년의 자립준비 수준을 주기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자립준비도 척도를 새롭게 개정하고 타당화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국내외 문헌자료를 검토하여 기존의 자립준비 영역을 검토하였으며, 현장의 실증조사, 학계와 현장 전문가의 내용타당도 평가를 통해 예비문항을 개발하였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자립준비도 척도는 총 11개 요인(자립의지, 주거관리, 일상생활기술, 음식관리, 직업준비, 직장적응, 경제관리, 사회기술, 자원활용, 건강관리, 성보호) 43문항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본 연구를 위해 인터뷰 및 시범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청소년복지시설 및 학교밖 지원센터, 아동양육시설, 내일이룸학교, 청소년자립생활시설의 청소년 및 선생님들, 학계전문가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연구를 위해 애써주신 조규필 교수님과 공동연구자이신 정경은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연구를 통해 자립이행기 취약청소년들의 자립준비를 도와 개별 자립역량에 맞는 자립 지원서비스가 제공되기를 기대합니다.

2021년 12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 이기순 이 기 순

초 록

본 연구는 기존의 청소년 자립준비도 척도들의 문제점을 종합 분석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한 자립준비도 척도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립준비에 관한 국내외 문헌조사와 현장전문가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 청소년 심층면접을 통해 구성개념을 도출하여 기초문항을 개발하였고, 학계와 현장 전문가의 내용타당도 평가를 거쳐 보완한 예비문항을 개발하였다. 이어서 청소년 자립지원 관련시설 대상으로 본조사를 실시하여 문항 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타당도 검증을 거쳐 최종적으로 자립준비도 척도 개정을 완료하였다. 아울러 집단 간의 차이분석을 통해 취약청소년의 자립준비도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청소년 자립지원 실무자가 활용할 수 있는 척도 활용 매뉴얼을 제공하였다.

구체적인 척도의 개발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조사 단계에서는 해외 자립준비도 척도들의 구성요인과 타당화 여부를 살펴보았으며, 국내 적용시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국내 척도들은 주로 아동복지분야의 시설아동 및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개발되었으며, 최근에 사각지대의 가출, 학업중단, 미혼모시설의 가정 밖 청소년 대상 척도개발연구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자립준비도 요소들을 1차적으로 도출하였다. 둘째, 10명의 현장전문가 FGI를 두 차례 실시하고, 7명의 청소년 심층면접을 통해 최근의 금융이슈들(휴대폰 소액결제, 금융사기 등)과 식생활문화의 변화 양상(밀키트, 배달음식, 인스턴트식품 등) 추가에 관한 시사점을 얻어 문항수정에 반영하였다. 셋째, 기초문항 및 예비조사문항 개발단계에서는 9가지 자립준비 영역과 36개 하위요인, 89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던 기초문항(신규 37문항, 기존 26문항, 수정 26문항)에 대해 내용타당도 평가를 실시하여 91문항으로 수정보완하였다. 넷째, 본조사 및 자료분석 단계에서는 청소년 자립지원 관련시설의 청소년 대상으로 수집된 428명(남 182명, 여 246명)의 응답자료를 문항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과정을 거쳤다. 분석결과, 11개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모형적합도를 향상시켰다. 이어서 개념신뢰성과 평균분산추출값을 확인하고, 하위요인들 간의 변별타당성을 확인하였으며, 공인타당도를 검증하여 최종적으로 11개 요인(자립의지, 주거관리, 일상생활기술, 음식관리, 직장적응, 경제관리, 사회기술, 자원활용, 건강관리, 성보호)에 43문항으로 구성된 자립준비도 척도를 개발하였다. 다섯째, 참여집단 간의 자립준비도 차이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연령에서는 20세 이상이 19세 이하보다 자립준비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학력에서는 고졸청소년이 학업중단 및 재학청소년보다 유의

하게 낮았고, 자격증 소지자가 미소지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소속시설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설이 다른 시설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문항수를 줄이고 자립준비 영역을 세분화함으로써 자립준비도 조사에 대한 심리적 부담은 줄이고, 구체적인 자립준비 방향을 제시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또한 비슷한 연령대의 아동, 청소년들에게 포괄적으로 활용될 것이며, 부처 간의 차별화된 서비스에 대한 자립준비도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정부부처 간의 서비스 불균형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표준화된 기준 마련, 부처별 개입에 따른 자립준비도 차이 비교, 기타 척도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목차

I. 서론 1

-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 2. 연구과제 3

II. 이론적 배경 4

- 1. 청소년의 자립 4
- 2.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9
- 3. 자립지원 관련 시설 13
- 4. 취약청소년 자립준비 실태 16
- 5. 자립준비도 관련 척도 개발현황 21

III. 연구방법 29

- 1. 연구추진 개요 29
- 2. 조사·분석방법 30
- 3. 조사도구 40

IV. 연구결과 42

- 1. 실무자 FGI 결과 42
- 2. 청소년 개별면접 결과 62
- 3. 구성개념 도출 및 기초문항 개발 83
- 4. 내용타당도 분석 결과 97
- 5. 예비조사 결과 106
- 6. 본조사 결과 106
- 7. 타당화 분석결과 119
- 8. 최종문항 개발 119
- 9. 집단 차이분석 122

V. 결론 124

참고문헌 130

[부록1] 자립준비도 척도(개정본) 매뉴얼 | 135

1. 척도 소개	136
2. 검사대상 및 방법	140
3. 해석방법	141
4. 자립준비도 검사결과표 (예시)	142
5. 자립준비도 척도 (양식)	144

[부록 2] 척도개정 기초자료 | 146

1. 현장실무자 FGI 질문지	147
2. 청소년 개별면접 질문지	149
3. 자립준비도 척도개정 기초문항	150
4. 내용타당도 질문지	154
5. 청소년 연구참여 동의서	160
6. 진로준비행동 척도	161
7.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척도	162

Abstract | 163

표 목차 |

<표 1> 자립준비도 관련 개념 정의	4
<표 2> 자립준비도 요소 유목화	7
<표 3> 취약청소년의 인구사회적 분포(인원, %)	17
<표 4> 취약청소년 유형별 자립준비도	17
<표 5> 개입전/후 취약청소년 유형별 자립준비도	19
<표 6> 자립준비도 관련 해외척도	23
<표 7> 자립준비도 관련 국내척도	27
<표 8> 포커스그룹 참여자 현황	30
<표 9> 자립준비영역에 관한 실무자 대상 질문	31
<표 10> 청소년 심층면접 참여자 현황	32
<표 11> 자립준비에 관한 청소년 개별면접 질문	34
<표 12> 예비조사 참여자 현황	35
<표 13> 본조사 설문 참여자 현황	36
<표 14> 자립준비 영역별 실무자 주요의견	42
<표 15> 자립준비 영역별 청소년 주요의견	62
<표 16> 자립준비도 구성개념 도출을 위한 시사점	85
<표 17> 자립준비도 척도 기초문항	92
<표 18> 내용타당도 검토결과	100
<표 19> 각 문항의 평균, 문항과 전체의 상관계수	107
<표 20>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110
<표 21> 설명된 총분산	112
<표 22> 요인별 문항수 및 신뢰도	113
<표 23> 청소년 자립준비도 척도 최초모형의 χ^2 통계량과 적합도 지수	113
<표 24> 청소년 자립준비도 척도 수정모형의 χ^2 통계량과 적합도 지수	114
<표 25> 청소년 자립준비도 척도의 CFA 모형을 통한 잠재변수들의 신뢰성	114
<표 26> 잠재변수 간 상관관계	116
<표 27> 청소년 자립준비도 척도의 CFA 모형을 통한 잠재변수들의 타당성	117
<표 28> 청소년 자립준비도 척도 최종 요인 간 내적 일치도 계수	118
<표 29> 자립준비도, 진로준비행동, 진로자기효능감과의 상관관계	119
<표 30> 자립준비도 척도 최종 문항 (43문항)	121
<표 31> 참여자 특성에 따른 청소년자립준비도의 차이	123

그림 목차 |

[그림 1] 최근 5년간 보호종료아동 현황	11
[그림 2] 취약청소년 연령별 자립준비도 변화 그래프	18
[그림 3] 2015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용 청소년 자립준비도 변화	19
[그림 4] 소득, 부재, 주거현황	20
[그림 5] 교육수준 및 고용지표	20
[그림 6] 삶의 만족도와 사회적 관계	21
[그림 7] 청소년 자립준비도 척도개정 및 타당화 연구절차	29
[그림 8] AVE와 CR 계산법	39

I.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020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세계최저치를 기록했고, 처음으로 인구 자연 감소가 시작됐으며, 코로나 팬데믹 사태의 영향으로 출생아 감소가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커져가고 있다. 이른바 선진국의 상징으로 일컬어지는 인구 5,000만명, 소득 3만달러 이상의 ‘30-50 클럽’에 2018년에 가입한 세계 7번째 나라가 되었지만, 불과 3년만에 시작된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는 인구 자체가 중요한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매우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인구학적 상황에서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청소년의 자립역량을 끌어 올리는 것은 우리 사회의 매우 중요한 시대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일반적인 청소년은 가족이라는 1차 지지체계를 갖고 있어 사회로 진출하는데 상대적으로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주거독립의 부담 증가와 구직의 어려움 등으로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물며 가족지지체계가 취약해 홀로서기를 통해 사회로 나가야 하는 청소년은 그야말로 아무런 무기도 없이 밀림에 던져진 존재들로서 이들을 돕기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들 자립지원이 필요한 취약청소년의 규모는 범주를 어떻게 한정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수십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일반적으로 후기 청소년의 연령대를 19세에서 24세 사이로 보는데, 이들 중 사회적 보호체계의 지원을 요하는 가정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무의탁 범죄청소년, 시설보호 청소년, 빈곤청소년, 다문화청소년, 은둔청소년 등이 해당된다. 이렇게 많은 수의 후기 청소년이 자립역량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사회문턱을 넘어선다면 국가 경제의 경쟁력 차원에서 엄청난 인적자원의 손실이 우려된다.

실제 여러 연구에서 취약청소년의 열악한 자립준비 실태를 보고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학력단절로 고용시장 진입에 제한적이며 대부분 자립을 위한 주변 자원체계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진로에 대한 자신감 부족으로 직업선택의 폭이 좁아 자립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변숙영, 이수경, 2011). 가정 밖 청소년의 경우 학업중단 비율이 높는데다가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부터 우울·불안 등의 심리적 문제, 성매매나 비행문제, 근로권 침해 등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김경준 외, 2006) 자립준비에 매우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 조운정, 주경필(2018: 225)은 ‘시설청소년, 가출청소년, (무의탁)범죄소년들은 부모나 보호자의 심리적·정서적 지원뿐 아니라 경제적 지원도 받지 못하고 고립되거나 방치됨으로써 자립을 위한 사회화 과정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다’고 우려하면서 특히 범죄소년들이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인해 자립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사회적 관심을 촉구한 바 있다. 시설청소년은 매년 2천명이 만 18세가 되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홀홀단신으로 나와야 하는데 갑작스러운 자립이행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에 노출된다. 정혜옥, 손병덕(2018: 294)은 아동양육시설 퇴소 청소년들은 주거문제, 경제적 어려움, 사회 부적응, 취업문제, 외로움을 떠안고 있어 빈곤층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는데, 실제 조사에서도 퇴소청소년의 38.6%가 기초생활수급자로 머물러 있음을 보여줘(보건복지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16)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김희성(2004)은 빈곤가정의 청소년들은 빈곤한 가정환경으로 인해 신체, 심리, 사회, 인지, 감정 등 모든 발달의 측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Hills · Sandford, 1995: 92-93; Israel · Seebong, 1998: 564-566; 김희성, 2004: 136 재인용) 빈곤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청소년기에 자립을 준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자립이행기에 있는 취약청소년은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 나가는데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러므로 사회적 지원체계에서 다양한 자립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지만, 대상별 특성과 처한 환경에 따라 자립준비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별 자립역량에 따른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취약청소년의 자립준비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부족한 영역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립역량을 갖추도록 돕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립준비도 척도에 관한 연구는 미국에서 가정위탁 보호아동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는데, 자립계획 및 준비 정도에 대한 평가를 자립지원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포함시키고 있다. 이를 위해 케이스 생활기술 평가(Casey Life Skills Assessment)와 같이 청소년들의 자립능력을 측정하고 최적의 지원 방법을 찾을 수 있는 평가도구를 활용하기도 한다(김희진 외, 2018: 141).

국내에서는 최근 들어 보호종료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립지원정책이 다각적이고 연속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허민숙, 2018). 특히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2012년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청소년자립지원관 설치에 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2018년도부터 설치되기 시작하면서 이들에 대한 자립준비 수준 및 서비스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검사도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립준비도 척도 관련 국내 연구들은 2000년도부터 대부분 아동양육시설 및 위탁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왔다

(김지선 외, 2018; 박은선, 2005; 손혜옥 외, 2008; 신혜령, 2000). 최근에 와서야 아동보호체계 외의 가정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척도개발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김세진 외, 2020; 김정연 외, 2011; 조규필, 2013). 초기에는 별도의 타당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해외척도들을 국내 상황에 맞게 일부 변안하거나 여러 척도들의 문항을 재구성하여 사용된 연구가 많았다. 최근에 와서야 타당화 검증을 거친 척도가 개발되기 시작했지만 손에 꼽을 정도에 불과하다. 그 중에서 김정연 등(2011)의 척도는 성매매 피해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김지선 등(2018)의 척도는 조사대상이 위탁가정, 아동양육시설 및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아동에 한정되어 있다. 가장 최근에는 김세진 등(2020)이 청소년자립지원관 입소 판정을 위해 자립준비 사정도구를 개발했으나 인터뷰 방식이라 다수의 청소년 집단에 활용하기 어렵다. 조규필(2013)의 척도는 아동시설보호 및 제도권 밖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청소년들까지 조사대상으로 하여 포괄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며, 현재 청소년자립지원관 등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후기청소년의 자립준비 수준을 평가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개발된 지 8년이 경과하여 현재의 시대적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면이 있으며, 척도 개발 이후 설치된 청소년자립지원관의 현장 수요를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복지시설 뿐 아니라 가정 밖 청소년 지원시설, 범죄예방시설 등의 취약청소년 등에게 널리 적용할 수 있는 자립준비도 척도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에 타당화된 자립준비도 척도들을 검토한 후 최근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개정 및 타당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자립이행기 취약청소년의 자립준비도 변화를 주기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개별 자립역량에 따른 맞춤형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자립준비 영역별 표준화된 개입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과제

본 연구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취약청소년의 자립준비 수준을 주기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자립준비도 척도를 새롭게 개정하고 타당화한다.

둘째, 개정된 자립준비도 척도의 활용을 위한 실무자용 매뉴얼을 제시한다.

셋째, 취약청소년의 유형과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자립준비도의 차이를 분석하여 자립지원 서비스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의 자립

가. 자립준비도의 개념

‘청소년 자립’이란 용어가 그리 잘 어울리는 조합은 아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완전한 경제적·사회적 자립을 이루기 어려운데 아직 성장해 나가고 있는 청소년에게 자립이라는 표현은 어색한 면이 있다. Powell(1963)은 청소년기의 과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한 바가 있다. 즉 동년배와 새롭게 성숙한 관계를 형성하고, 자신의 신체를 유용하게 활용하며, 성인으로부터 정서적인 독립을 성취하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고, 사회적으로 책임성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청소년기는 ‘자립’이라는 용어보다 ‘자립준비’의 과정으로 보는게 적절할 것이다.

자립준비에 관한 개념을 정의할 때 연구자마다 대상에 따라 강조점이 다르다. 가장 고전적인 개념으로 Cook(1986)은 자원관리기술과 자기관리기술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빈곤가정의 청소년에 대해 김희성(2002)은 빈곤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해서 심리적·사회적·경제적으로 자기충족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라고 했으며, 아동양육시설 청소년에 대해 손혜옥 등(2008)은 직업을 갖고 책임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사회기술훈련을 인식시켜 독자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라고 했다. 최근 조규필(2013)은 “청소년 자립이란 경제적·심리적·사회적 독립상태로 나아가기 위해 청소년기의 자립적 과업을 성취해 나가는 자립준비 과정”이라고 했다. 연구자별 자립준비도의 개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자립준비도 관련 개념 정의

연구자	용어	자립준비 개념
조규필 (2014)	자립준비도	청소년이 경제적·심리적·사회적 독립 상태로 나아가기 위해 청소년기에 수행해야 할 자립적 과업의 성취 수준 ※ 자립적 과업 : 대인관계 형성, 유용한 신체적 활용, 정서적 독립, 지식과 기술 습득, 사회적 책임성 발휘

연구자	용어	자립준비 개념
Cook(1986) 신혜령(2000)	자립준비	자원을 습득, 이용하고 할당하는 자원관리기술(resource skill)과 계획, 의사결정, 책임감, 대인관계기술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기관리기술(basic skill)에 대한 준비
김희성(2002)	자립준비	빈곤가정 청소년들이 성인기를 준비하는 과정, 특히 빈곤의 세대전승을 방지하고, 빈곤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심리적·사회적·경제적으로 자기충족적인(self-sufficient)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 (하위요인 : 사회적 발달, 교육적·직업적 발달, 도덕적 발달, 돈·주거 관리, 자립의지)
박은선(2005)	자립생활 준비	혼자의 힘으로 독립하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의 대인관계와 지역사회 지원을 잘 활용하여 스스로를 지켜나갈 수 있는 심리적·사회적·경제적 독립상태의 준비 (하위요인 : 자립의지, 생활과업 수행기술, 대인관계기술, 문제해결 기술, 취업여부, 학업기술, 직업기술)
손혜옥 등(2008)	자립준비도	청소년이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면서 퇴소 후 직업을 갖고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사회기술훈련을 인식시켜 독자적인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하위요인 : 자립의지, 생활관리, 자존감)
정경미(2009)	자립준비	원만한 대인관계 유지를 통해 효율적인 사회적응을 위한 ‘사회기술’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기술’에 대한 준비 (사회기술 : 책임감, 협동, 주도성, 문제해결능력, 자립의지, 대인관계 / 생활기술 : 일상생활기술, 가사관리, 돈관리, 소비기술, 직업)
미국 보건사회서비스국 (DHSS)	자립기술	자립준비에 필요한 자립기술 준비 (자립기술영역 : 일상생활기술, 건강관리기술, 주택관리기술, 교육 및 직업훈련기술, 진로(직장문제)기술, 돈관리기술 등)

* 출처: 김세진 외(2020), 청소년 자립준비 사정도구 개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나. 자립준비 영역

취약청소년이 자립준비 요소들은 해외에서 여러 학자들이 대부분 가정위탁 보호(Foster care)에서 종결되는 청소년들의 자립을 위해 1980년대부터 매우 구체적인 체크 리스트를 제공해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Cook(1986)은 교육, 직업조사, 지역자원 찾기와 같은 자원관리기술과 계획성, 일상생활기술 같은 기본기술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며(신혜령, 2000: 25 재인용), Pasztor(1986)는 외모, 교육, 직업 등의 지식/행동기술과 자아존중감, 주도성 표현 등의 감정기술로 나누어 제시하기도 하였다. 2000년대 들어 가장 대표적인 학자인 Nollan 등

(2002)은 더욱 세분화하여 일상생활기술(영양, 가사관리 등), 주거/지역사회자원(주거, 교통 등), 돈관리(소비, 저축 등), 자기보호(건강, 성, 위생, 약물 등), 사회적 발달(의사소통, 대인관계 등), 일/공부기술(고용, 학습기술 등)의 6가지의 영역으로 나누어 제시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해외의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2000년대부터 보호시설청소년, 빈곤청소년, 취약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신혜령(2000)은 시설보호 아동을 대상의 자원관리기술(직업, 소비, 금전관리 등)과 자기관리기술(용모, 음식준비, 가족/친구관계 등)로 구분하였고, 2006년에는 취약청소년 대상의 8가지 영역(일상생활, 자기보호, 지역사회자원 활용, 돈관리, 사회적기술, 진로탐색 및 취업, 직장생활, 다시 집떠나기)으로 나눠 더욱 구체적인 자립준비 요소들을 제시하였다. 조규필(2013)은 취약청소년 대상으로 자립의지(어려움 극복의지 등), 직업진로역량(직업가치관 등), 경제적관리(소비, 신용관리 등), 주거생활관리(주거, 음식, 안전관리 등), 사회적기술(대인관계 등), 자기보호(성, 건강관리 등), 학업관리(암기방법, 시험준비 등)의 7가지 자립준비 영역을 제시하였다. 가장 최근에는 김세진 등(2020)이 인터뷰를 통해 청소년자립지원 입소 청소년의 자립준비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자 개발한 청소년 자립준비 사정도구 개발연구에서 자립준비 영역을 자립의지, 주거관리, 직업역량, 경제관리, 자기보호, 학업관리, 자원활용, 일상생활관리, 사회적기술의 9가지로 제시한 바 있다.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영역별 자립준비 요소들을 제시하면 다음의 <표 2>와 같이 9개 영역으로 구분된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포함된 영역은 직업역량과 사회적기술이다. 그다음으로 경제관리, 일상생활관리, 자기보호이며, 주거관리, 자원활용, 학업관리, 자립의지가 일부 연구에서 포함되어 있다.

<표 2> 자립준비도 요소 유목화

연구자	자립의지	직업역량 (진로탐색)	경제(돈)관리	사회적기술	주거관리	일상생활 관리	자기보호	자원활용	학업관리
김세진 외 (2020)	· 자립의지 (인생목표, 자립 동기, 자립실천 노력)	· 직업가치관 · 직업조사 · 직장적응 · 직업선택 · 구직기술	· 소비관리 · 저축관리 · 신용관리	· 사회적기술 (용모, 관계형성, 예절, 시간관리, 준법여부)	· 주거지원정보 · 주거마련계획 · 집구하기 · 집관리	· 음식관리 · 청소/세탁 · 안전관리	· 신체건강 · 정신건강 · 성보호	· 공식자원 · 비공식자원	· 학업의지 · 학습기술
김지선 외 (2018)	-	· 5년후모습 · 특기적성 · 계획 · 진학취학정보 (비용) · 교육훈련	· 공과금, 통신비 · 저축 · 건강보험	· 생각감정표현 · 거절 · 화조절 · 갈등해결 · 대인관계 · 도움요청	-	· 식사준비 · 음식보관 · 식품구매 · 주방정리 · 조리법 · 청소세탁	· 성보호 · 병원이용 · 비상연락 · 약물거절	· 목적지 찾기 · 대중교통 · 공공시설이용	-
조규필 (2013)	· 자립의지	· 직업가치관 · 직업조사 · 직업선택 · 직장적응	· 소비관리 · 돈관리 · 신용관리	· 사회적기술 (용모, 시간, 대인관계, 예절, 에티켓, 갈등해결)	· 주거관리 · 안전관리	· 주방관리 · 음식준비	· 성보호 · 건강관리	-	· 학업관리
김정연 등 (2011)	-	· 직업준비정도	· 금전관리기술	· 대인관계	-	· 위생관리	· 정서자립	· 자원활용능력	-
배주미 등 (2010)	· 자립동기 · 목표의식	· 진로탐색/설계 · 직업준비	· 경제관념	· 친부모관계 · 대인관계능력 · 예절 · 규범의식	· 주거공간	· 일상생활기술	· 심리정서 안정	-	· 학업정보
박은선 (2004)	· 자립의지	· 취업여부 · 직업기술준비	-	· 대인관계기술 · 문제해결기술	-	· 생활관리기술	-	-	· 학업기술
김희성 (2002)	· 일에 대한 의지 · 어려움 극복 자신감	· 직업준비 · 일에 대한 태도	· 돈관리	· 사회성	-	-	-	-	-
신혜령 (2000)	-	· 직업 · 계획성	· 금전관리 · 소비기술	· 여가선용 · 책임감 · 가족/친구관계	· 주변정리	· 교통 · 용모, 의복관리 · 음식준비	· 건강유지 · 개인위생	-	-

국내

연구자	자립의지	직업역량 (진로탐색)	경제(돈)관리	사회적기술	주거관리	일상생활 관리	자기보호	자원활용	학업관리
Nolan 등 (2002)	-	· 경력계획 · 고용 · 의사결정	· 돈에 대한 신념 · 저축 · 소득세 · 신용 · 소비기술 · 예산/지출계획	· 의사소통 · 대인관계 · 문화인식 · 개인적 발달	· 주거	· 일상생활기술 · 교통	· 개인위생 · 건강 · 술/약물/담배 · 성(sexuality)	· 지역사회자원	· 학습기술
Iglehart (1994)	-	· 목표설정/계획 · 직업기술 · 직업찾고 유지하기	· 개인물품 사기 · 돈관리	· 책임지기 · 친구선택 · 이웃 사귀기	· 주거지 마련 · 집 돌보기	-	· 의료처치 받기	· 도움 청하기	-
Mech (1994)	-	· 유능감	-	· 친구/친족과의 상호작용	-	· 자녀 양육능력 · 일상생활기술	· 성 책임 · 자아정체감	· 지역사회 참여 · 중요한 연계 만들기	-
Maluccio (1990)	-	· 직업훈련	· 예산	· 책임감 · 대인관계 · 자기결정	· 주택구하기	· 가사관리	· 자아상	-	-
Cook (1986)	· 자존심	· 직업조사 · 계획성	· 소비기술	· 의사결정 · 사회적 기술	· 가사관리 · 주택	· 일상생활기술	· 건강관리	· 지역자원 찾기	· 교육
Pasztor (1986)	-	· 직업	· 돈 관리	· 외모 · 오락, 여가 · 가족연계 · 친구	· 집 관리	· 음식 · 교통	· 건강 · 성(sexuality) · 감정기술	· 지역자원	· 교육

* 출처 : 조규필(2013), 김세진 외(2020) 외 선행연구들을 추가하여 재구성함.

2.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가. 가정 밖 청소년

청소년쉼터는 가출 청소년의 생활지원 및 보호, 가정과 사회로의 안정된 복귀가 가능하도록 하는 자립준비단계라 할 수 있으며 유형으로는 일시, 단기, 중장기가 있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위탁 청소년의 부모를 대신하여 보호 및 생활을 지원하며, 보호 청소년의 신체·심리·정서적 치유 및 학업, 진로 등 자립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7).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은 18세가 되면 시설을 퇴소하여 새로운 거주지를 구하고 구직활동 등 사회로 복귀하여 독립적으로 생활해야 한다. 쉼터에서 퇴소한 청소년들의 자립은 단순히 취업하는 것 뿐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경제적·심리적·사회적으로 독립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이혜연 외, 2007). 특히 중장기 청소년쉼터에서 생활했던 대다수의 청소년은 원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퇴소를 하게 된다. 쉼터에 머무는 동안은 경제적 및 사회적 지원 등 안정적인 생활을 하지만 법률에서 정한 보호기간이 종료되어 시설을 퇴소하는 경우 비자발적이고 충분히 훈련되지 않은 상태임으로 다시금 거주불안과 경제·심리·정서적 문제 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정운영, 2015, 장주현 외, 2015; 홍혜영, 2017). 법률에서 정한 보호기간이 종료되어 시설을 퇴소하는 경우 비자발적이고 충분히 훈련되지 않은 상태임으로 다시금 거주불안과 경제·심리·정서적 문제 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장주현 외, 2015; 홍혜영, 2017). 따라서 가족이나 타인의 도움이나 자원이 부족한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들이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지원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최근에는 수도권 일부 지역에 청소년자립지원관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청소년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과 다르게 생활시설이 아닌 주거취약계층 위기청소년의 주거대안 모색을 위한 생활관과 지원센터 기능이 복합된 플랫폼으로 청소년 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의 상황과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원 및 독립생활을 위한 임대료 지원, 자립생활 체험, 취·창업지원 등 지속적인 근로활동을 통해 청소년이 실질적으로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김지연 외, 2017).

나. 학교 밖 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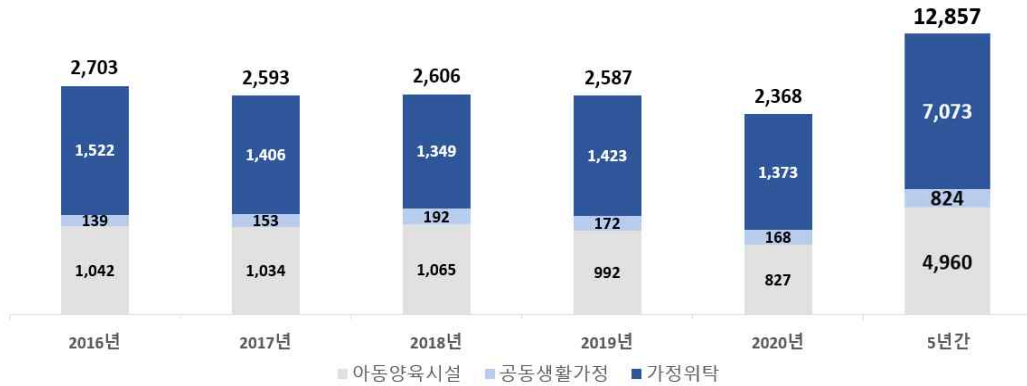
매년 6~7만 명의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두고 있다(윤철경 외, 2017). 또한 재학중인 상태라 하더라도 학교에 대한 불만족으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상당수이다(남미애

외, 2012). 학교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은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과 패배자라는 낙인 등으로 자아존중감이 저하되고, 정상적인 발달 과업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불안감과 두려움, 그로인한 우울, 자살위험 등의 심리적 부적응을 경험하게 된다(이지혜 외, 2020). 게다가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학교를 그만 둔 이후 집에서 계속 머물거나 또래들과 거리를 배회하는 등 무질서한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고,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자립을 위한 계획 수립과 행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김영희 외, 2013). 또한 자립에 대한 욕구는 굉장히 높으나 자립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으로 진학 및 진로 등에 대한 장기적인 준비를 하기 보다 당장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하는 것을 원한다(박주호, 2014). 그러나 낮은 학력으로 인한 구직활동에 제약이 많고, 지지적인 관계 부족으로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수용하는 경험에 익숙하지 않아 이로 인한 사회적 경험에 대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성은모 외, 2016).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회의 부정적인 이미지, 진로에 대한 부담감 등을 극복하고 사회에 건강한 일원으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관의 연계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 보호종료아동

현행 아동복지법(제16조1항)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국가가 제공하는 가정 외 보호가 종료되는데, 연간 2,500여 명이나 된다(그림1). 이들은 부모나 지역사회 커뮤니티 같은 비빌 언덕이 없어 돌봄이 있는 일반 가정의 청소년과 달리 취약한 주거상태에 처하거나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혼자 살아가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다. 실제로 보호종료 5년 이내 기초생활수급률은 36.1%로 같은 연령대(2.5%)보다 월등히 높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다(관계부처합동, 2021). 다행히 최근 정부에서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2021.7.13)을 발표함에 따라 앞으로는 본인 의사에 따라 시설에서 만 24세까지 머물면서 보호종료 시기를 늦출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보호종료 후 지급받는 자립수당도 5년간으로 확대되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고, 전국 일부에서 운영되던 자립지원전담기관도 17개 시도로 확대 추진되면 전국적인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LH 임대주택 지원 등 주거지원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지원 규모가 수요에 못 미쳐 주거지원 비율이 29.3%로 아직 낮은 수준이라 21.7%의 보호종료아동은 여전히 월세부담을 겪으며, 숙박시설, 고시원, 친구집 등에서 주거불안 상태에 있다. 자립을 위해서는 주거문제 뿐만 아니라, 소득, 교육, 심리정서적 안정도 필요하다.



* 관계부처합동(2021) 참조

[그림 1] 최근 5년간 보호종료아동 현황

자립정착금이나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약간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지만, 목돈을 제대로 관리할만한 금융지식과 경제관념이 부족으로 쉽게 소비해버리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 실업률은 16.3%로 일반 청년(8.9%, '20.9월)의 2배나 된다는 점에서 소득안정을 위한 추가 지원이 요구된다. 대학진학률은 일반 청년(70.4%)보다 7.6%p 낮은 62.8% 수준이므로 사회적 배려 대상에 대한 특별전형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심리·정서적 상태도 매우 심각한데, 가족관계의 단절로 사회적 지지체계도 취약해 자살을 생각한 비율이 일반 청년에 비해 3배가 높은 50.0%나 된다(관계부처합동, 2021). 이에 영국의 사례처럼 지역사회 정신건강 간호사와 같이 정신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필요할 것이다.

라. 비행청소년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무부 산하 소년보호협회에서는 청소년자립지원생활관을 운영하고 있다. 부모의 부재 및 유기 등의 이유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무의탁 청소년 및 요보호청소년을 수용하여 교정교육을 실시하고 자립지원서비스를 통해 안정된 사회정착을 도와 재일탈 및 비행을 예방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안정된 성질을 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소년보호협회, www.kjpa.or.kr). 청소년자립지원생활관을 퇴소하는 보호소년 등이 원할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을 하기 위해 사후지원을 실시한다. 만 12세에서 22세 이하의 청소년 중 소년보호 관련 기관 추천(의뢰)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안정된 사회정착을 돕고, 경제·심리·사회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심리치료, 학업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조운정 외 2018).

1호처분을 받은 소년범이 가정의 돌봄이나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 시설에 감호 위탁을 하게 되는데, 감호 위탁을 하는 시설로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 있다(이나현 외, 2019).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보호자를 대신해 청소년의 주거·학업·자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주거와 학업 외에 심리·정서적 회복을 위한 상담과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여 적응할 수 있도록 자립 방안을 함께 모색할 책임이 있다. 6개월간 청소년들의 원가정 부모를 대신하여 24시간동안 부모역할을 하여 청소년을 보호하지만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는 전문적인 인력과 보호소년들의 자립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부족하다. 게다가 보호소년들은 수강 명령과 사회봉사명령 등을 함께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매일 학교 출석이 어렵고 이에 따라 학교교육으로부터 멀어져 성공적인 사회복귀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된다(안윤숙, 2015). 보호소년들의 재비행을 예방하고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서는 청소년이 처한 환경의 변화, 사회적지지 등 적절한 사후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지만 사회정착지원에 관한 제도, 프로그램의 부재 등의 이유로 삶에 대한 계획을 구체화 시키는데 필요한 동기부여에 어려움이 따른다(김지민, 외 2017). 이에 회복지원시설 위탁 종료 후에도 복지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해 적절한 감시와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사회로 안정된 지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마. 시설보호 청소년

아동복지법 법령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종류에는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다.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와 분리되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입소시켜 아동에 대한 향후 양육대책을 수립하여 보호조치를 행하며 취업훈련,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은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이후 일정기간 동안 자립지원시설에 머물면 자립을 준비할 수 있다(아동복지법 제52조).

아동들은 법적 퇴소연령인 18세가 지나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퇴소하여 사회에서 독립된 성인으로서 자신의 모든 의·식·주를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한다. 즉, 아동의 자립능력과는 상관없이 시설을 나와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에 대한 적응을 하며 성인으로서의 발달적 과업도 성취해야 한다(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17). 이처럼 일반가정의 청소년들과는 달리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소년들은 보호받을 수 있는 가족이 없는 불안한 상황에서 비자발적인 자립이 이뤄진다. 일반가정의 청소년들은 원가족의 보호 아래 성인으로서의 전환과정에 진입하기 전 실패하더라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들의 경우 안전한 울타리 없이 위험에 바로 노출되게 된다(정익

중, 2007). 이러한 상황들이 일반가정의 청소년들보다 자립에 대한 두려움과 어려움이 더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때문에 이들이 성공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일반 가정의 청소년들과 다른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지원 서비스가 필요할 것이다.

바. 빈곤 청소년

빈곤청소년은 일차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대상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청소년이 해당되지만,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기 어려운 취약가정의 청소년으로 근본적인 빈곤 문제를 지니고 있다(이혜연, 유성렬, 이상균, 정윤경, 황진구, 2010). 빈곤으로 인해 신체, 심리, 사회, 인지, 감정 등 모든 발달의 측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따를만한 역할모델을 발견하기 어려워 체계적인 진로지도 받을 기회가 많지 않고(이시연, 박은미, 2000), 스스로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을 이루어야 하는 이중 부담을 갖고 있어 성공적인 자립에 어려움이 많다(허남순 외, 2005: 96, 허남순, 오정수, 홍순혜, 김혜란, 박은미, 정익중, 2005; McLoyd, 1990; Routh, 1994; 김희성, 2002 재인용). 또한 빈곤은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세대를 통해 빈곤이 전승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청소년 개인과 가족의 문제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다(강명순, 1996; 김지은, 1997; Cohen & Tyree, 1986; Israel&Seeborg, 1998; 김희성, 2002 재인용).

3. 자립지원 관련 시설

가.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이다(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 현재 전국에 9개소(2021.4월)가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형태에 따라 숙박형, 비숙박형, 혼합형의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숙박형은 생활관을 운영하며 자립지원을 하는 생활관형이라고도 하며, 가급적 생활관 입소기간은 최소화하고, 독립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향한다. 비숙박형은 주거연계형이라고도 하며, 독립주거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혼합형은 생활관형과 주거연계형이 혼합된 형태로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기간은 3유형 모두 기본 1년 이내로 6개월씩 2회 연장 가능하며, 지원종료 후 6개월 사후관리를 한다(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9).

나. 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이다(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 현재 전국에 133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입소기간에 따라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일시쉼터는 가출·거리배회·노숙청소년에게 24시간에서 7일 이내 버스를 활용한 이동형과 고정형의 2가지 형태로 일시보호 및 거리상담을 지원한다. 단기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을 3개월 이내(3회 연장 가능, 최대 9개월)로 단기보호하며 심리·정서 상담지원 및 사례관리를 제공한다. 중장기쉼터는 자립의지가 있는 가정 밖 청소년을 3년(1회 1년 연장가능, 최장 4년) 이내 중장기보호하며 심리·정서·상담지원, 학업지원, 사회복귀를 지원한다(여성가족부, 2021). 특히 중장기쉼터의 대상은 자립을 준비하는 후기청소년으로 본 연구의 주 대상이기도 하다. 원래는 자립을 준비하기 위해 중장기쉼터에서 청소년자립지원관으로 입소할 수 있지만, 아직 갈 수 있는 지원관이 부족해 중장기쉼터에서 구직활동과 직업훈련 등의 자립준비 과정을 갖기도 한다.

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소년법 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을 감호위탁 기간 동안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이다(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 이곳에서는 보호소년을 24시간 보호·훈육하고 건강한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 보호소년의 자립과 회복을 지원하는 전담시설이다(서정아, 2016). 2016년 법제화 되어 전국에 15개소(2021.10월)가 운영되고 있지만(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내부자료, 2021), 주로 남부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상당수가 부부로 구성된 2명의 인력이 배치되어 있어 청소년을 지원하기에 제한적이다. 대부분의 보호소년은 1호 처분 외에도 재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보조적 보호처분으로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이 병합된 경우 많고, 부가처분으로 대안교육이나 상담을 받도록 하거나 야간외출이 제한되기도 한다(박순혜, 2021). 이와 같이 아직 전국적인 분포가 되어 있지 않고 인력구조도 열악하여 자립을 준비해야 할 청소년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

라. 내일이룸학교

내일이룸학교는 2011년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던 취업사관학교를 2017년 여성가족부

에서 이관 받아 내일이름학교로 개명하여 만 15~24세 학교 밖 청소년의 성공적인 사회진출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2021년 기준으로 전국 14개소에서 14개의 교육과정은 운영되었으며, 개소당 지원인원은 20~30명 규모이다. 제공하는 훈련과정은 기계가공, 특수용접, 뷰티아티스트, 피부미용, 제과제빵, 커피바리스타, 향만 장비정비, 컴퓨터응용기계 설계제작, 드론운용 전문인력 양성, 애견스타일리스트, 반려동물 관리사 등으로 다양하다. 하지만, 중도탈락율을 낮추고 취업률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따라 전국 220개소에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만 9~24세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다. 법률상 학교 청소년은 초·중학교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합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고등학교 미진학 청소년을 말하지만, 학업중단 숙려 대상 학생들을 잠재적 학교 밖 청소년으로 간주하여 서비스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원래는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두드림’ 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해밀’ 이 ‘두드림·해밀’ 사업으로 통합운영 되다가 2015년 5월 학교밖지원법이 시행되면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193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지원하고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2021년 10월 27일 기준). 지원센터의 역할은 법에 따라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바. 청소년자립생활관

법무부 산하 (재)한국소년보호협회에서 전국 8개소(강원, 전북, 안양, 의왕, 대전, 대구, 광주, 부산)를 운영하고 있으며, 만 12~22세의 소년원 출원생, 또는 보호관찰 중인 청소년 등에게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그룹홈 형태의 생활공간을 제공하며 무료숙식, 대학진학,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을 통해 성공적 사회정착을 지원하고 있다(소년보호협회 홈페이지, 2021). 이곳에서 지원하는 무의탁 출원생과 요보호 청소년은 역기능적인 가정환경 속에서 정상적인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해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범죄 경험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조윤정, 주경필, 2018). 또한 범죄청소년 대부분은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과 상대적 박탈감, 가정불화 등이 분노를 품게 만들었고, 이렇나 분노의 표출은 갈등을 초래한다(최순중, 윤옥경, 조남익, 2009). 게다가 비행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비우호적인 시선으로 인해 고용시장에 진입하는 것도 어려워 저임금의 단순 노동자로 생활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서는 심리정서적, 경제적, 사회적, 직업적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복합적인 자립지원이 요구된다.

사.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은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르면 아동양육시설 등 11종인데, 그중 아동양육 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은 만 15세 이상 자립지원 대상 아동을 보호, 양육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매년 개별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종사자에게 자립지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아동복지법 제39조). 국내 가정 외 보호체계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은 약 2만 8,000명에 이르는데, 그중 98% 이상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보호받고 있다(허민숙, 2018). 이상정 등(2019)의 연구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보호조치 되는 인원의 추세를 보면, 아동양육시설에서는 연평균 5% 이상씩 증가했으며, 공동생활가정은 10년 전보다 16.5%(2019년 기준) 늘어나 두 배 이상 많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위탁가정은 10년 전에 비해 약 7% 포인트 감소하였다. 이곳에서 보호하는 아동은 만 18세 이상이 되면 보호종료가 되어 자립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경제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에 대처하고 책임지기가 쉽지 않다(이상정 외, 2019). 보호아동의 보호기간은 양육시설은 11.2년, 위탁가정은 4.7년, 공동생활가정은 3.4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보호기간이 긴 아동양육시설의 경우 원가정 복귀가 어려워 보호종료 후에도 사실상 부모나 원가족의 지원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이상정 외, 2019). 따라서 이들이 시설 내에서 생활하는 동안 다양한 영역의 자립준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4. 취약청소년 자립준비 실태

가. 유형별 자립준비도

조규필, 정정은(2014년)이 여성가족부의 자립준비 프로그램(두드림)에 참여한 취약청소년 5,109명의 자료를 분석하여 전국 규모의 자립준비도 분석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대상집단은 학교부적응 청소년, 시설청소년(청소년쉼터, 아동복지시설, 미혼모시설, 미인가 대안학교), 비행청소년(소년원, 보호관찰소, 법원)으로 인구사회학적 분포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취약청소년의 인구사회적 분포(인원, %)

구분		소계	학교부적응	시설청소년	비행청소년
연령	13~15	166(3.2)	72(2.3)	29(3.3)	65(6.1)
	16~18	3,413(66.8)	2,225(70.3)	621(69.9)	567(53.6)
	19~24	1,530(29.9)	866(27.1)	238(26.8)	426(40.3)
성별	남	3,225(63.1)	1,806(57.1)	497(56.0)	922(87.1)
	여	1,884(36.9)	1,357(42.9)	391(44.0)	136(12.9)
학업 상태	학업중단	890(17.6)	43(1.4)	242(27.6)	605(59.8)
	재학	4,161(82.4)	3,120(98.6)	635(72.4)	406(40.2)
경제적 상황	정부지원	238(4.7)	119(3.8)	66(7.4)	53(5.0)
	일반가정	4,844(95.3)	3,044(96.2)	822(92.6)	1,005(95.0)
계		5,109(100.0)	3,163(61.9)	888(17.4)	1,058(2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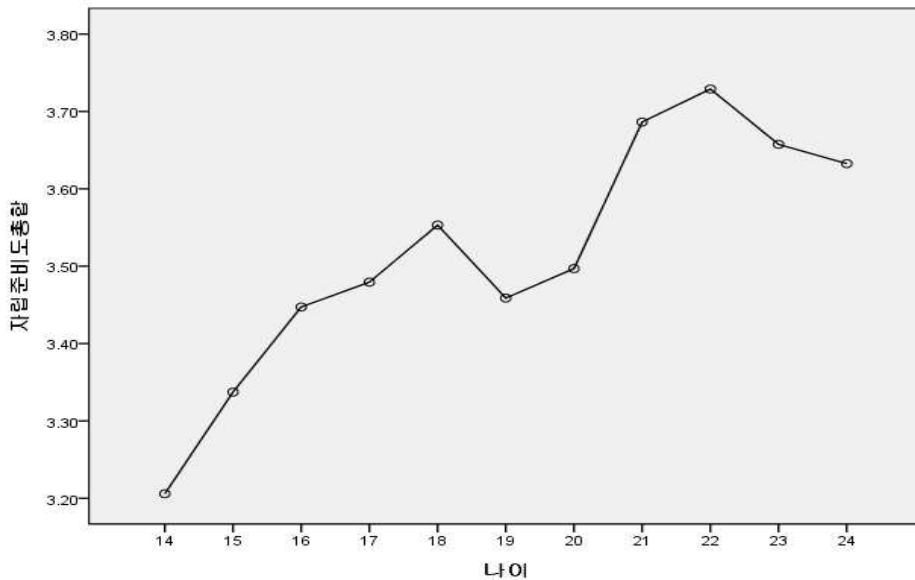
취약청소년의 유형별 자립준비 수준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4>와 같다. 연령별로 보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자립준비도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집단별로는 비행청소년이 가장 높고, 시설청소년이 가장 낮다. 성별로는 비행청소년과 시설청소년은 남자가 높고, 학교부적응 청소년은 여자가 높게 나타났으며, 재학여부로는 학교부적응청소년과 시설청소년은 재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보다 높고, 비행청소년은 남녀 간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정부지원 여부에 따라 보면, 학교부적응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은 정부지원 대상이 높고, 시설청소년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취약청소년 유형별 자립준비도

구분		전체	학교부적응청소년	시설청소년	비행청소년
연령	13~15	3.164	3.186	2.925	3.247
	16~18	3.225	3.212	3.203	3.300
	19~24	3.324	3.334	3.135	3.410
성별	남	3.271	3.234	3.204	3.367
	여	3.222	3.252	3.140	3.164
학업 상태	재학	3.261	3.253	3.271	3.311
	학업중단	3.194	2.664	2.918	3.342
경제적 상황	정부지원	3.307	3.323	3.176	3.433
	일반가정	3.250	3.242	3.176	3.336

나. 연령대별 자립준비도

취약청소년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립준비도는 어떻게 변화할까? 조규필(2013)이 전국의 취약청소년 1,0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립준비도 수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특이한 점은, 만19~20세 사이 연령 집단의 평균치가 다소 떨어졌다가 만 21세부터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는 만 18세 직후 환경변화의 시기를 맞이하는 취약청소년의 생애주기와 관련되는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이 시기는 시설청소년의 경우 만 18세가 되면 시설퇴소를 경험하거나, 다른 취약청소년도 고등학교 졸업 및 사회진출 초기의 환경변화에 적응하는 시기로서, 실업이나 주거미해결 상태에 직면한 취약청소년의 열악한 상황을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림 2] 취약청소년 연령별 자립준비도 변화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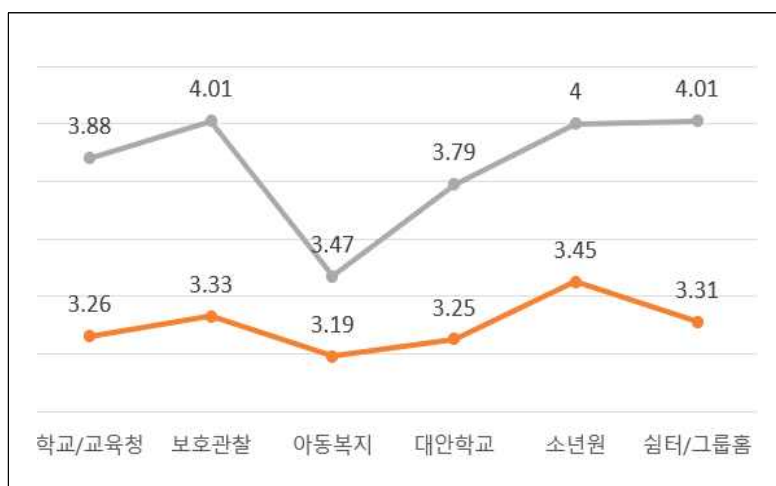
다. 개입 전후 자립준비도 변화

2015년 전국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이용 청소년의 자립준비도 수준을 보면, 프로그램 참여 전에는 5.0만점 가운데 소년원(3.45), 보호관찰(3.33), 쉼터/그룹홈, 학교/교육청(3.26), 아동복지시설(3.19) 순으로 3.5 이하의 보통 이하 수준을 보였으나, 프로그램 이용 후에는 쉼터/그룹홈(3.31→4.01), 보호관찰(3.33→4.01), 소년원(3.45→4.00) 보호 청소년이 가장 많은 변화를 보여 4.0 이상의 높은 자립준비도 수준을 보였다.

<표 5> 개입전/후 취약청소년 유형별 자립준비도

영역	학교/교육청	보호관찰	아동복지시설	대안학교	소년원	쉼터/그룹홈
	n=3,152	n=334	n=188	n=351	n=385	n=48
사전	3.26(0.63)	3.33(0.59)	3.19(0.54)	3.25(0.67)	3.45(0.63)	3.31(0.63)
사후	3.88(0.67)	4.01(0.69)	3.47(0.64)	3.79(0.64)	4.00(0.71)	4.01(0.69)

* 출처 : 2015년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 결과보고집(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6)



[그림 3] 2015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용 청소년 자립준비도 변화

라. 아동양육시설,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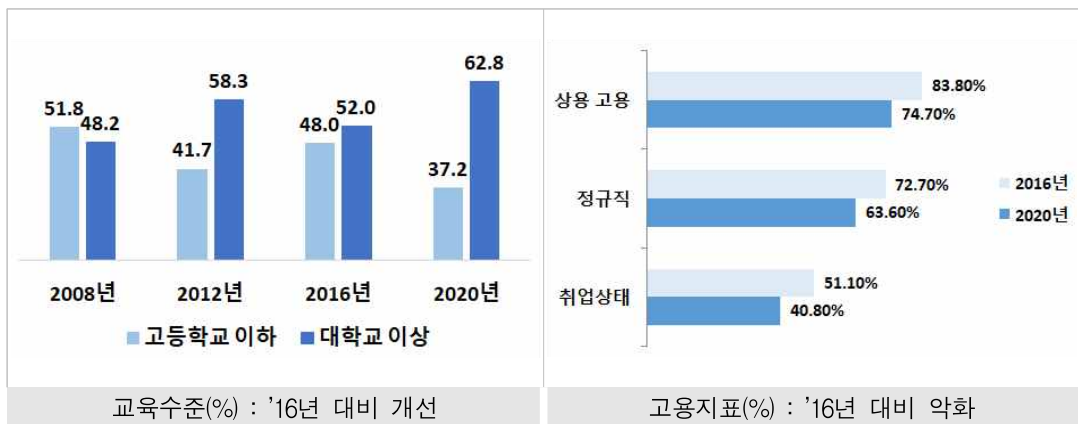
보호대상 아동의 평균 70% 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의 지원을 받고 있다. 대규모 시설인 양육시설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지만,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개별화된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규모 양육시설보다는 소규모의 공동생활가정과 위탁가정에서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이상정 외, 2019). 이들의 종결사유는 68.4%가 18세 만기 혹은 연장 보호 종결하고 있는데(보건복지부,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2018), 연간 2,500명에 이른다. 2022년부터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별도의 보호연장 사유 없이 만 24세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다. 자립실태를 보면, 자립수당, LH 공공임대 등을 통해 다양한 자립지원을 받고 있지만, 생계나 주거안정을 유지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관계부처합동(2021)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방안에 따르면, 다음의 그림 4와 같이, 보호종료 5년 이내 평균 기초생활수급률은 36.1%, 월소득은 127만원 수준이며, 24.3%

가 생활비, 주거비, 학자금 등으로 평균 605.1만원의 부채를 지고 있다. 주거지는 주로 고시원, 친구나 지인의 집, 숙박시설 등으로 임사취약주거 거주율이 16.7%나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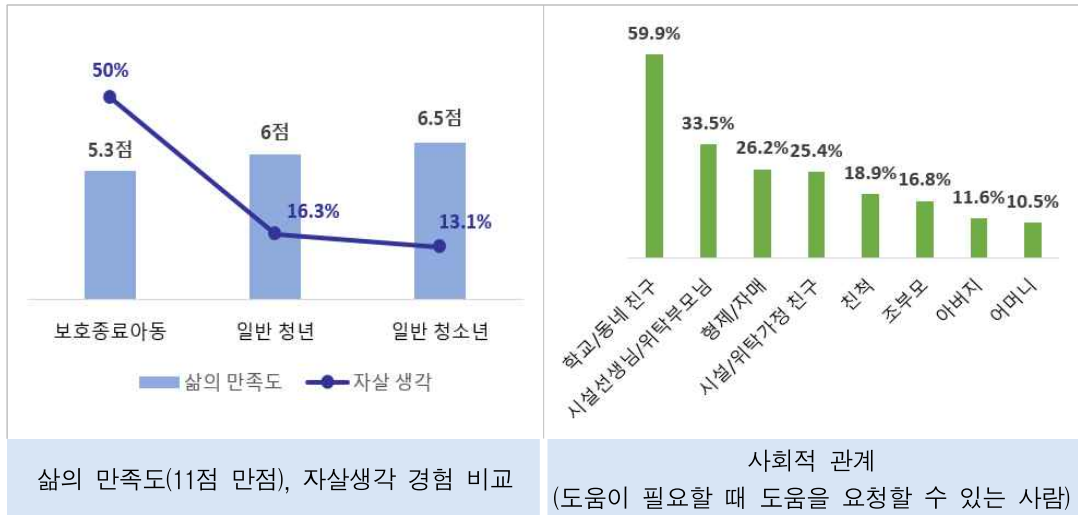
[그림 4] 소득, 부채, 주거현황

또한, 그림 5와 같이 교육수준과 고용상태를 보면, 대학진학률은 일반 청년(70.4%)보다 7.6%p 낮은 62.8% 수준이고, 실업률은 일반 청년(8.9%, '20.9월)의 2배 수준인 16.3%에 이르고, 비정규직 비율은 무려 36.4%나 된다. 이뿐만 아니라 주도적인 결정이나 경제관념, 생활기술 부족으로 돈이나 자원관리 등의 일상적인 자립역량이 미흡하며, 문제 발생시 조언받을 지지기반이 부족하여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관계부처합동, 2021).



[그림 5] 교육수준 및 고용지표

또한, 심리정서적으로도 불안·우울, 자살생각 등 매우 취약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가족 관계 단절 등으로 기댈 수 있는 사회적 지지체계가 부족하다. 부모의 부재 또는 생존을 모르는 경우가 절반 이상으로, 보호자보다 친구 중심의 사회적 관계로 보호나 조언받을 지지 기반이 부족하여 범죄에 노출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할 우려가 있다(관계부처합동, 2021).



[그림 6] 삶의 만족도와 사회적 관계

5. 자립준비도 관련 척도 개발현황

가. 해외 척도

해외의 자립준비도 관련 척도 개발현황은 조규필(2013: 26-30)이 종합하여 구성요인과 특징 및 신뢰성을 제시하였는데, 본 장에서는 아래와 같이 각각의 특징과 신뢰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Ansell-Casey Life Skill Assessment(ACLSA)는 미국의 국가재단인 Casey Family Program에서 청소년의 자립준비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1994년에 개발하기 시작한 사정도구로서 연령대별로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진행되었다. 원래는 위탁보호 청소년의 자립준비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나 실제로는 가정을 떠 성인기로의 자립생활 전환 과정에 있는 모든 청소년에게 사용이 가능하다. ACLSA는 연령대별로 등급을 나눠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ACLSA-I(8~10세용), ACLSA-II(11~14세용), ACLSA-III(15~18세용) 각각 37문항, 62문항, 90문항으로 모두 청소년과 보호자(서비스 제공자)가 함께 측정하게 되어 있으며, ACLSA-IV는(19세 이상용) 청소년용으로 118문항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

다. 11~18세 청소년용으로 20문항의 단축형 척도가 개발되어 있는데 주로 스크리닝이나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간적 제약이 있는 경우에 사용한다. ACLSA(version 3.0)- I, II, III의 신뢰도 수준은 Cronbach's α = .80~.94로 높은편이며, 교차타당도와 안면타당도가 대체로 양호한 수준이다(Naccarato, DeLorenzo, & Park, 2008; Nollan et al., 2002; University of Iowa School of Social Work 보고자료). 국내에서는 ACLSA를 번안·수정하여 일부 사용하고 있지만, 국내 타당화작업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인종문제나 사회보장제도 등이 국내 사회적 상황과 달라 그대로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The Daniel Memorial Independent Living Assessment for Life Skills(DMILA) Scale은 1980년대에 The Daniel Memorial 연구소에서 14세 이상 위탁보호 청소년의 자립생활기술(IL Skill)을 사정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인데, 일반형(231문항)과 단축형(90문항) 모두 문항수가 많은편이며, 조사항목도 14가지 자립생활기술 영역으로 많다. 내적신뢰도는 단축형 척도의 경우 4개 영역은 보통 수준이지만(α = .67~.72), 나머지 10개 영역은 매우 낮은 편이다(α = .12~.58). 일반형 척도는 신뢰도나 타당도가 보고되지 않았다(Georgiades, 2005; Naccarato et al., 2008).

CHQFY(Chapin Hall's Questionnaires for Foster Youth)는 미국의 위탁보호 청소년을 대상으로 3가지 면접방식(기초, 추가, 선별)을 통해 6가지 자립생활준비 영역을 70문항(리커트 척도 14개, 2점척도 57개)으로 사정하는 도구인데(Courtney et al., 2005; Courtney, Terao & Bost, 2004), 신뢰도나 타당도에 관한 보고가 없다(Naccarato, et al., 2008).

GLAS(The Green Chimneys Longitudinal Assessment Scales)는 청소년의 생활기능 수준을 사정하기 위해 개발한 도구로서, 실무자와 청소년 대상으로 측정하여 자료수집이 이루어진다(Mallon, 1994; 1998). 신뢰도나 타당도가 보고되지 않았다(Naccarato et al., 2008).

Independent Living Program(ILP) Survey Questionnaire는 North Carolina에서의 자립생활 프로그램(ILP) 사용을 위해 개발된 평가도구로서 주거, 교육, 고용, 재정의 4영역에 대해 60문항으로 평가하는데(Lindsey & Ahmed, 1999), 신뢰도나 타당도가 보고되지 않았다(Naccarato et al., 2008).

SAQ(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는 원가정 외 시설보호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 고용, 건강, 알콜/약물사용, 사회적지지, 기술훈련, 위탁보호경력, 자기조절 등 8가지 영역에 대해 31문항으로 사정하도록 되어있는데(Lemon et al., 2005), 신뢰도나 타당도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Naccarato, et al., 2008).

TILSA(Transition & Independent Living Skill Assessment)는 미국의 The Learning Clinic Inc.에서 전환 및 자립생활기술이 부족한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치료에 관여하는 부모, 전문

가, 준전문가를 위해 개발된 척도인데, 17개 영역 184문항으로 매우 구체적인 사정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검사결과는 아동·청소년의 치료목표를 세우는데 사용되는데, 2점 이하(0, 1, 2점)는 치료적 개입을 요하며, 3점은 부분적인 개입이 필요하다(The Learning Clinic, 2006). TILSA 역시 신뢰도나 타당도에 관해 보고가 확인되지 않는다.

그 밖에 척도들을 살펴보면, Life Skills Inventory는 위탁보호 청소년을 대상으로 임대계약, 재정관리, 영양, 구직, 피임, 주거관리 등 13개 영역을 50문항으로 측정하도록 되어있으며, 반분신뢰도($\alpha=.881$)가 보고된바 있다. ILP Survey Questionnaire는 위탁보호 청소년 대상으로 주거, 교육, 고용, 재정의 4영역에 대해 60문항으로 측정하게 되어 있는데,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인되지 않는다. Older Ward Status Report는 미국 일리노이즈에서 위탁보호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는 사례관리자들(Caseworkers)을 대상의 메일조사를 통해 사용된 50문항의 사정도구로서, 기존의 검증된 하위척도 3가지(심각한 행동문제, 교육적 결함, 직업기술 결함)를 조합한 것이라(Leathers & Testa, 2006) 자립준비 수준을 전반적으로 측정하기가 어렵다(조규필, 2013 재인용). 척도별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 자립준비도 관련 해외척도

척도명	대상	구성요인	문항	특징
ACLSA-III (ver. 3.0)	위탁보호 청소년	일상생활과업(Daily Living Tasks)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점척도 • 청소년, 실무자 각각 측정 • 특징 : 청소년용은 허위응답을 줄이기 위해 별도의 객관식 문항(Performance Items)이 추가 • 신뢰도 $\alpha=.94$ (하위척도: .82~.90) • 테스트 문항은 ACLSA-IV(청소년용)에만 포함 : 7개 영역별 객관식 평가
		자기보호(Self Care)	9	
		사회적 발달(Social Development)	17	
		직업 및 학업기술(Work & Study Skills)	16	
		돈관리(Money Management)	8	
		주거 및 지역사회자원 (Housing & Community Resources)	9	
		보충문항(Flagged items)	8	
테스트 문항(Performance Items)	12			
DMILA Scale	위탁보호 청소년	돈관리·소비인식, 음식관리, 개인용모, 건강, 가사, 교통, 교육계획, 구직기술, 직업 유지, 응급처치/안전, 지역사회 자원정보, 대인관계, 법지식, 주거(14영역)	90 (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가지 자립생활기술 영역을 사정 • 미국 13개 주에서 사용 • 단축형(90문), 일반형(231문) • 단축형의 14개 영역 중 4개만 신뢰도 양호
CHQFY	위탁보호 청소년	교육적 지원, 고용/직업 지원, 예산 및 재정 관리 서비스, 주거서비스, 건강교육 서비스, 청소년발달 서비스 (6영역)	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7문항(2점척도) + 13문항(5점척도) 혼합
GLAS	청소년	건강보호, 돈관리, 직업기술, 주거관리, 법적이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무자, 청소년용 자기보고식 질문

척도명	대상	구성요인	문항	특징
SAQ	원가정의 시설보호 청소년	교육경력, 고용경력, 건강상태, 알콜/약물 사용, 사회적 지원, 위탁보호 경력, 기술훈 련, 자기조절	31	• 20~30분 소요
TILSA	취약 청소년	주거 : 주거마련 및 임대(10), 가정관리(7)	17	• 전체 184문항 • 6점 척도
		영양 : 식사계획 및 준비(16), 식사하기(5), 청결유지 및 음식보관(4)	25	
		돈관리 : 재정 및 세금(14), 은행업무 및 신 용(10), 소비(14)	38	
		교통	5	
		레저	4	
		법지식	6	
		건강	4	
		시간관리	9	
		개인 안전 : 가정내 안전(9), 지역사회 내 안전(3), 데이트관계시 안전(5)	17	
		개인적 표현	6	
		지역사회 자원	5	
		사회서비스 봉사 기회	3	
		경력계획	5	
		고용	19	
		중등교육과정 이후 교육	13	
건강한 관계	7			
치료과정 참여	1			
Life-Skills Inventory	위탁보호 청소년	임대계약, 계좌관리, 재정관리, 쇼핑, 식사 준비, 구직, 직업유지, 영양, 알콜/약물사용, 피임, 건강, 소비자권, 주거관리	50	• 4점척도 • 반분신뢰도=.881
ILP Survey Questionnaire	위탁보호 청소년	주거, 교육, 고용, 재정 (4영역)	60	
Older Ward Status Report	위탁보호 청소년	교육상태, 고용상태, 생활시설 및 서비스 제공상태, 자립생활기술의 결핍, 정서적· 행동적 문제, 개인적 이슈, 기타 욕구	50	• 위탁보호 청소년 Case Worker 대상 메일조사 방식

* 출처 : 조규필(2013: 29-30) 보완

나. 국내 척도

국내에서 사용된 자립준비도 관련 척도들은 아동복지시설 아동 및 보호종료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로 사용되었지만, 최근에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준비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타당화한 측정도구들이 소수 개발되고 있다.

아동복지시설 아동 및 퇴소 청소년의 자립준비 수준을 측정한 연구는 신혜령(2000)이 처음이다. 청소년과 보육사를 대상으로 자립준비 수준을 측정했는데, 이 도구는 양옥경(1994)이 만든 정신장애인의 일상생활기술점검표(checklist of daily living skill)를 Cook(1986)이 분류한 자원관리기술(resource skill)과 자기관리기술(basic skill)의 두 개 하위영역으로 재편성하여 청소년에 맞게 수정·보완한 것으로, 자원관리기술 15문항, 자기관리기술 16개 문항으로 총 31개 문항이 5점 리커트 척도로 사용되었다(신혜령, 2000). 신뢰도(Cronbach's α)는 청소년용과 보육사용이 각각 $\alpha=.88$, $\alpha=.91$ 로 높은 편이지만, 타당화 연구를 별도 수행하지 않았다.

이후 김희성(2002)은 240명의 빈곤청소년의 자립준비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기존 척도들의 문항을 재구성하여 타당화 하였는데, 처음 만든 측정도구는 .70~.82 사이의 신뢰도(Cronbach's α)가 보였으나, 이후 수정된 도구의 신뢰도와 외적 타당도에 대한 보고가 없다. 박은선(2005)은 기존의 척도들을 재구성하여 182명의 시설퇴소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용하였는데, 신뢰도는 4개 영역대해 Cronbach's $\alpha=.79-.87$ 를 보고하나 나머지는 제외되어 있고, 별도의 통계적 타당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손혜옥 등(2008)은 시설청소년의 3가지 자립준비 영역을 측정하기 위해 기존 척도들을 재구성 20문항을 구성하였는데, 신뢰도는 Cronbach's $\alpha=.73-.87$ 로 보고되었으나, 자립준비도 구성요인 도출과정에 대한 객관성이 불분명하며 별도의 타당화 작업을 거치지 않았다. 최근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2020)에서 2020년 자립지원 업무매뉴얼에 수록한 자립준비도 점검척도(만18세 보호종료점검용)가 있는데, 별도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보고되지 않았다.

신혜령, 김보옥(2011)도 시설청소년의 자립준비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ACLSA 척도를 우리나라 청소년의 실정에 맞게 신혜령 등(2006)이 번안하여 수정·보완한 자립기술평가척도를 사용했다. 7개 자립기술 영역에 총 7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뢰도(Cronbach's α)는 .68~.89로 양호한 편이지만(신혜령, 김보옥, 2011: 37), 별도의 통계적인 타당화 작업을 거치지 않았다.

여성지원시설 십대청소년의 자립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김정연, 하지선, 김인숙(2011)이 개발한 척도가 있는데, 이 척도는 자립수준을 4개 차원(경제자립, 생활자립, 관계자립, 정서자

립)과 7개 요인(금전관리, 직업준비, 위생관리, 일상생활관리, 관계자립, 주도성, 안정성)으로 구분되어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타당화 검증을 거친바 있다. 하지만 십대 청소년 지원시설 및 보호시설의 여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개발된 척도로서 남자 청소년에게 사용하는데 제한적이다.

조규필(2013)은 취약청소년을 대상으로 7가지 영역의 다차원 척도로 구성된 54문항의 취약청소년용 자립준비도 척도를 개발한 바 있다. 이 연구는 기존의 국내 연구들이 아동복지 시설 중심으로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가출청소년이나 학교 밖 청소년 등 아동시설 외의 취약청소년에 대한 자립준비도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루어졌는데, 취약청소년 1,201여명과 일반청소년 827명을 조사대상으로 비교 연구한 결과, 자립의지, 진로직업역량, 경제적관리, 주거생활관리, 사회적기술, 자기보호, 학업관리의 7가지 영역에 16요인의 자립준비 요인을 도출하였으며,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이 척도는 시설청소년과 제도권 밖 사각지대의 취약청소년 상황을 전반적으로 반영하여 개발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8년이 경과하여 시대상황이 변했고, 최근에 후기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해 설치되고 있는 청소년자립지원관 등에서 사용하는데 제한이 있다.

가정의 보호 청소년의 자립기술평가를 위해 기존에는 보건복지부 아동자립지원단(2011)이 신혜령(2000)의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해왔으나, 또다시 김지선 등(2018)이 자립준비에 필요한 문항들을 추가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여 개발한 바 있다. 이 척도는 자립지원전담요원이 만 15~17세의 가정외보호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년 초 자립준비에 필요한 최소 기준을 측정하고 점검할 수 있게 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데, 일상생활기술, 자기보호기술, 지역사회자원활용기술, 돈관리기술, 사회적기술, 진로탐색의 6개 하위요인에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복지부의 지원을 받는 아동양육시설, 아동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을 연구대상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이 역시 청소년쉼터나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이용하는 가정 밖 청소년에게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최근에는 김세진 등(2020)이 청소년자립지원관 입소 판정을 위한 목적으로 자립준비 사정도구를 개발하였다. 9개 영역의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문가의 내용타당도(CVI)>.60)와 평정자 간 일치도(Kappa 계수>.40) 모두 양호했으며, 2명의 평정자 간 일치 확률이 89%(ICC=.89)의 높은 일치도를 보였다. 이 사정도구는 청소년의 입소판정을 위해 실무자가 일대일 인터뷰 방식으로 평가하도록 개발되었기 때문에 소요 시간이 긴 편이고(1~2시간), 여러 명의 청소년에게 한꺼번에 사용하거나 자립지원 서비스의 변화과정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는데 제한이 있다. 국내의 척도별 세부 내용은 다음의 <표 7>에 제시하였다.

<표 7> 자립준비도 관련 국내척도

연구자	대상	구성요인	문항	비고
김세진 외 (2020)	취약 청소년	자립의지(3), 주거관리(4), 직업역량(5), 경제관리(3), 자기보호(3), 학업관리(2), 자원활용(2), 일상생활관리(3), 사회적기술(5)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방식 : 인터뷰 평정자간 평정일치도 : Kappa>.40, ICC=.89(89% 일치) 전체 α=.90
김지선 외 (2018)	가정외 보호 아동	일상생활기술(8), 자기보호기술(6), 지역사회자원활용기술(6), 돈관리기술(6), 사회적기술(7), 진로탐색(7)	36	<p><신뢰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 α=.87 하위 α=.78~.90
조규필 (2013)	취약 청소년	자립의지(4), 진로직업역량(12), 경제적관리(9), 주거생활관리(13), 사회적기술(6), 자기보호(6), 학업관리(4)	54	<p><신뢰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 α=.94 하위 α=.66~.87
보건복지부, 아동자립지 원단(2011),	보호종료 아동	일상생활(7), 자기보호(9), 돈관리(11), 사회적기술(7), 진로탐색 및 취업(2+18), 주거(6+2), 원가족(친부모)(6), 심리정서(4)	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립준비도 점검척도 (18세보호종료점검용) 2점척도 사용 <p><신뢰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뢰도, 타당도 : 미확인
김정연 외 (2011)	성매매 피해 청소년	금전관리기술(경제적 자립)	3	<p><신뢰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 α=.75 하위 α=.67~.73
		직업준비정도(경제적 자립)	4	
		위생관리(생활자립)	2	
		일상생활관리(생활자립)	3	
		관계자립	5	
		주도성(정서자립)	3	
안정성(정서자립)	4			
신혜령, 김보옥 (2011)	시설보호 청소년	일상생활기술	12	<p><신뢰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위 α=.69~.89
		자기보호기술	14	
		지역사회자원 활용기술	3	
		돈 관리 기술	13	
		사회적 기술	13	
		진로탐색 및 취업기술	11	
직장생활 기술	6			
손혜옥 외 (2008)	시설보호 청소년	자립의지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점척도 사용 <p><신뢰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 α=.877 하위 α=.73~.83
		생활관리능력	8	
		자아존중감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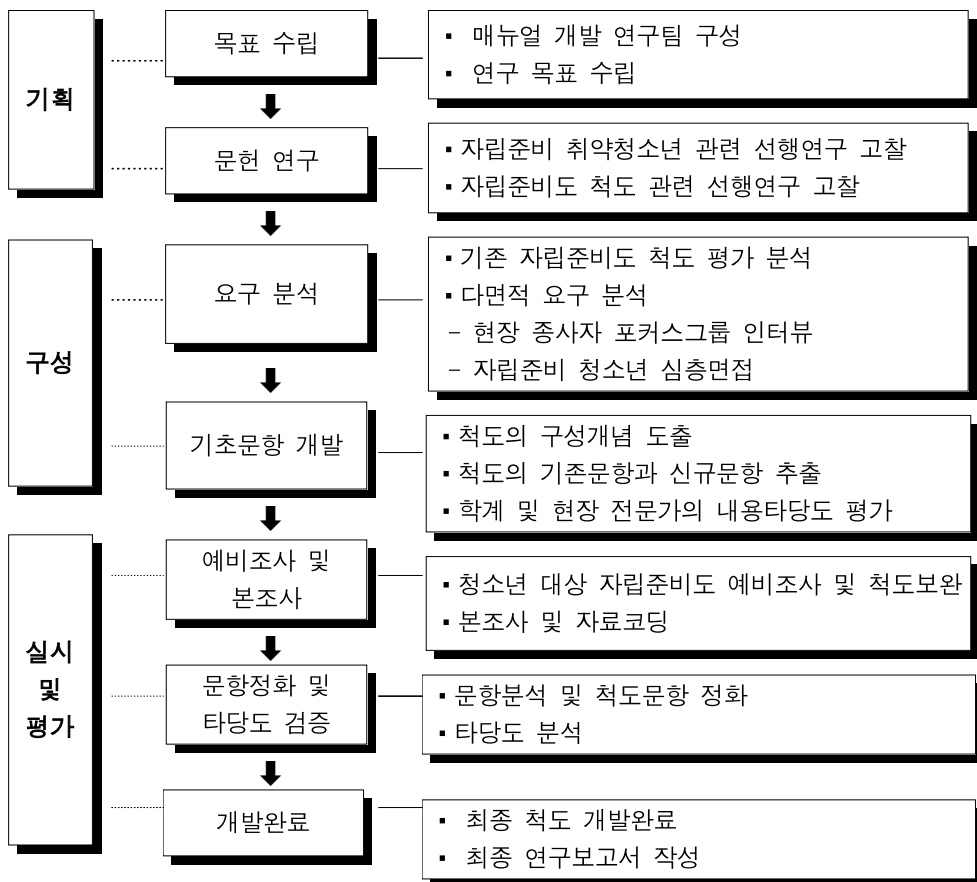
연구자	대상	구성요인	문항	비고
박은선 (2005)	시설퇴소 청소년	자립의지	6	<신뢰도> • 하위 $\alpha=.79\sim.87$
		생활과업수행기술	8	
		대인관계기술	9	
		문제해결기술	5	
		취업여부	1	
		학업적응여부(대학생인 경우)	2	
		직업기술 준비정도	2	
김희성 (2002)	빈곤가정 청소년	사회성	17	<신뢰도> • 하위 $\alpha=.70\sim.82$
		직업가치관(직업태도)	18	
		직업준비	9	
		생활관리	7	
		자립의지	6	
신혜령 (2000)	시설보호 청소년	자원관리기술 (건강유지, 금전관리, 소비기술, 여가선용, 직업, 교통, 자원활용)	15	• 청소년,보육사 각각 사용 • 5점척도 사용 <신뢰도(청소년/보육사)> • 전체 $\alpha=.88/.91$ • 자원관리기술 .81/.85 • 자기관리기술 .79/.85
		자기관리기술 (개인위생, 용모·의복관리, 주변정리, 음식준비 등 일상생활능력, 가족 및 친구관계, 계획성)	16	

* 출처 : 조규필(2013: 29-30) 추가 보완

III. 연구 방법

1. 연구추진 개요

본 연구는 청소년자립지원관이나 청소년쉼터 등에서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취약청소년의 자립준비도를 측정하는데 적합한 평가도구를 개발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에 개발된 자립준비도 척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정방향을 설정하여 문헌 조사와 현장 종사자 포커스그룹 인터뷰, 청소년 대상 양적·질적조사, 학계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현장중심적이면서 수월하게 자립준비도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타당화된 척도를 개발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아래 [그림 7]과 같다.



[그림 7] 청소년 자립준비도 척도개정 및 타당화 연구절차

2. 조사·분석방법

가. 문헌조사

문헌은 국내 및 해외 자립준비 관련 요소들과 자립준비도 척도 개발 관련 논문들을 검토하였으며, 자립 관련 통계정보들을 수집하였다. 또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여성가족부, 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법무부 소년보호협회 등의 협조를 받아 보호아동·청소년 자립 관련 내부자료를 확보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나. 실무자 FGI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는 2021년 5월에 자립준비도 척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는 자립지원시설에서 2년 이상 경력을 가진 현장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2차에 걸쳐 각 5명씩 집단을 구성하여 연구자 2명이 함께 진행하였다. 참여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중장기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아동자립생활관, 한국아동권리보장원의 전문가로 구성하였다. 집단 인터뷰 시간은 차수당 2시간 30분정도 소요되었다. 사전에 질문지를 미리 발송하여 질문내용을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필요시 현장 실무자들의 의견을 취합하거나 관련 서식들을 지참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인터뷰 직전에 모든 참여자에게 인터뷰에 대한 녹음 동의를 구하고, 연구진은 질문내용에 대해 인터뷰 참여자들 간에 추가질문을 교환하며 합의 도출될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인터뷰 종료 후 녹취록을 작성하고 현장에서 기록한 메모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표 8> 포커스그룹 참여자 현황

차수	소속	참여자	성별	관련경력
1차	A 청소년자립지원관	시설장	남	2년 6개월
	B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시설장	여	3년 1개월
	C 청소년자립지원관	시설장	남	15년
	D 남자중장기쉼터	시설장	여	8년 5개월
	E 한국아동권리보장원	부장	여	12년 1개월
2차	A 청소년자립지원관	시설장	여	3년
	B 청소년자립지원관	시설장	남	3년
	C 아동자립생활관	자립전담요원	남	9년

차수	소속	참여자	성별	관련경력
	D 여자중장기쉼터	시설장	남	6년
	E 청소년자립지원관	시설장	남	3년

FGI 질문지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자립준비영역을 종합 검토하여 모두 9가지 영역으로 구성하였으며, 척도의 구성요인에 관해 실무자의 관점에서 청소년이 자립을 준비하는데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자립준비도 척도를 구성할 경우 소요시간과 검사주기, 활용 절차는 어떠한지를 인터뷰 참여자들 간에 자유롭게 토론하며 합의된 의견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질문지 구성은 다음의 <표 9>와 같다.

<표 9> 자립준비영역에 관한 실무자 대상 질문

구분		주요 질문 내용
자립 준비 영역	자립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의지는 자립준비에 얼마나 중요한가? • 자립의지는 주관적인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 문제해결 방법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주거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마련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재정이 필요한가? • 주거마련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 주거마련에 필요한 정보는? • 집을 구하고, 관리하는 방법은?
	직업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을 위해 어느 정도의 급여수준을 유지해야 하는가? • 일터에서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가? • 직장에서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 직장에절은 얼마나 중요한가? • 취업경험은 자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경제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돈에 대한 가치관은? • 보험과 투자, 저축, 대출에 대한 지식은 어떠한가? • 합리적인 소비방법은? • 공과금 및 할부금, 세금 납부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 신용카드를 통제하고,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은?
	자기보호 (신체, 심리정서,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건강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 심리정서 안정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 성보호를 위해 알아야 할 지식은?
	교육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준비를 위해 어떤 교육이 필요한가?
	자원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활용능력은 자립을 위해 어느 정도 필요한가? • 자원활용에는 무엇인 있는가?

구분		주요 질문 내용
	일상생활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상생활에 필요한 음식준비, 청소, 세탁, 안전관리는 어떠한가?
	사회적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인과 소통하고 관계맺고, 갈등해결하는 방법은 어떠한가? 시간관리는 얼마나 중요하며, 그 방법은 어떠한가? 용모와 위생관리는 사회생활에 얼마나 중요하며, 그 방법은 어떠한가?
척도의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척도의 문항수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 적절한 검사주기는? 현장에서 척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다. 청소년 개별면접

청소년 개별면접 참여자는 자립을 준비하고 있는 가정 밖 청소년을 중심으로 연령, 성별, 지역분포, 소속 시설을 고려하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을 통해 자립의지가 있고, 독립적인 생활 경험이 있는 청소년 7명을 선정하였다. 이들은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중장기쉼터에서 자립을 준비하고 있는 청소년들이다. 연령대는 만 17세에서 만 24세 사이로 한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시설아동의 경우 시설퇴소 직전에 있거나, 계속해서 자립을 준비 중인 청소년 연령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면접참여자의 성별은 남자 3명, 여자 4명이며, 지역별로 수도권 2명, 호남권 2명, 부산지역 3명이었다. 소속 시설별로는 청소년자립지원관 2명, 중장기쉼터 2명, 청소년회복지원시설 3명이었다. 인터뷰는 2021년 5월 중에 소속 시설장의 협조를 받아 연구자 2명이 수도권, 광주, 부산지역에 있는 시설에 방문하거나 직접 청소년의 독립 주거지에 방문하여 개별 면접을 실시하였다. 사전에 면접 참여자에게 연구참여 동의서를 통해 조사의 목적과 방법, 비밀보장의 원칙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인터뷰 녹음에 대한 동의를 구했다. 개인별 면접 시간은 1시간 30분 내외 정도 소요되었다. 면접참여 청소년의 세부 현황은 다음의 표 10과 같다.

<표 10> 청소년 심층면접 참여자 현황

연구 참여자	소속	성별	나이	보호 기간	자격증 여부	근로 경험	경제 상태	학력
1정○○	A 청소년자립 지원관(서울)	여	만23	2년 9개월	컴퓨터그래픽, 디지털활용정보능력증급	광고회사, 백화점(9개월)	저축100만원, 보증금 300만원	고졸

연구 참여자	소속	성별	나이	보호 기간	자격증 여부	근로 경험	경제 상태	학력
2송○○	B 청소년자립 지원관(인천)	남	만20	2년	운전면허2종, 바리스타2급, 태권도4단	전단지, 힛집, 편의점 등 (2년4개월)	저축 1천만원	고졸
3박○○	C 남자중장기 쉼터(광주)	남	만21	1년 1개월	일본어1급, 비즈니스 통번역 1급	물류, 건설직, 서비스직 (5년)	채무 75만원	고졸 검정고시
4박○○	D 여자중장기 쉼터(광주)	여	만17	3년 1개월	바리스타2급, 메이크업	고기집 서빙 (4시간)	저축 500만원	고2재
5황○○	E 남자청소년 회복지원시설 (부산)	남	만19	4개월	없음	없음	저축, 채무 없음	고3재
6임○○	F 여자청소년 회복지원시설 (부산)	여	만17	7개월	없음	카페서빙, 아이돌봄 (1년 미만)	채무 13만원	고2재
7김○○	G 여자청소년 회복지원시설 (부산)	여	만17	7개월	없음	핸드폰가게, 사무보조 등 (1년미만)	채무 80만원	중졸 검정고시

자료수집은 다음의 <표 11>과 같이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여 자립준비에 관한 질문을 통해 이루어졌다. 인터뷰에 앞서 연구의 목적과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을 소개하고 연구 참여 동의를 작성하였으며, 인구사회적 특성과 지원받고 있는 소속기관, 현재의 자립준비 상태를 확인하였다. 척도 개정 관련 주요질문은 자립준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심리적, 물리적, 환경적 요인들로 구성하여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자립하는데 있어 자립의지가 얼마나 중요한가, 집을 마련하고 관리하는 것, 직업준비, 경제관리, 자기보호, 일상생활관리, 사회기술, 자립을 위한 교육, 주변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진술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자립준비에 필요한 것을 진술하도록 하였다. 답변에 대해 추가 정보가 필요할 경우 추가 질문을 통해 면접 내용을 심화시켰다. 인터뷰 종료 후에는 필요시 추후 면접에 대한 동의를 구했다.

<표 11> 자립준비에 관한 청소년 개별면접 질문

구분	질문내용
사전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의 목적, 연구내용 및 방법 설명 • 연구참여자 동의서 작성
인구사회적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름, 나이, 성별, 가족현황 • 소속, 입소기간 • 자립준비상태 : 자격증 여부, 근로경험, 경제, 학력
연구질문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자립준비 상태는? • 자신이 생각하는 자립의 목표는? • 구체적인 자립계획은 갖고 있는가? • 자립준비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연구질문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준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심리적, 물리적, 환경적 요인들은 무엇인가? • 자립하는데 있어 자립의지는 얼마나 중요한가? (인생목표 여부, 자립동기, 실천여부) • 집을 마련하고, 관리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주거지원 정보, 주거마련계획, 집 관리) • 직업준비는 얼마나 중요한가? (직업가치관, 직업조사 여부, 직업선택 여부, 구직기술, 직장적응능력) • 경제관리는 얼마나 필요한가? (소비, 저축, 신용관리) • 자기보호는 얼마나 필요한가? (신체건강, 정신건강, 성보호) • 일상생활관리는 얼마나 필요한가? (음식, 청소, 세탁, 안전관리) • 사회기술은 얼마나 필요한가? (용모, 대인관계, 예절, 시간관리, 법준수) • 자립을 위해 교육은 얼마나 중요한가? (교육정보, 학력취득, 자기계발 등) • 주변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자원 관리)은 얼마나 필요한가?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부모의 도움, 친구나 아는 사람의 도움) • 그 밖에 자립준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면접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뷰 소감 • 추후 면접에 대한 동의 구하기

라. 전문가 내용타당도 평가

문헌조사 및 실무자 FGI, 청소년 개별면접을 통해 구성된 기초문항에 대해 학계 및 실천 현장의 전문가 자문단 10명을 구성하여 내용타당도(CVI) 검증을 실시하고자 한다. 검증 내

용은 자립준비 영역과 검사문항이 자립준비 수준을 측정하기에 적합한지를 5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며, 평가의견을 오픈형으로 기술하도록 하였다.

마. 예비조사

예비조사형 설문지는 기초문항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거쳐 수정된 문항을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은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청소년자립지원관 협조를 받아 만 17~24세 사이 입소 청소년을 대상으로 (편의)표집을 통해 선정하였다. 총 10명의 청소년(남자 5명, 여자 5명)이 참여하였으며 설문문항 중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이나 단어가 있는지, 자립준비와 관련 없는 문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피드백을 수집, 분석하여 수정·보완된 최종 예비 문항을 개발하였다.

<표 12> 예비조사 참여자 현황

구분		인원	비율(%)
성별	남	5	50
	여	5	50
연령	18~19	2	20
	20~22	4	40
	23~24	4	40
학력	고졸	10	100
거주형태	시설	2	20
	임대주택	5	50
	고시원	1	10
	자택	1	10
	오피스텔	1	10
자격증	유	5	50
	무	5	50
취업경험	유	6	60
	무	4	40
계		10	100.0

바. 본조사

본조사는 예비조사 결과를 통해 수정·보완된 문항을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자는 예비조사와 마찬가지로 자립준비도 척도 사용이 요구되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중장기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의 가정 밖 청소년, 아동양육시설, 아동청소년공동생활가정 등에서 생활하는 가정외보호청소년, 보호종료아동, 범법청소년을 지원하는 청소년자립생활관에서 생활하는 만 17~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수표집 및 할당표집을 통해 466명을 선정하였다. 조사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선정은 우선적으로 해당 기관에 연구 참여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기관 이용 및 시설 청소년들에게 설문 참여에 대한 자발적인 동의 절차를 거쳐 대상 청소년이 선정되었다. 설문은 온라인 조사로 시행되었으며, 설문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하였다. 설문 참여자 466명 중 문항 답변을 완료하지 않은 청소년과 중복응답 청소년 38명을 제외한 428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활용되었다. 설문 응답은 익명으로 처리되었으며, 데이터 자료는 미공개로써 연구가 종료된 이후 모두 파기할 예정이다.

<표 13> 본조사 설문 참여자 현황

구분		N	비율(%)
성별	남자	182	42.5
	여자	246	57.5
연령	16~19세	269	62.8
	20~24세	159	37.2
학업상태	학업중단	221	51.6
	재학중	99	25.2
	졸업	108	23.1
주거지	자립지원시설	194	45.3
	내임대주택	73	17.1
	고시원	18	4.2
	기타	143	33.4
자격증 소지 여부	있음	220	51.4
	없음	208	48.6
취업훈련경험 여부	있음	146	34.1
	없음	282	65.9

구분		N	비율(%)
취업경험 여부	있음	101	23.6
	없음	327	46.4
소속	청소년쉼터	110	25.7
	청소년자립지원관	92	21.5
	내일이룸학교	69	16.1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45	10.5
	아동양육시설	24	5.6
	아동청소년그룹홈	23	5.4
	청소년회복지원시설	18	4.2
	청소년자립생활관(법무부산하)	15	3.5
	기타	21	4.9
	무응답	11	2.6
합계		428	100.0

사.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코딩을 거쳐 IBM SPSS 26버전과 IBM SPSS AMOS 26 버전을 이용하여 문항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구성타당도와 수렴타당도 및 판별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척도의 신뢰도 분석을 하였다.

① 문항분석

문항분석은 평균, 표준편차의 기술통계치, 개별문항과 전체문항 간의 상관관계, 문항 제거 시 내적일치도(Cronbach α) 확인 등을 통해 심각한 문제를 보인 문항을 제거하였다. 문항분석의 문항 제거의 기준은 첫 번째 기준은 평균이 너무 높거나 낮은 문항을 제거하는 것이다. 4점 척도의 경우 각 문항의 평균이 3.5점 이상인 문항과 평균 1.5점 이하의 문항이 그 기준에 해당한다. 이는 4점 척도일 경우 문항 제거 기준을 제시한 임영식과 정경은(2019)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설정하였다. 두 번째 기준은 각 문항과 전체 척도와의 상관계수가 .3 이하인 문항을 선별하였다. 세 번째, 개별 문항이 삭제된 경우 내적일치도가 현저하게 낮아지는 문항에 대해 삭제 기준을 적용하였다. 위의 문항 제거 기준에 해당되는 문항들은 응답자들의 개인차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기에 삭제 후보 문항으로 분류하였다. 특히 위의 기준

가운데 2개 이상 제거 기준에 해당하는 문항들은 일차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하나의 조건에 해당되는 문항은 연구자들의 논의로 최종 문항 제거를 결정하였다.

② 탐색적 요인분석

문항분석을 통해 변별된 문항에 대한 구성타당도를 확인하고 요인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추출방법은 공통요인분석의 한 방법인 주축요인분석법(principal axis factor analysis)과 직교회전 방식인 베리맥스(varimax) 방식을 사용하였다. 자료에 대한 표본적절성 측정치인 표본적합도(KMO: Kaiser-Meyer-Olkin Measure)를 확인하였다. Kaiser(1974)는 변수들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들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KMO 값은 .9 이상이면 상관관계가 좋고, .8 이상이면 양호, .6~.7 보통, .5 미만이면 요인분석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였다. 또한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Bartlett의 구형성 검증(sphericity test)의 유의수준을 살펴보아(Bartlett, 1950) 자료의 상관이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적절한 수준이 되는지 확인하였다.

요인의 수를 결정하는 기준으로는 고유치(eigenvalue), 누적설명변량 비율, 공통성(communality), 스크리 검사(scree test),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 등을 사용하였다. 고유치는 요인의 고유치가 1 이상(Kaiser, 1960), 누적변량 비율 60% 이상, 공통성 .40 이상을 지니지 않는 문항들을 삭제하였다. 요인부하량은 .40 이상을 선택 기준으로 삼았다. 스크리 검사는 고유값이 갑자기 작아지는 지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신뢰도 분석은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는 Cronbach α 를 이용하였다.

③ 확인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은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로 구성된 척도의 교차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은 전반적인 모형의 적합도(overall fit of model)를 나타내는 χ^2 값으로 유의수준이 .05 이하이면 적합하다. 하지만 사회과학 실증분석에서는 χ^2 값이 표본 크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상당수의 연구들이 p 값이 0에 가까워 기각된다. 따라서 표본 크기가 크다는 이유로 영가설이 기각되는 제1종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p 값보다는 다른 적합도 지수를 판단 준거로 사용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모형의 적합도(goodness-of-fit)를 평가하기 위해서 CFI, TLI, IFI, RMSEA 등의 지수를 살펴보았다. CFI, TLI, IFI는 .90 이상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간주하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는 RMSEA는 .50 이하이면 좋은 적합도, .80이면 괜찮은 적합도, .10 이하이면 보통적합도, .10 이상이면 나쁜 적합도를 나타낸다(Brown &

Cudeck, 1993). 모형 적합도를 확인하면서 변수의 분산에 대한 검정통계량인 C. R. 값,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 값 확인을 통해 가장 적합한 모형이 구축되도록 문항을 수정하였다. C. R. 값이 +1.96보다 크지, 마이너스(-)가 아닌지 확인(역문항이 아닐 경우)하였다. 잠재변수별 관측변수의 표준화 λ 값이 .5 이상인지를 확인하였는데, Bagozzi와 Yi(1991)는 표준화 랏다의 값이 .5에서 .95의 사이에 존재하면 강한 수렴타당도를 갖는다고 설명한다.

확인적 요인분석의 적합도 지수가 적절하다는 것만으로도 신뢰성과 타당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데, 그 이유는 확인적 요인분석은 탐색적 요인분석과는 달리 관측변수가 단 하나의 잠재변수와 상관을 가지기 때문이다(김대업, 2008).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Fornell과 Larcker(1981)가 제시한 신뢰성과 타당성 검사를 실시하여 신뢰성과 타당성을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하였다. 측정모형에서 변수의 표준화계수값과 오차항값을 이용하여 내적 일관성을 측정하는 구성개념신뢰성(construct reliability: CR)과 신뢰도 측정치인 평균분산추출값(averaged variance extracted: AVE)을 계산할 수 있다. 구성개념신뢰성과 평균분산추출값은 AMOS분석에서 제시되지 않기 때문에 [그림 5]의 변수의 표준화계수값과 오차항값을 공식에 적용하여 직접 계산하였다. 구성개념신뢰성은 .7 이상(Hair, Black, Babin, Anderson, & Tatham, 1998), 추출된 분산값(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이 .5 이상이면 신뢰성이 인정된다(Bagozzi & Yi, 1988; Chin & Gopal., 1995; Hair et al., 2006). 각 잠재요인의 AVE는 잠재요인들의 상관계수의 제곱값보다 커야 타당성이 인정된다.

$\frac{\sum_{i=1}^k (std.\lambda_i)^2}{\sum_{i=1}^k (std.\lambda_i)^2 + \sum_{i=1}^k (1 - std.\lambda_i)}$	$\frac{\left(\sum_{i=1}^k std.\lambda_i\right)^2}{\left(\sum_{i=1}^k std.\lambda_i\right)^2 + \sum_{i=1}^k (1 - std.\lambda_i)}$
AVE 계산법	CR 계산법

[그림 8] AVE와 CR 계산법

마지막으로 평균분산추출값과 잠재변수의 상관계수의 제곱(Squared Multiple Correlation: SMC)을 기준으로 잠재변수들의 판별타당성을 확인한다. 잠재변수의 판별타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개별 잠재변수의 평균분산추출값이 잠재변수 간 상관계수의 제곱보다 커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산출된 값들을 모두 확인하면서 문항을 최종 구성하였다.

④ 공인타당도 검증

공인타당도 검증은 기존에 타당성을 입증 받고 있는 척도와와의 관계를 비교함으로써 타당도 관련 근거를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청소년 자립준비도 척도들 외에 청소년의 자립준비도와 유사한 특성을 지닌 척도인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비교 척도로 삼아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아. 청소년 특성에 따른 자립준비도 차이

설문에 참여한 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자립준비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t검증과 분산분석(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산분석 후 집단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청소년의 특성은 성별, 연령, 학력, 자격증 소지여부, 취업교육훈련 경험 유무, 취업경험여부, 청소년의 소속과 특성으로 집단 차이를 확인하였다.

3. 조사도구

예비조사와 본조사에 활용된 조사도구는 본 연구의 개발 목표인 자립준비도 개정 척도의 기초문항에 대해 내용타당도 검증을 거쳐 개발한 예비문항을 사용하였고, 예비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부적합한 문항을 수정·보완해 본조사에 활용하였다. 본조사용 자립준비도 척도는 89개의 기초문항을 내용타당도를 거쳐 보완한 91개의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자립준비도의 하위영역은 자립의지, 주거관리, 일상생활기술, 직업역량, 경제적관리, 사회적기술, 자원활용, 자기보호, 자기개발로 구분된다. 설문 반응 양식은 자기평정 방식의 4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2)’, ‘그렇다(3)’, ‘매우 그렇다(4)’로 구성하였다. 기존 5점 Likert 방식이 중간값(보통이다)이 있어 청소년들이 응답할 때 중간값 응답율이 높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최근 4점 Likert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공인타당도 검증을 위한 조사도구는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진로준비행동은 김봉환(1997)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진로준비행동은 진로 준비를 위한 정보수집 활동,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활동,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 등의 내용으로 총 1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한다. 진로준비행동의 하위요소는 정보수집활동, 목표달성활동, 도구구비활동으로 구분된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CDMSES)은 Taylor와 Betz(1983)가 개발한 척도를 Bezs, Klein, 그리고 Talyor(1996)가 하위척도별로 5개 문항들을

선별하여 구성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단축형 척도(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Short Form: CDMSES-SF)를 이은진(2001)이 번안하였는데, 이 가운데 교과과정과 전공과 관련된 문항을 직업 및 진로 등으로 학교밖청소년에 맞게 문항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심정은(2017)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에 요구되는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다는 개인의 신념정도를 측정한 것으로 하위 요소는 자기평가, 직업정보수집, 목표 설정 계획수립, 문제해결로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였다.

IV. 연구결과

1. 실무자 FGI 결과

기존에 개발된 자립준비도 척도들을 기반으로 하여 자립준비 영역을 구성하였으며, 신규로 추가되어야 하거나 수정, 삭제할 문항 여부를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자립준비 영역은 9가지로 나뉘며, 척도의 구조에 관한 의견을 분석·정리하였다. 자립준비 영역별 세부적인 척도의 구성 및 내용에 관한 의견을 다음의 <표 14>에 제시하였다.

<표 14> 자립준비 영역별 실무자 주요의견

영역	하위요소	주요내용
자립의지	-	자립의지는 실천여부 확인이 중요함
주거관리	보증금 및 월세, 관리비 마련	공공 임대주택 마련을 위한 1차 목표
	현실적인 주거마련계획	주거유형별 비용 확인 중요
	공공지원주택 이전 신청방법	까다로운 신청절차이므로 알아둘 필요 있음
	주거관리방법	공과금 납부, 시설유지
직업역량	주거와 일상생활관리 영역의 분리	주거관리, 일상생활기술로 영역 분리
	일정기간 일정수준의 일자리 확보	1년 이상의 안정적인 임금을 받는 일자리 필요
	근로자로서 정당한 대우받기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권 피해 예방
	직장 내의 갈등 조절하기	갈등해결능력 필요
	조직생활 상하관계에서 자기 역할에 대해 수용하기	조직생활의 질서이해, 불합리한 요구에 대한 자기주장
	취업관련 긍정적 경험	직업선택 및 자기성장에 도움
경제관리	직장예절	사내에티켓 및 퇴사매너가 경력관리에 도움
	돈에 대한 올바른 가치 인식	인정과 보상을 받는 돈의 가치 인식
	보험	질병과 사고에 대비
	저축과 투자	주거비, 결혼자금, 자기계발비 등 목돈 필요
	대출	대출금리, 불법대출, 핸드폰 소액결제 통제
	합리적인 소비	소비기록, 충동구매 억제

영역	하위요소	주요내용
	공과금 및 할부금, 세금납부 관리	난방비, 전기세, 수도세, 통신요금
	올바른 카드사용 관리	신용카드 통제
	금융사기 예방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신용정보 제공
자기보호	신체건강	규칙적인 운동, 치아건강, 건강보험
	심리정서 안정	두려움, 외로움에 대한 심리치료
	성보호	데이트폭력, 성폭력, 몸캠피싱, 원치않는 임신 예방
교육관리	-	검정고시, 대학진학, 자격증취득을 위한 교육관리
자원활용	-	위급시 타인의 도움
일상생활관리	음식관리	직접 조리, 밀키트, 배달음식 등 식생활 변화에 따른 영양관리
	청소세탁	청소, 정리정돈, 세탁물관리
	안전관리	가전제품이나 가스사용시 안전점검
사회적기술	소통기술	자신의 생각과 감정 표현
	관계형성	쉐어하우스 동거인, 직장동료와 관계형성
	갈등해결방법	갈등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확인
	시간관리	생산적인 시간, 소비적인 시간의 개념 쉽게 설명
	용모/위생관리	단정한 복장, 청결한 위생, 외모중시 경계
척도의 구조	문항수	문항축소, 구체적인 체크리스트 기능 동시충족
	검사 주기	6개월 단위
	활용절차	자립사정도구 → 자립준비도 척도 → 자립계획

가. 자립의지

기존 척도의 ‘자립의지’ 영역은 주관적인 내용이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모호한 부분이 있어 단지 의사를 묻는 차원보다는 ‘실천하고 있는지’, 실천하고 있다면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또한 문제해결 방법에 있어서도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지보다는 ‘문제해결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으로 수정이 필요하고, 유사한 의미의 반복적인 문항은 하나로 합치는 것을 제안하였다.

“자립의지는 굉장히 높은데, 실천이 굉장히 낮은 친구들이 있어요. 항상 의지는 풀 충만인

데, 실천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보완이 있거나, 그것에 대한 지속을 할 수 있다 없다라는 문항이 있으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F2-A)

“문제 해결 방법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필요한거 같은데. 여기서 하나 덧붙여서 얼마만큼 실천을, 알고 있는 거에 넘어서 얼마만큼 실천을 하고 있는냐는 질문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F2-B)

“알바천국, 알바몬 이런 사이트가면 아이가 여기저기 이력서를 내거든요? 문자로? 내용들이 나와있어요 이러면 아이가 많이 했구나.. 어떻게 해서든 일을 하려고 좀 했구나.. 좀 객관적인 데이터를 쓰기는 하거든요? 구인구직에 대한 근거가 다 나와 있으니깐...(중략) 요즘 아이들은 무조건 커뮤니티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어플 통해서” (F2-E)

“자립하는데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극복할 자신이 있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혼자 힘으로 어떠한 일든지 해낼 자신이 있다’ 저는 이 문항이 비슷한 것 같아서, 오히려 이 질문을 하나로 합치거나, (중략)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하고 어떻게 대처하는 가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었으면” (F2-B)

나. 주거관리

주거문제는 시설을 떠나야 하는 청소년들에게 가장 필수적이면서, 비용부담이 커서 혼자 힘으로 해결해 나가기 어렵기 때문에 공공의 주거서비스에 상당히 의존하는 면이 있다. 구체적인 준비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보증금 및 월세, 관리비 마련

보통은 보증금과 월세, 관리비를 마련할 수 있는 수준을 1차 목표로 삼고 있다. 다행히 가정밖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2년 이상 거주하면 LH 등의 공공 주거지원 신청자격을 얻을 수 있어 주거문제가 해결된다. 만약 2년을 못 채운 청소년은 고시원에서 3개월 정도 지내면 취약계층으로 인정받아 신청자격을 얻어 해결해 나가고 있었다.

“일단 저희는 혼자서 월세내는 정도인데, LH랑 연계하면 월세 한 10만원 정도에 현재 15평에서 옵션 다 있는 집에서 살 수 있어서, 한달에 30만원 정도 공과금이나 통신비를 낼 수 있는 정도만 벌고, 또 20만원 정도 저축할 수 있고, 꾸준히 근로생활 유지할 수 있고” (F2-E)

“기본적인 주거안정은 비슷한데요...고시원이나 모텔 주거에 있는 애들이 LH에 입주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주거비가 한 15만원정도 LH들어가면 나가기 때문에, 그 정도의 급여와 일자리는 4~5일 정도 6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아이들이 월세내고, 공과금내고, 용돈쓰고, 통신비 내는데 부담이 없는 정도가 나오거든요” (F2-A)

② 현실적인 주거마련 계획

또한 주거 마련 계획은 아이들 여건상 저렴한 주거지부터 시작해서 점차 나은 수준으로 옮겨가는 형편이므로 필요를 못 느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주거 유형에 따라 어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한지 경제관념이 희박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알려줄 필요가 있다.

” 주거 마련 계획이라고 하셔서 이거까지 생각하는 애들이 있을까가 퀘스천이거든요 그냥 돈이 없으면 투룸 풀옵션, 더 없으면 원룸 풀옵션, 더 없으면 원룸인데 풀옵션 없는 곳으로 간다, 더 없으면 고시원으로 간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거든요 “(F1-A)

③ 공공지원 주택 이전 신청 방법

공공 지원 주거지 이전 신청절차가 까다로워서 힘들어 하는 청소년들이 많기 때문에 이를 알려줄 필요가 있어 척도에 반영하면 좋을 것이다.

“의정부에서 LH지원 주택 살다가 광주로 내려갔는데, 이사하는 방법을 애들이 몰라요 초창기에는 쉐터 선생님이든 자립지원 선생님이든 행정을 정리를 해주는데 애가 그때부터 뒤편 떴고 이런걸 해야하는데 그게 맨붕인거죠 대전에서 다시 올라올 때 본인 혼자 하려고 하다가 그게 멍청한 애가 아니고 똑똑한 앤데 손을 들더라구요 도와주세요” (F1-A)

④ 주거관리방법

주거지를 마련하고 나면 제대로 관리할 줄 알아야 하는데 공과금 납부나 시설유지 등에 대한 상식이 부족해 주거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주거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과 척도 반영이 제안되었다.

“공과금과 그 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다가 저희는 있는데 이게 주거관리에 들어가도 될 것 같거든요” (F1-E)

“변기 막혔을 때, 하수도 막혔을 때 전기 불 나갔을 때 이런거. (업자를 부르면 되는거 아

닌가?) 근데 그걸 안하더라구요 물이 세는데 그걸 애들이 맡은 안해자기고 밑에 집에서 나중에 해서 소리가 쭈쭈쭈 세는데도 애들이 맡을 안 해주니까” (F1-C)

⑤ 주거와 일상생활관리 영역의 분리

기존의 척도에서 주거 및 일상생활관리 영역이 하나로 되어있었으나 주거영역이 자립에 필수적이며 복잡한 정보를 알아야 하는 면이 있어서 명확하게 구분해줄 필요가 있다.

“주거관리랑 일상생활이 분리되는 것이 좀 더 적합해 보여요

LH나 공공주거 지원제도를 알고 있다는 걸 해서 지역사회 자원활용에 넣고 싶었지만, 튕겨나와가지고 결국엔 못 넣었는데, 한편으로는 주거를 따로 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느끼기는 했어요 “(F1-E)

다. 직업역량

청소년은 주거비를 부담하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최소 1년 이상 기본적인 수준의 월수입(150만원 이상)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 직장을 구하는 단계에서 제대로 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정당한 대우를 약속받는 것이 중요하다. 구직에 성공하더라도 근로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직원상사와 동료들 간에 직장예절을 지키며 긍정적인 관계를 맺어야 하므로, 갈등상황에 처했을 때 적절히 조율하고 해결할 수 있어야 하며, 유사시 성추행이나 임금체불 등과 같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적절히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확인 문항이 제시되었다.

① 일정기간 일정수준의 일자리 확보

최소 1년 이상은 꾸준히 월세를 낼 수 있는 정도의 일자리를 갖고 있어야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단기 말고 최소한 1년 이상의 좀 더 장기적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 정도가 되고, 그래도 꾸준히 일용직이라도 다니고 그래서 월수입이 150정도 수준에서 자기가 자기 밥벌이를 하고 있으면...” (F1-A)

② 근로자로서 정당한 대우 받기

취업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근로지에서의 성추행이나 임금체불과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근로권 상식과 신고요령을 알고 있어야 하고, 의논할 대상이 필요하다.

“애들한테 꼭 계약서를 써야한다는 걸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물어봐야 할거 같구요 성
추행이라던지 아니면 임금체불이라던지 이런 것들 당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곳, 아니면
의논할 대상이 있는지를 물어보는게 꼭 필요한거 같습니다”(F1-A)

“근로권이라고 할 때 최저임금이라던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아는지”(F1-A)

③ 직장 내의 갈등 조절하기

보통은 직장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일이 힘든 것도 있지만, 직장동료나 직장상사와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서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사전에 이러한 부분을 인지하고
갈등해결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직장생활에 적응에 중요하다.

“직장 내 갈등관계를 나는 스스로 잘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문구가 있었으
면 좋겠다고 하셨거든요? 아이들이 직장 일이 어려워서 그만두기 보다는, 갈등관계를 잘
해결을 못해서, 조율을 못해서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그 것 때문에 피해받는다고 생각
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적응이나 사회적 기술 양쪽 내에 한 군데에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
으면 좋겠습니다”(F2-A)

④ 조직생활의 상하관계에서 자기 역할에 대해 수용하기

조직생활을 경험하지 못했던 청소년이 직장생활하면서 힘든 이유 중 하나가 조직생활에
대한 이해부족일 수 있다. 직장 내의 상하관계에서 조직의 질서와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적절히 처신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사의 불합리한 요구에 대해 적절히 자기주장을 할 수 있
어야 하며, 상사를 존중하면 인정받고 유익한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과 잘 어울려 지낼 수 있다는 의지에요 어쨌든 직장 조직생활이잖아요? 조직생활
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있어야 하고...그..상하관계에서 자기 역할에 대해 본인이 수용하고
할 수 있는지”(F2-E)

⑤ 취업관련 긍정적인 경험

직장생활 중에 긍정적인 일 경험이 직업에 대한 관심과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부정적인 취업경험을 한 경우 일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하고 직업을 준비하는데 소극적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므로 자신의 관심 진로의 직업기술을 익히거나 직장동료와
원만한 관계를 맺는 경험은 직업적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직업선택이나 이러한 것에 있어서, 좋은 긍정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를 추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중략) 공장이나 단순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저씨들이나 그런 공장에서 안 좋은 경험이 있다보니까, 이러한 경험이 쌓이면...아이들이 취업을 하기 싫어하고, 일을 하기 싫어하는 그런 경험이 있어서...저희쪽에서는 조금 긍정적인 경험을 조금씩이라도 쌓아주고, 이것을 정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자신이 조금 그 쪽으로 할려고 하는 의지가 조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F2-B)

“코로나 때문에 직장에서 잘리게 되거나, 사장이나 상사한테 안 좋은 말을 들으면...안 좋은 말 같은 것...화라든가...갈등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것 때문에 자존감이 확 떨어지면 회복이 아예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장하고의 관계도 있는데...(갈등에 자존감이 떨어지고...그만 두려고 하고...) 그 다음에 구직활동을 덜하게 되고, (중략) 이상한테 가서 이상한 사장 만나서 박살나서 오면, 회복이 안되죠” (F2-D)

⑥ 직장예절

직장동료나 직장상사에 대해 예의를 지키는 것이 직장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며, 특히 퇴사를 할 경우에도 갑자기 소식을 끊고 무례하게 끝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 나중에 못 받은 임금을 받는다는가 경력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직장예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직장역량에서 애들이 퇴사를 할 때 도망치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직장 내 예절에 관한 부분도 좀 추가가 되면 좋겠어요...입퇴사 예절을 알고 있는지? 성실하게 구직활동하고 퇴사했는지 이런 것들도” (F1-E)

라. 경제관리

현실적으로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자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돈에 대해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 돈을 쉽게 쓸수도 있고, 잘 모을 수도 있다. 현장 실무자들은 유튜브의 영향으로 코인이나 주식투자에 대한 왜곡된 정보가 청소년의 가치관에 금전 만능주의를 심어줄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당장의 눈에 보이는 지출만 생각하고, 갑작스러운 의료비 지출에 대비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보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목돈 마련하고 자산을 증식하는 수단으로 저축이 필요하겠지만, 투자나 대출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금융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돈을 버는 것은 어렵

지만 써서 없애는 것은 한순간일 수 있음을 경계하면서, 무분별한 소비와 충동구매를 억제할 수 있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공과금이나 할부금, 카드대금 등의 고정지출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지출하는 태도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척도 반영을 제시하였다. 특히 대포통장이나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부모의 요청으로 보증을 서거나 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점점 문항들을 척도에 반영하도록 제안하였다.

① 돈에 대한 올바른 가치 인식

유튜브 등의 부정확한 미디어 정보를 통해 큰 돈을 쉽게 벌수 있을 것이라는 한탕주의, 돈이 최고다라는 물질만능주의 가치관을 경계하고 땀 흘려 보상을 받는 돈의 가치에 대해 인식할 필요가 있다.

“Youtube를 많이 봐요. 쉽게 돈버는 방법, 지금 뭐...애들 좋아하는 BI들이 코인이나 주식이나, ‘여러분 30억 투자합니다’ 이러면 아이들이 우르르 보고 있어요, ‘애는 조금 했는데 1억을 벌었네...스포츠카 타야 합니다’ 가치관 자체가 금전 만능주의로 아이들에게 주입을 하고 있는 것이 보여요. 이게 아이들 은연중에 무조건 돈이 세상에서 최고다...모든 매체가 주입하고 있어서...그것을 심하게 보고 있거든요. 돈이 있을 때 돈을 가치있게 쓰냐, 아니면 무조건 좋은 것 사고, 비싼 것 사고...그것이 나를 증명하는 것으로 되니까” (F2-E)

② 보험

갑작스런 질병치료나 사고에 대비해서 건강보험이나 실손보험에 가입해둘 필요가 있다.

“실손이나 최소한의 의료보험을 받을 수 있는 여건들을 갖추는 것이 경제관리에 들어가는지 (중략) 여기를 나갔을 때, 본인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어야 다쳤을 때 받을 수 있으니까” (F2-B)

“자립지원관은 아이들 전체 대상으로 실비하고 상해를 들어주거든요...퇴소한 뒤에는 본인이 내길 원하면 본인으로 바뀌주고요” (F1-A)

③ 저축과 투자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 가능한 공공주거 혜택도 만기가 돌아오면 주거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고, 매월 규칙적인 지출 외에도 자기계발이나 결혼 등 추가 지출이 필요한 상황이 발

생활 수 있기 때문에 목돈을 모으고 자산을 증식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단순히 저축만을 생각하기 보다는 투자의 개념을 이해하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저축이라는 개념이 이제는 좀 바뀌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투자다. 자기 미래에 대한 투자... 예전처럼 돈을 모아놓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투자의 개념으로 아이들에게 알려주거나 지도를 하면 좋지 않을까” (F2-E)

④ 대출

대출상품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통해 대출금리를 비교하거나 최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불법대출이나 핸드폰 소액결제 등 무리한 대출을 받아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경제사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필요시에 금융전문가와 상담을 거쳐 대출을 이용하는 능력이 요구되므로 이에 대한 문항이 제시되었다.

“대출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출 금리를 비교해서 내가 최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아이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중략) 늘 저축은 좋은 것이고, 대출은 굉장히 안 좋은 것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자꾸 암암리에 불법대출 받고, 핸드폰 소액받고 그러는데... 저희도 아이가 이자가 너무 터무니 없는 대출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비교해서 내가 선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은행 상품이나 금융상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지도.. 저희가 계속 교육은 하고 있는데, 대출은 어떻게 받고, 이율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인지하고 있는지도 중요한 것 같아요.” (F2-A)

“부채문제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안 되면 그냥 하루아침에 쌓아 올라가는 건 너무 어려운데, 맡아먹는거는 거의 며칠만에 열흘 보름 만에 그냥 싹 정리할 수 있다보니까...그런게 제일 어려운거 같아요” (F1-A)

⑤ 합리적인 소비

무분별한 소비로 어렵게 모은 자산을 한 순간에 날릴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점검할 수 있는 문항이 필요하다. 특히 기존에 ‘쉽게 충동구매를 하지 않는지’를 묻는 질문보다는, 자신의 소비내용을 기록하여 스스로 충동구매를 억제하려고 하는 실천노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문항이 제안되었다.

“아이들이 소비관련해서는 조금 합리적인 소비가 필요할 수 있도록 그런 문항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애들이 뭐 싸다고 그런 결제같은 것들에 대해서 함부로 쉽게 하고, 아프리카TV에 별풍선 같은 것을 쉽게 날리고...그냥 쉽게 무분별한 소비 지출이 많아서” (F2-B)

“본인의 소비 패턴이나 본인이 소비하는 돈의 규모나 이러한 것을 정리한다던가, 적어 놓는다거나, 기록한다거나, 이러한 것이 문항 중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존의 척도에서는) 충동구매를 하지 않는다고만 적혀 있어서...본인의 소비 패턴을 본인이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항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F2-C)

⑥ 공과금 및 할부금, 세금 납부 관리

주거지의 난방비, 전기세, 수도세 등의 공과금이나 모바일 할부금, 통신요금 등은 고정 지출되어야 하는 비용임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지출하거나, 각종 세금고지서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불필요한 지출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아 재정 관리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문항이 제시되었다.

“공과금과 그 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다가 저희는 있는데 이게 주거관리에 들어가도 될 것 같거든요. 자동이체, 지로 방식 이런걸로 해가지고 LH로 들어가서 공과금을 따로 있다는 생각을 못하고 관리비에 대한 개념이 없기도 해서” (F1-E)

“근데 이게 공과금이 주거관리에만 있는건 아니라서 애들한테는 당장 인터넷이라든지” (F1-A), “핸드폰 요금도 그렇고” (F1-E)

“자동이체 걸어놓지 않으면 고지서가 날라오면 어떤 애들 같은 경우에는 잘 모셔놓더라구요 근데 안내놓으니까 계속 할증 붙고 있고” (F1-A)

⑦ 올바른 카드사용 관리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개념이 희박하여 과도한 지출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상품을 미끼로 한 다수의 신용카드 발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카드 사용 관리를 위한 점검 문항이 제안되었다.

“휴대폰과 신용카드를 쓸 경우 이용요금을 기한 내에 내야하는 책임이 있다라는 문항을 따로 집어넣었어요. 돈 관리 영역에” (F1-E)

“애들이 신용카드하고 체크카드 이런걸 구분을 못하니까. 애들이 마트갔다 아줌마가 뭐 하나 만들면 뭐 준다고 해서 만들었다가 그걸 계속 굶는데 돈이 안나오니까. 체크카드인 줄 알고 빠져 나가는 줄 알고 애가 다 쓰는거예요 (중략) 그걸 생각을 못하다가 한번 당해 봐야 구분을 하는거죠 ” (F1-A)

⑧ 금융사기 예방

대포통장이나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사기를 당하거나, 심지어 부모나 친지의 부탁으로 신용정보를 잘 못 제공하여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금융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 지식과 대비를 위해 척도에 문항이 반영될 것을 제안하였다.

“대포통장이라던지 보이스피싱 이런거를 당했을 때 어디에 가서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자기 방에 차원에서.. 짜인을 부모님들이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애가 나중에 신용불량자가 되고 그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짜인할 때 제대로 봐야한다고 항상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면은 좋지 않을까요” (F1-E)

“저희 아이 하나가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신고를 해봤는데, 그게 경찰이 바로 개입을 안하더라구요. 확실히 범죄라는게 인지되기 전까지는 안 돼서 저희가 다 쫓아다니면서 은행 다 막고, 더 이상 빠져나가면 안되니까. 애는 이제 이미 개인정보 다 준 상태고, 그러니까 막아내는게 더 급하더라구요” (F1-A)

마. 자기보호

자기보호는 신체건강, 심리정서 안정, 정보보호의 3가지 요소로 구분된다.

① 신체건강

기존 척도에서 ‘1주에 4회 이상 규칙적으로 할 수 있는지’ 를 묻는 문항에 대해 규칙적인 운동은 필요하지만 주 4회라는 기준이 모호하므로 횟수는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며, ‘할 수 있다’ 는 좀 더 명확한 표현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질병에 걸렸을 때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부담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가입이 재정관리나 자기보호에 들어가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치아건강도 건강보험의 지원으로 매년 소액 자기부담으로 스케일링이 가능한데 그러한 서비스를 이용해봤는지에 대한 점검 문항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

에 따라, ‘자기의 보험가입 여부를 잘 알고 있는지’, ‘보험가입이 안 된 경우 보험을 들어야 할 필요를 느끼고 있는지’,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받는 방법을 알고 있는지’ 등의 구체적인 질문이 추가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제가 사례관리하는 친구들 중에 주 4회 운동을 하는 친구는 거의 없어요..(웃음)” (F2-A), 이거 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서 내 몸이 그 정도 몸 상태면 된다는건가? 아니면 실제 운동을 해야 한다는 건가(F1-C), 주 4회라는 말은 부담스러운거 같아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느냐 이렇게만 물어봐도 (F1-A)

” 저희 퇴소한 아이가 녹내장 판정을 받아서 시력이 점점 더 안 좋아질 거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컴퓨터에 있을 때 실비보험 가입을 시켰어요 나중에 큰 돈이 필요해질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건강관리에 들어가야 하는지 경제관리에 들어가야 하는지 고민이 되기는 하는데 (F1-E)

“아이들이 음주하고 자고.. 양치를 기본적으로 잘 안해서 치아관리가 굉장히 손상된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스케일링을 해본 적이 있다’, ‘무료로 일년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나오는 스케일링을 하고 있다’ 그러한 것도 건강관리 문항에 객관적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F2-A)

② 심리정서 안정

청소년들이 서비스 종결시 경제적 부담이나 노동의 어려움보다 혼자 된다는 두려움, 외로움에 대한 염려가 상당히 크고 치료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에서 심리정서 안정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에 심리적 어려움이 있을 때 전문가나 병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점검 문항이 제안되었다.

특별히, 포교목적으로 접근하는 이단 종교에 연루되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겪는 사례도 소개되었는데, 종교적인 부분이라 이 영역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하지만 심리적 갈등을 겪는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종결할 때,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저희는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노동에 대한 부분인줄 알았는데.. 다시 자기가 또 다시 혼자된다는 그런 것을 아이들이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 어려운 심리적 문제를 선생님이나 병원이나 찾아갈 준비가 되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F2-A)

“저희도 심리적 안정...심리상담이나 치료나 정신과 진료가 필요한지 아닌지, 이러한 내용이 종결이 되었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일 마지막 종결단계에서는 심리적 안정을 제일 줘...저희는 높게 보는 것 같아요” (F2-A)

“요즘에 신천지나...집 안에 갈등에 따라서 입소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저희같은 경우는? 종교적 갈등? 그러니까 와서 안에 포교를 하는 바람에 난리가 난적이 있는데...(중략) 저희도 컴퓨터로 여호와 증인들이 와요...그 아이가 계속 그분들 하고 정신적 어떠한 교감을 느끼고 있기는 한데...(중략) 신체, 정신 스트레스 안에 정신 안에 종교적 이러한 것도 넣으면 어떨까? 그런데 이것이 현실이거든요 저희 컴퓨터에서 직접적으로 그런 경험을 했고, 아이도 그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결국은 이제 그 아이가 컴퓨터에서 나왔거든요?” (F2-D)

“저희도 망상을 드러내는 친구도 있어서...외상 후 스트레스가 이어져서 지금 망상까지...지금...오는 친구가 있는데, 이게 실제로, 정신과 검사를 받고 하면, PTSD 이렇게만 나와서, 정신과 진료나 입원치료까지 안 되고, 사례관리도 또 해당되지 않는다...애는 집에 있으면, 자꾸 망상을 보고, 벽과 이야기 하고, 친구가 되고..이러니까...(약물치료는?)하고 있죠..하고 있는데...예...본인이 그것도 인정하고 수용할 때가 있는 반면, 업, 다운이 있다보니까, 본인 반발심이 있거나, 자기가 적응하기 힘든 상태가 되면,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F2-B)

③ 성보호

최근 데이트폭력, 성폭력, 성추행 사건이 늘고 있으며, 지원 대상 청소년 중에도 몸캠피싱을 당해 고통을 받는 사례나 용돈벌이 목적으로 성매매 직전까지 간 사례가 소개되었는데, 이러한 성범죄에 대해 알고 있는지, 그 대처방법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항목이 제시되었다. 또한, 기존 척도에 ‘임신에 대한 기본 지식을 알고 있다’ 는 문항 대신 ‘데이팅 앱을 알고 있다’, ‘소개팅 어플을 통해 사람을 만난적이 있다’ 와 같이 구체적인 인지나 행위 여부를 묻는 질문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특히, 요즘 동성애자나 성소수자(LGBT 청소년) 등의 다양한 성적 지향을 보이는 청소년이 자립지원기관에 종종 입소하고 있어, 성추행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때문에 이러한 성문제 예방을 위해 입소시에 ‘성적 지향에 관한 성교육 경험이 있는지’ 를 점검할 수 있도록 척도에 반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저는 최근에 ‘데이트 폭력이나 성폭력, 성추행에 대해 대처방법을 알고 있다’ 라는 문항도 같이 사용해본 적이 있는데...오히려 ‘임신에 대한 기본 지식을 알고 있다’ 라는 것

보다, ‘데이팅 앱을 사용한다’ 던가...트렌드라고 하면, 데이팅 앱들을 알고 있다... 뭐... 만남이나 이러한 것을... ‘소개팅 어플을 통해 사람을 만난적이 있다’ 거나” (F2-C)

“몸캠 피싱을 당해서 그... 자기 얼굴이 나온 그런 악랄한 영상들이 다른 친구들에 보내진 경우도 있었고, 뭐 이제... 용돈을 벌 목적으로 성매매 직전까지 간 친구도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어서... 그런 범죄 관련해서 인지하는지...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알고 있는지... 필요한 것 같습니다.” (F2-B)

“LGBT 친구들(레즈비언, 게이), 성적 지향이 다양한 친구들(성소수자, 동성애자), 성소수자 친구들이 많아서” (F2-B), “그런 성향인 아이들은 피해 사고를 내요. 자다가 남자가 남자 엉덩이 만지고... 그러니까 주먹날라고, 막 난리가 나죠. 그것을 못 참더라고요. 신체적으로 막 못 참더라고요.” (F2-E)

“성교육의 정도라든가, 성적 지향에 대한 것이니까... 예를 들어, ‘성적 지향에 대한 성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 던가, 이러한 것들이 체크가 되면, 이 척도 검사를 하면서 이 친구에 대한 내용이 한 번 더 체크가 되지 않을까?” (F2-B)

바. 교육관리

기존 척도의 ‘학업관리’ 영역은 웬지 대학이나 학교공부 위주로 연상되는 면이 있어 자립이라는 주제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었다. 특히, 효과적인 암기방법, 읽기방법은 학교공부에 가까운 표현들이므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단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청소년에게는 적합할 수 있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으며, 보호종료아동에게는 대학진학에 대한 학업의지와 직업학교에서의 학습욕구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학업관리 보다는 ‘교육관리’, ‘역량개발’, ‘평생교육’ 등의 다른 표현으로 수정하고, ‘학업을 지속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다’ 던가, ‘나한테 필요한 자격시험과 시험준비방법, 시험요령에 알고 있다’ 는 문항으로 대체하는 것이 제안되었다. 교육관리 영역은 ‘검정고시’, ‘대학진학’, ‘자격증 취득’ 의 3가지 요소로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저희들도 이구동성으로 학업 빼자고 계속...(F1-A), 이 부분은 조금 연관이 떨어지는 편이에요. 이거는 빼셔도 될거 같아요” (F1-E)

“학교를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준비를 하는 애들이 있다던지 그런 애들한테는 이 문항이 적합하지 않을까” (F1-D)

“암기방법, 읽기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다...부록에 있는 척도(기존 척도)를 보면 이런 문항들이 과연 효과적인가 하는 의문이 들긴 하거든요. 암기, 읽기, 시험요령 이런거 물어보는게 조금 그랬어요” (F1-A), 실제로 ‘학업을 지속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다’ 단가, ‘나한테 필요한 시험과 시험준비방법, 시험요령에 알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진로직업역량에 필요한 준비량 연관되어서 질문이 묶이면...되지 않을까? ” (F2-B)

“교육관리(F1-E), 역량개발(F1-D)...자격증도 교육이고...내 미래를 위해서 자격증도 필요한 일이고, 대학도 필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검정고시도 필요한 일이고, 그렇게 접근이 됐으면 좋겠는데...학업하니까 학교를 가야할 것 같고” (F1-B)

“크게 3가지로 그냥...대학, 검정고시, 자격증 이렇게 나가도 정말 이게 자립에 필요한 요건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학업이 아니라, 교육관리정도 평생교육? 그래야 자립에 더 적합하다고 느껴져요” (F1-A)

“본인이 대학을 마칠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그런 부분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학을 끝까지 마칠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직업학교라든지 관련해서 무언가를 배울려고 하는 학습 욕구가 있는지...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중요할 것 같습니다” (F2-B)

사. 자원 활용

자립생활을 한다고 해서 모든 걸 혼자서 해결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갑작스런 어려움이 닥쳤거나 혹은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의논할 상대가 필요하다. 그게 공적 영역의 쉼터 선생님일수도 있고, 주민센터나 복지관의 사회복지사일수도 있고, 사적으로 알고 있는 친구나 선배, 지인일수도 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문항이 제안되었다.

“꼭 필수로 넣어야겠다고 생각한게 나는 위험에 처했을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연락처도 알고 있다. 이거를 사회망 관계 파트를 설문지 형태로 넣어둔거거든요” (F1-E)

“문제가 생기면, 혼자 독단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누군가 물어볼 대상 그게 뭐 컴퓨터 선생님이나 주민센터의 사회복지사나 종합복지관에 계시는 선생님이나 누구나 이렇게 근거를 만드는 애는 문제가 있어도 가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일을 더 키우는 현상이 노골적으로 나타납니다. (F1-A)

” 뭔가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아이가 지역자원을 잘 연계해서 살면은 그것도 자립이 가능한거 같아요 그래서 주민센터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얻어서 내 생활을 학교를 다니면서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아이들은 자립을 또 하거든요 (F1-D)

“힘들 때 의지가 되는... 받고 주고 할 수 있는 지인들이 있는지 여부와, 소통과정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존중하고, 공감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항들이 조금 있으면 좋지 않을까... 자기한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인들” (F2-C)

아. 일상생활관리

혼자서 일상생활을 유지하려면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해야 한다. 스스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용모를 단정하게 가꾸고, 집안을 청소하거나 정리하며 안전을 지키는 일들이다. 기존 척도에서는 주거와 일상생활관리 영역이 합쳐져 있지만, 각각의 비중이 커서 척도개정시 별도 분리하도록 제안되었다.

① 음식관리

음식을 직접 조리해서 먹을 수도 있지만, 최근의 식문화 트렌드가 배달음식이나 밀키트(meal kit) 조리음식을 사먹는 경우가 많은데, 생계활동으로 바쁘게다가 조리실력이 서툰 청소년들이 혼자 식사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많이 선호한다. 따라서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으로 ‘식재료를 준비하고, 조리할 수 있는지’ 만을 묻는 문항을 수정하여 어떤 방법이든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며 식생활을 해결할 수 있는지 점검하는 문항이 제안되었다.

“혼자 자립하면 음식 관련해서도... 쉽지 않더라고요 뭐... 골고루 영양소 어떻게 어떻게 하더라도, 식단 계획이라든지... 계속 밖에서 사먹으라고 할수도 없고, 어떻게 음식관리? 유통기한 관리? 이것이 쉽지 않아서” (F2-E)

“최근에 이것이 아이들의 트렌드인지 모르겠으나, 저희는 아이들이 다 도시락을 시켜서 사먹더라고요... 요즘 배달의 민족을 다 해서, 본인이 먹을 때 배달 시켜서 다 먹고.. 거기서

실제로 쌀 사다놓고, 장봐서 음식 하나 하는 것도 정말 특별한 날, 누구 대접하기 위해서가 아니면, 잘 해먹지 않고.. 일상생활에서는 다 배달시켜서 먹더라고요” (F2-C)

“(배달음식은 괜찮을까요?) 그것도 말하기가 조금 애매한 것이...그렇다고 그것이 옳지 않다고 본다면, 본인이 사실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게끔 음식을 매번 식탁을 차려서 먹기는 되게 힘든데, 도시락이랑 이러한 것을 시켰을 때, 대부분 비슷하게 오고, 여러 영양소들이 나오게 해서 오잖아요? 그것이 더 나은 것 같기도하고...(웃음)...사실 그러한 것이 아직은 사실 고민이기는 합니다” (F2-B)

“밀키트(Meal kit)같은 것들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배달을 시켜먹지 않으면, 밀키트를 구입해서, 그것을 조리해서 먹고, 버리는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밀키트는 간략한 조리법도 있고” (F2-A)

“저희도 이제 혼자서 해먹는 친구가 있는데, 반찬은 어떻게 해서든 반찬가게에서 사오더라고요. 저는 어차피 반찬도 다 사와서 먹는구나” (F2-E)

② 청소세탁

혼자 사는 집일지라도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청소와 정리정돈, 세탁물 관리가 필요한데, 청소년들이 이러한 일들에 익숙하지 않거나, 근로활동 후 피곤함 때문에 제대로 청소나 정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점점 질문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기본적으로 애들이 청소 방법을 잘 몰라요. 정리정돈이라든지” (F1-D)

“아이들이 근로하고 오면 완전히 녹초가 되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제가 ‘해야 한다’ 이것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가면은 엄청 쌓여 있어요. 아이들이 일회용 종이컵, 일회용으로 쓰게 되고..이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F2-E)

③ 안전관리

가전제품이나 가스 사용시 안전수칙을 잘 몰라 전자렌즈가 터지거나 콘센트 관리 소홀로 화재가 발생하는 사례가 소개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안전관리 점점 문항이 제안되었다.

“전자렌지에 돌려도 되는 그릇이고, 돌리면 안 되는 그릇이고, 이러한 기본적인 상식이 없

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화재가 좀 나면... 전자렌지가 터지기도 하고” (F2-A)

“저희도 이제 아이 집에서 불이나가지고, 아이가 콘센트 똑바로 관리를 안 해서 자기 돈 물어내고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가스같은 것도 아이들이 귀찮으니까, 대충 해먹고... 해버려가지고” (F2-E)

자. 사회적기술

① 소통기술

의사소통기술은 성장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몸에 익혀지는 특성이 있지만, 돌봄이 취약한 성장과정에서 자란 청소년의 원만한 소통 경험이 부족해 몸으로 체득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긍정적인 소통 모델링을 경험하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적절히 표현하는 기술을 익히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점점 문항이 제안되었다.

“소통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공감, 존중할 수 있는가?” (F2-C)

② 관계형성

쉐어 하우스의 동거인이나 직장 동료들과 생활할 때 소통이 원만하지 않아 편안한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원만한 대인관계 유지를 위한 소통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 여부에 대한 점점 문항이 제안되었다.

“같이 살고 있는 동거인들이 있는 경우가 조금 있는데, 그랬을 때, 그 안에서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게 되고, 다시 주거지를 계속 또 바꾸게 되는 부분들이 나와서” (F2-B)

“사회성이 좋지 않으니까...누군가 조금 잘 해주면 혹했다가, 조금 서운하게 하면, ‘왜 이래?’ 이렇게 핸드폰 번호 바꾸어 버리고, 차단해버리고, 또 다시 관계 맺고...그러니까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한정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계속 고립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교회든 절이든 어디든 가라...성당이든...사이비만 가지말고...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F2-A)

③ 갈등해결방법

기존 척도에서 ‘갈등해결 방법을 알고 있다’ 는 문항은 단순히 방법을 알고 있는 것만

으로 갈등상황에서 적절히 대처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대처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수정이 필요하다.

“사람들과 갈등 방법을 알고 있다 라고 하면, 다 알고 있다고는 체크를 하는데, 사실상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갈등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고, 실제로는 그렇게 나타나지는...않는다 말이죠? 그래서...” (F2-C)

“우리 아이들이 시설 선생님들한테만 평평거리지, 보통 밖에 나가서는 아무말도 못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F2-B), “정반대도 문제죠.. 다 내탓이고.. 다 내 탓으로 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F2-D)

④ 시간관리

기존 척도의 생산적인 시간과 소비적인 시간의 개념에 대해 청소년들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추가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 문항이 너무 어려워보여요 나는 생산적인 시간과 소비적인 시간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 어디까지가 생산이고 어디까지가 소비지 좀 애매할 수 있어서 쉽게...” (F1-A)

⑤ 용모/위생관리

청소년이 외출하거나 사람을 만나러 나갈 경우,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단정한 복장과 청결한 위생이 필요하지만, 제대로 교육을 받지 않아 용모/위생관리의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관리방법을 아예 모르는 경우가 있다. 반면에 외모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외모지상주의에 빠질 우려가 있으므로, 기본 예절과 긍정적인 이미지 효과를 위한 용모/위생관리 점검 문항이 제안되었다.

“아이들이 밖에 어디 갈 때,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복장이라든지...이러한 것이 필요 하거든요 다 슬리퍼 신고 다니고 그런 경우가 많고 그래서, 그런 교육을 받아본적이 없는 것이예요 어디서 불렀을 때, 머리라도 감고.. (중략) 에티켓 차원에서의 용모관리...그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그런데 뭐 외모 가꾸는 것 좋아하는 아이들은 이야기 안 해도 너무 잘 하고, 그 중에 안 되는 아이들은 필요하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F2-E)

“그게 좀 약간 외모지상주의...개인위생 관리를 할줄 안다. 이게 차라리 낫지 않나요 왜냐면 애들이 잘 안 씻고 그래요” (F1-E), “청결문제하고 연결이 되기도 하는데, 개인위생 문

제하고 용모를 어떻게 연결을 시킬 수 있을까요?” (F1-A)

차. 척도의 구조

① 문항 수

직원들 입장에서는 문항이 다소 많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아이들 입장에서는 실제로 자립 준비 여부를 체크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으려면 질문문항이 늘어도 괜찮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타당화된 척도의 문항은 최소화하면서도, 기초문항 리스트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만들어 부록에 수록하고, 현장에서 사례관리시 유용하게 활용하고, 타당화된 척도는 지자체나 국가 차원에서 자립지원 효과성을 검증할 때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전체문항이 54문항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많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 애들만 그런가요? 이런 거 하는걸 힘들어하지 않아서 문항이 좀 더 있어도... 왜냐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더 알고 싶은게 저희들 생각이니까. ~ 너무 적으면 이걸 두세개 물어봐서 어떻게 알지? 이런 퀘스천이 현장에서 좀 있어서” (F2-C)

② 검사 주기

검사주기는 대부분 6개월에 한번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검사를 통해 자립준비 수준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축소되었다면 왜 그런지 점검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입소할 때 하고, 일년 초, 6개월 단위로 연장심의를 하고 있는데” (F2-C)

“6개월 단위로 하고 있고요 대신에 월 마다 처음에 아이와 사례계약을 맺을 때, 주요목표가 있는데, 그것을 한 달에 한 번씩 담당하는 요원이 리포트를 쓰게 되어져 있어요” (F2-A)

③ 활용 절차

자립지원관 입소 판정시 사용되는 ‘자립사정도구’ 를 사용한 후에 ‘자립준비도 척도’ 를 사용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통해 ‘자립계획’ 을 작성하는 절차로 활용이 가능하다.

“사정도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입소를 할 때, 나온 대로 정리해서 하되, 이것이 전문가 의견이 20점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그것은 빼고, 이 사정도구에서 나온 점수로 하고...(그럼 나온 결과를 기술도 해놓고 하나요?) 예, 그러한 것이 쌓여서...(척도는 그럼?) 척도는 이거

한 다음으로 사용하고, 이거 나온 다음에는 이것으로 작성하고, 자립계획이 붙습니다.” (F2-B)

2. 청소년 개별면접 결과

청소년 면접지는 사전에 연구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연구참여자 동의서를 작성하고, 인구사회적 현황을 파악하도록 구성하였다. 연구질문은 현재 자신의 자립준비상태와 자립준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심리적, 물리적, 환경적 요인들에 대해 진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마지막 부분에는 인터뷰 소감과 추가적인 인터뷰가 필요할 경우 동의 여부를 확인하였다.

<표 15> 자립준비 영역별 청소년 주요의견

구분/영역	하위요소	주요내용
자립준비에 관한 생각	자립의 의미	직업, 수입, 주거를 떠올림, 균형 잡힌 생활패턴이 중요함
	자립을 위한 목표	안정된 직장, 주거마련, 취미생활
	자립을 위한 계획	자기계발 노력(예: 만화가, 용접기술자, 운전기술직)
자립의지	-	자립목표 성취 노력
직업역량	직업조사	인터넷 검색, 지인에게 질문(직업현장 방문, 직업인 만남은 적음)
	직업선택	잘 할 수 있고, 꾸준히 할 수 있고, 자기성향에 맞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
	직업가치관	직업에 대한 책임감, 자아성장을 위해 중요함 (의미 이해가 어렵다)
	구직기술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기술, 탈락경험도 중요함
	직장생활 적응	거절 의사표현, 갈등 시 대화방법(들어주고, 설득하고, 사과함)
주거관리	-	앱(다방, 직방, 오늘의집) 통해 알아봄, 집 점검(수돗물, 벌레 등 확인) 보증금 목돈(300~400만원), 월세마련(3달치), 관리비 총당
안전관리	-	보일러, 가스, 전기, 수도, 범죄예방 CCTV, 잠금장치, 비상약품, 호신술(여성)
경제관리	소비패턴	충동구매, 과다지출(불필요한 생필품, 군것질 등), 소득한도 내 지출, 할인상품 구매, 가게부 작성
	저축, 투자, 보험	저축이 중요하지만 생활비 부족 주식투자 관심 있지만 조심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에 대비한 보험이 필요하지만 돈이 없어

구분/영역	하위요소	주요내용
		후순위
	채무, 대출	휴대폰 소액결제나 통신비 연체, 정부지원 대출정보 확인
	신용관리	기한 내 빌린 돈을 못 갚음, 사채 사용
	카드사용	과소비 원인, 체크카드 사용 필요, 카드사용에 대한 교육 필요
일상생활 관리	음식관리	배달음식, 인스턴트 식품, 편의점 음식 선호 집밥이 간단하고 저렴함
	음식물관리	음식물 뒤처리, 식재료 유통기한 조심
	주방관리	물기제거, 음식물 찌꺼기로 세균과 악취 조심, 송풍기 후드, 하수구 청결
	청소, 세탁	집안청소, 정리정돈, 세탁 및 보관
사회성	의사소통	눈을 보면서 얘기하거나 듣는 거 중요함
	용모관리	청결, 상황에 맞는 깔끔한 옷차림
	예절	사회생활에 진짜 중요함, 존댓말 사용, 인사 잘 하기, 공공장소 예절
	시간관리	시간계획 짜서 실천, 생산적/소비적 시간 뜻이 너무 어려움
자원관리	-	긴급할 때 도움, 혼자 안 될 때 꼭 필요함
자기보호	신체건강	스트레스 풀 수 있는 규칙적인 운동, 영양식품(고려은단 등)
	정신건강	우울증 경험, 친구들의 좋은 말, 긍정적인 생각, 의료지원 필요
	성보호	원치 않는 임신, 불가피한 입양, 피임방법, 성폭력 피해 대처
학업관리	-	자격증 취득, 자기계발에 도움, 국민내일배움카드 활용 직업훈련 필요

가. 청소년의 자립준비에 관한 생각

① 자립의 의미

청소년은 막연히 자립을 떠올릴 때 어떤 생각을 할까? 공통적으로 직업, 수입, 주거를 생각하는 면이 있다. 즉 일을 시작하고 일정한 수입을 통해 주거비를 마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균형잡힌 생활패턴이 필요하다고 본다.

“일을 시작하고 돈을 버는거? (중략) 직장도 있어야 되겠죠 잘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구요” (F6)

“생활패턴이 잡혀져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는 정기적인 약간의 수입이나 그리

고 약간 저축을 할 수 있는 수준이나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요 (중략) 정기적인 수입이 있으면 월세나 집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거고, 그리고 적응을 할 수 있고, 뭐 하고있으면 보증금이나 이런걸 내서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거니까” (C3)

② 자립을 위한 목표

청소년들은 자립을 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안정된 직장을 구해 돈을 모으면 주거장소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공통적인 생각이다. 그 이후 자신이 원하는 분야의 진로를 제대로 찾아 나서거나 취미생활을 해보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는 현재의 제한적인 주거 서비스가 중단되기 전에 다른 주거지를 찾아야 하는 촉박한 사정이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구체적인 자립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자립계획이 서 있지 않은 청소년도 있지만, 기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생계와 주거의 안정을 찾은 후에야 비로서 자신이 원하는 일과 취미를 돌아볼 기회를 가져보겠다는 생각에서 이들 청소년의 자립의 촉박함과 절박함이 느껴지는 듯하다.

“일단은 용돈계획? (가계부 같은거?) 네 그런 식으로 적어야 되고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직장을 구해야 되잖아요. 안정적인 직장. 자기가 하고싶은 것도 있겠지만 안정적인게 중요한거잖아요. 안정적인걸 먼저 찾고 거길 들어가서 좀 자리 잡았을 때 자기 취미생활, 아니면 자기가 하고싶었던거, 그 진로방향을 조금씩 향하면서 둘다 해보고, 그 뒤에 좀 됐다 싶을 때 자기가 원하는 데 들어가서 하는거?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G7)

“저의 목표는 돈을 어느 정도 모아서 다른 집을 구하는 거구요. 그 다음 목표는 이제 저만의 사업을 하고 싶어요 (중략) 족구랑 최강부라는 타이틀이 있어요. 일단은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제 인천시 우승을 해야돼요. 전국대회든 뭐든, 우승 하는게 제 하나의 목표인 것 같아요.” (B2)

“(자립의 목표는?) 기관같은데 도움없이 저 혼자 벌어서 먹고 살고 그냥 월세든 뭐 그냥 집이든 제가 제 앞날 알아서 하는거” (A1)

③ 자립을 위한 계획

아직은 자립준비 상태가 미흡하지만, 자립을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들을 갖고있는 경우가 많았다. 학원에 다니거나 능력을 인정받는 대회 입상을 목표로 자기계발을 하여 만화가, 용접기술자, 운전기술직 등을 꿈꾸고 있었다.

“현재로서는 뭐 0부터 10이라고 하면은 한 2,3정도 된거 같아요 아직 막 완벽하진 않고 뭐 그렇다고 가까워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C3)

“저는 제가 제 돈으로 학원비를 내고 싶거든요 학원을 세 개를 뽑아서 처음에는 부모님한테 얻어서 하다가 주말이나 월화수목금 썩 다 풀로 학원을 다니지 않을테니까 오후나 오전에 일을 잡아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G7)

“일단 저는 작가(만화가)가 꿈이라서 (침묵) 여기에 있는 동안은 그 준비하고 더 잘돼서 나가면 집을 구하는 방식으로 일단은...(중략) 공모전에 내거나 도전만화 올리거나 플랫폼별로 공모전을 열거든요 거기서 되거나 SNS에서 유명해져서 좀 떠야 돼요” (A1)

“(용접기술을) 제대로 배우려면 돈을 쥐서라도 배우고 싶고...그럼 만약에 연결해주어서 좀 공짜인데 잘 가르쳐주시면 좋죠” (E5)

“옛날에는 경찰이나 소방관 같은 것이 꿈이었는데, 제가 성적이라 그런 부분이 조금 자신감이 없으니까...그냥 지금...(정적)...커서 뭐해야 하지...솔직히 말하면 모르겠습니다. (중략) 지금 해보고 싶은 것은 운전면허증...해보고 싶고, 운전을 좀 하면 할 수 있는 일이 좀 많다고 들었습니다. 택시를 할 수도 있고, 트럭 운전...뭐...과일장사도 할 수 있고...운전을 하면 버스도 있고...그런 것이라 지금 배우고 싶은 것은 운전이라...어...용접도 배우고 싶습니다” (E5)

나. 자립의지

청소년들은 자립을 하는데 있어 자립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이지만, 각자 생각하는 의미에 차이가 있었다. 개인별 자립목표를 성취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자세, 혹은 자립을 위해 돈을 모으고, 집을 알아보고, 가전제품도 준비하는 노력이라고 보는 청소년도 있었다. 구체적으로 기존 문항에서 수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은 없었다.

“갖고 있는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거잖아요? 이거 전에 전 단계에 목표를 세우는거요” (G7)

“그냥 홀로 일어서야 되는거니까 집에서 나가야겠다고 생각하면 그런 준비를 해야겠죠 돈을 모아야겠고, 어디서 지낼지도 알아봐야 되고, 나가서 뭐 필요한 가구나 전자제품도 있

어야 되고, 자기 의지는 각자마다 다를거 같아서 뭐 확답은 줘..”(A1)

“(자립의지는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별 다섯 개 중 몇 개?) 별 다섯 개 정도요”(B2)

다. 직업역량

직업을 선택할 때 중요한 것은? 직업을 선택할 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라고 해서 선택하기보다는 안전한 일인지, 오래할 수 있는지 고려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① 직업조사

직업에 대한 조사는 커리어넷 같은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관심 갖고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지인에게 전화로 묻는 정도 외에 자신이 직접 직업현장을 가보거나 직업인을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는 경우는 흔치 않았다. 하지만, 여러 사람을 만나 얘기를 들어보는 것이 인터넷 정보보다는 좀 더 실제적으로 알아볼 수 있기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커리어넷이나 여러 가지 있잖아요 (어떤 장점이 있지?) 현장을 가보는건 사람과 약속을 잡아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당장 내가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하루 이틀이고 일주일이건 한 달이 걸리던 나중에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인터넷은 그냥 치면 바로 나오잖아요 유튜브도 있고”(F6)

“9번(직업인 만남), 10번(직업현장 방문이나 직업체험)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8번(전문가와 상담)까지는 있는데, 보통은 대개 많이 인터넷 검색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관련 직종에 있는 지인에게 통화해서 물어보거나 그게 제일 많죠”(C3)

“저는 가서 직접 여러 사람을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중략) 직접 만나보면 더 그 사람의 뭘 얘기하는 거고 마음도 알아볼 수 있는 거고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도 알아볼 수 있는 거고.. 딴 사람이 봤을 때는 난 이것도 좋았어.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만나봐야 내가 갈 길이 한군데 생기고 두군데 생기고 세군데가 생겨서 여기서 시작하면 저리로 갈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시작하면 저기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인터넷만 보고하면 딱 길이 정해져있어서.. 그길로 갔다가 실패해버리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잖아요”(G7)

② 직업선택

직업을 선택할 때 잘 할 수 있는 직업, 꾸준히 할 수 있는 직업, 자신의 성향에 맞는 직업,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 잘 아는 직업인지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특히 자신이 좋아한다고 해서 선택하기보다는 정말 잘 할 수 있는지를 신중히 생각해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직업선택의 기준을 돈에 두고 단가가 높거나 쉬운 일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자신의 적성에 잘 맞고 재밌는 일을 선택하지 않으면 오래가지 못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직업을 선택 할 때 자기 자신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잘 하는 일과 좋아하는 일을 구분할 수 있다. (중략) 근데 이게 확실히 다르거든요.. 좋아하지만 잘 못하는 직업이 있고, 잘하지만 좋아하지 않는 직업 있잖아요..” (D4)

“너무 자기가 좋아하는 마음으로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중략) 노력을 해도 자기가 무조건 좋아한다고 해서 그게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중략) 안전한지, 자기가 오래 머물 수 있는지... 자기가 무조건 잘 할 수 있는 직업이 중요한 거 같아요” (G7)

“네 저는 일단은 돈이 포인트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포인트이긴 한데 일단은 머니부터. (중략)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하구요 돈이 솔직히 최대 삼백오십은 벌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F6)

“알바 같은 경우는 저처럼 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급하다고 하니까 뭐 아니면 단가만 보고 하는 친구들도 많고 아니면 진짜 쉬운 거만 하는 애들도 많거든요 흔히 말하는 이제 꿀알바라는 것들을 막 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가끔씩 단기로 올라오는 게 있어요 막 단기로 어디 뭐 옛날 같은 코로나 전에는 이제 행사 많이 했잖아요 그런거 티켓팅 직원이나 안내 직원이나 이런 거를 단기로 구해갖고 그런 거만 하는 애들도 있고 (중략) 쉬운 거나 돈의 가치만 보게 되면 일단 오래 못해요” (C3)

“(꾸준히 하게 되면 뭐가 좋은거죠?)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기 자신의 자존감에도 되게 좋은거 같고요 그 자존감 속에서 이제 한가지를 오래 한다는게 경력이라는게 생기는 거잖아요 자기가 어디가서 아 나 여기서 뭐 2,3년 했다 하면 오오 이러는데, 나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거이거 뭐 이렇게 했다 그러면 솔직히 저는 환영받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C3)

“(추가해야할 질문이 있다면?) 무슨 사이트가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사이트(워크

넷)에 뭐 직업 성향검사 같은 그런게 있고 그랬거든요 저는 그 성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C3)

“(직업선택은 어떻게?) 친구의 권유나...음...부모님이 이거했으면 좋겠다 하면...이것에 적성
이 맞다고 하면 저는 도전해 볼 것 같고, 제가 잘하는 것에 조금...그렇게...선택할 것 같습
니다. (중략) 뭐...돈도 중요하긴 하지만, 저는 직업이 재미없는데 맨날 일 나가기 싫다...이
러면 일도 재미가 있으면...돈도 좀 버는 일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E5)

③ 직업가치관

직업가치관의 개념에 대해 다소 어려워하는 반응이었으나 그 의미에 대해 설명을 듣고
나서는 일을 하는데 있어 어떤 가치관을 갖느냐에 따라 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음
을 표현했다. 예컨대 어떤 사명감 없이 단지 돈을 벌기 위해 일한다는 생각을 가진 경우 직
업에 대한 책임감이 없겠지만, 직업은 생계수단이며 자아실현의 기회로 여기는 경우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일하기 때문에 성장하는 경험을 하게된다는 것이다.

“취직을 했을 때 사명감? 이렇게 되게 중요시 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취직을 해도
그냥 몇 개월만 하다 가야지, 몇 개월 하다 짤려서 요즘 흔히 받는 실여급여나 받아야지,
뭐 이런 사람들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게 너무 보기 안 좋더라고요” (C3)

“알바를 하면서 하는 거는 성장이라고 볼 수 있구요 직업은 하나의 자기만의 뭐랄까? 하
나의 생계수단 이라고 생각해요 이것도 별로 따지자면 (별 5개 중) 별 4개” (B2)

“그냥 내가 직업을 가졌을 때 그냥 직업만 갖고있는거 보다는 내가 어떤식으로 이 일을
해야겠다 약간 책임감...(중략) 뭐 직업까지는 구했는데 더 나아가서 자아실현 같은
거” (A1)

④ 구직기술

취직을 위해 이력서 작성이나 자기소개서, 면접방법에 대해 배우는 것은 필요한 것이며,
실제 배우고 구직활동을 했을 때 도움이 되었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실제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많이 탈락해 본 경험자는 스스로 연습해보고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단순 업무에 지원할 때는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정도를 잘 써도 괜찮을 것 같다는 반응도 있
었다.

“제일 도움됐던 거는 저희가 예전에 면접 방법에 대한 거를 그 프로그램을 한 적 있어요 그 면접에 대한 자세나 말하는 목소리 이런 것들 되게 선생님이 찾아주셔서 상세히 알려주셨던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한번 면접볼 기회가 있어서 사용해 보기도 하고, 그러한 부분에서 되게 좋았던 거 같아요” (C3)

“일단 이력서 넣는 것도 좋은데 면접 가서 떨어지는 경우도 많으니까...(중략) 알바 구할 때 많이 떨어졌었어요...(중략) 그냥 자기가 쓴거 읽어보고, 3분 스피치나 자기가 떨지 않고 생각했던 거 잘 말할 수 있는 게 중요해요” (A1)

“(이력서나 면접방법은?) 음...회사가 그런 것을 보고...봐야 뽑아주니까...음...(정적)...원래 회사가 다 그렇게 하니까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E5)

“일단 사회 나왔을 때... 도움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 실제로 했을 때도 그렇고 이제 생기부 이런데 찍히니까 그게 요즘에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자소서만 잘 쓰면 된다, 하는 데도... 옛날 사람들은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따려고 하는 것도 있기도...그리고 또 경험이기도 하고 그래서...” (D4)

⑤ 직장생활 적응

직장상사나 동료와 갈등이 생겼을 때 자기 의견에 대한 자신감이 없고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경우 제대로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는 경험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주로 갈등이 생겼을 때 불편하지 않게, 거리낌 없이 대화하는 방법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사회력? 저는 원래 되게 낯을 많이 가리는 타입이거든요, 근데 컴퓨터에 들어오고 나서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 본 사람들한테도 먼저 말 걸 수 있고, 그런 능력들이 좀 올라가는 것들... 가장 높은 상사나 아니면 동료나 뒷담화하는 게 되게 안 좋더라고요. (중략) 그래서 그 원하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말하고, 하지만 불편하지 않게 이야기하는 방법을 기르는 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D4)

“사람들과 거리낌 없이 대화를 잘 할 수 있다. 가만히 앉아 있는 직업이라고 해도... 어느 이야기를 할 그런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막 내쳐질까봐... 뭐라고 해야 되지? 의견이 안 맞을까봐 이야기 하지 못 하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거든요...그래서 그런 능력을 기르는 것? 그렇게 해서 나는..나의 의견을 잘 전달 할 수 있다.” (D4)

직장사람들과 마찰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법은 먼저 상대의 말을 들어주고, 설득해보다

가 안 되면 먼저 사과하는 모습도 있었으며, 과거의 공격적인 태도를 버리고 요즘은 그냥 조용히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들어야죠 듣고 내 상황을 얘기 해줘요 설득을 시켜요 설득은 안되지만 일단 설득을 시켜요 자기는 자기입장만 주장하니까, 그게 안되면 전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안되잖아요? 그럼 내가 미안...” (F6)

“저는 일단 얘기 먼저 들어보고 얘기를 먼저 듣고 얘기로 풀려고 하는데 공격적이게 나온다 그러면 옛날에는 공격적으로 나오면 저도 공격적으로 나가고 이 강아지가 절 때리면 저도 그 강아지를 때리고 이런 식이었는데 요새는 제가 삼촌한테 배운게 많아가지고 화가 나면 조용해지거든요” (G7)

라. 주거관리

주거처를 마련하는 것은 가장 큰 관심사이다. 아무래도 큰 돈이 들어가고 한번 구하면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하는 모습들이었다. 보통은 주거처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 앱(직방, 다방 등)을 주로 이용하고 있었다. 주거처를 마련할 때는 어느 정도의 보증금 목돈과 월세부담이 필요한지를 알고 있어야 하며, 집을 살펴볼 때는 수도물이 잘 나오는지, 벌레는 없는지 등을 꼼꼼히 알아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집을 구하고 나서는 공과금이나 난방비 등 매월 들어가는 관리비용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식과 능력이 요구될 것이다.

“(집을 구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거 같아요 집 구하는거랑 집 관리하는거... 일단 좋은 집을 구해야 좋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금액이나 여건같은 거 해서 가장 좋은거 선택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정보나 알아봐야될 거 같아요” (A1)

“(주거 정보를 어디 통해 알아보니?) 다방이랑, 직방, 그리고 오늘의 집...(중략) 부동산 잘 봐야 된다고 했어요 잘못하면 사기먹는다고 하던데...” (G7)

“보증금 한 300~400 정도 만들어 놓고, 이제 월세 낼 3달치 낼 돈.. 왜냐면 직장에 있으니까 미리 3달치 될 거 준비해 놓고, 월세가 30에서 40이라고 치면은, 그리고 또 필요한 그릇, 건조대, 옷장, TV, 정수기, 청소기...그런 거 다 산다고 200정도, 그런 물건들 말고 먹는 것들도 사야 되니까 10만원 정도 해서...그래도 700정도는 만들어 봐야지 않나 싶어요” (D4)

“물 잘 나오는지 불 안 깜빡거리는지...저는 벌레를 되게 무서워 하거든요 밤에 벌레들이 있는지... 낮이랑 밤에 둘 다 가봐야 된다 그랬어요 (임대계약을 할 때 신고절차나 주의해야 할 점을 알고 있나요?) 아니요 주거 이전 하는거 아니에요? (중략) 부동산에서도 사기 당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요즘은 스스로 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기도 하고, 원한다면 자기가 언제든 어떤 시간을 들여서든 잘 찾지 않을 까 싶어요” (D4)

“전기세, 이렇게 평평 나가고 난방비 이런 것도 나가고, 갑자기 막 낼 돈이 커지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별 다섯 개죠..무조건 필수예요 이게 없으면 집을 빼아주세요” (B2)

마. 안전관리

시설안전 측면에서는 주거시설 내의 보일러, 가스, 전기나 수도 잠금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범죄피해 예방 차원에서는 언론매체에서 수시로 보도되면서 어느정도 경각심을 갖고 있었지만, 청소년들이 주로 방법이 취약한 곳에 살거나 밤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출입구에 CCTV가 설치되어 있거나 현관문에 안전한 잠금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갑작기 아플 때를 대비해서 비상약품을 구비하고, 여성은 호신술 같은 것을 익혀 범죄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보일러는 외출로 돌려 단속하고 그리고 가스 확인하고, 전기나 물, 창문 잘 잠겼는지...그리고 일단 문 도어락은 요즘에 지문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지문을 싹다 지우고 나가는거” (D4)

“일층에 경비 같은 데 CCTV가 있는데를...문도 그 고리 걸 수 있잖아요 그게 전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문 덜컥 열었다가 그 사람이 잡아 당기면 어떻게요 저 그거 봤어요 요즘에는 창문에 1, 2층 같은 경우에 고리를 달아요 안열리게...그다음에 누가 들어오면 그 시스템으로 해서 들어오면 삐삐 삐삐 울린다고 그런 것도 설치를 하면 좋고...드라마에서 본 건데 남자 신발을 현관에 두는거...(웃음)” (D4)

“저도 모르게 노숙자들이 비밀번호 외워서 집 들어가서 침대 밑에 숨어있는 사건도 있었어요 실제로...그래서 전 그런 홈 CCTV 달 예정이에요” (F6) “여자에면 호신술이나 그런 거 좀 있으면 좋겠어요 나를 지킬 수 있는...좀 실제로 도움이 될만한...(중략) 근데 나가서 막 혼자 지내는거는 저는 일단 문제 없긴한데, 주변에 막 범죄사실 같은게 되게 뉴스같은 거에 나오면 불안한건 사실이거든요” (A1)

“안전에 비상용품...추가하면 좋을 것 같아요” (D4)

바. 경제관리

경제관리는 일상의 소비패턴에서부터 저축과 투자, 보험가입, 채무와 대출, 신용관리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생각해볼 수 있다.

① 소비패턴

소비는 종종 충동구매를 하거나 불필요한 생필품 구입, 군것질 등으로 과다지출을 하는 경우가 많고, 급할 때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야 하는 상황도 있었다. 반면에 소득의 일정한 한도 내에서 쓰거나 급한게 아니면 할인상품을 구매하는 등 절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가계부를 작성하여 수입과 지출 상황을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저는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어서 그런거에 충동적인거 많이 하고, 그리고 또 뭐라고 하지...입이 심심하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군것질을 해야돼요 입이 심심하면 말이라도 해야되구요 그런 것 때문에 돈을 많이 써요...(중략)...무작정 써요 나머지 다 쓰고 돈이 없을 때 어디서든 돈이 들어오더라구요 급할 때는 할아버지 찬스” (F6)

“돈 관리에 가계부를 쓰고 있다 없다. 이게 가계부를 쓰는 것과 안 쓰는 것의 차이가 되게 크다고 느꼈거든요 자기가 얼마를 썼는지, 그리고 얼마가 들어왔는지, 이 격차를 알 수 있고, 확실히 쓰다 보면 내가 어디에 돈을 허투루 쓰는지 알 수 있어요” (D4)

“소비쪽은 자기가 소비패턴 그 돈을 어디에 많이 쓰는지를 알아서 자기가 알아서...좀 나는 옷을 많이 산다 아니면 뭘 많이 모은다거나, 많이 먹으면 달별로 자기가 여기에는 얼마만큼 쓰겠다...좀 구체적으로 자기만의 뭔가 있어야될 거 같아요” (A1)

“할인할 때 가요 당장 급한게 아니니까. 저는 쿠폰 있으면 다 받아요 모으면 6천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고 다른 것도 살 수 있으니까” (G7)

② 저축, 투자, 보험

다수의 청소년들이 저축을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생활비 부족으로 저축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도 있었다. 주변에서 주식투자 하는 친구를 보면서 관심은 있지만, 자신이 직접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도 있어 아직은 열악한 경제사정으로 돈을 모으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아픈 경우에 대비해서 보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다소 후순위로 여기는 경향이 있었다.

“최대한 누구한테 빌려 주지 말고, 월급 비용 중에서 한 70% 거의 50%는 저축해야 하고.” (B2)

“제가 옛날에 그 고아원 시설에서 살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만들어 놓은 디딤씨앗 통장이 있는데 거기에 매달 오만원씩 넣고 있어요” (D4)

“통장을 두 개 이상은 만들어요 무조건... 하나는 일단 저축을 하고, 나머지 하나는...(생활비 같은 거 지출하는 통장?) 네...따로따로...(중략) 나중에 크면 세금 내야될 때 일을 하다보면 세금 또 따로 하고” (G7)

“저축이 사실상 이제 제가 주급을 받거든요? 주마다 받는데 사실상 저축을 하고싶어서 돈을 빼놓긴 하는데, 계속 이제 돈이 계속 써야되다 보니까 저축이 안되더라고요” (C3)

“제 친구는 주식 하거든요 나쁘지 않은 거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주식은 일단 손을 대면 안돼요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는 합법이지만 어떻게 보면 도박이니까...” (F6)

“보험이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아깝긴 한데, 제가...어떤 일을 하는지에 따라서, 넣을지 말지 결정할 것 같아요 만약에 용접같은 것이나, 위험한 일을, 다치는 일을 하면 보험을 넣고, 안 다치면 보험을 안 할 것 같습니다.” (E5)

“실비보험 들으려 했다가 한번 안돼서 그냥 안 했어요... 필요해서 하려 했는데 옛날 병원 기록이 남아있어서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A1)

③ 채무, 대출

휴대폰 소액결제로 손쉽게 음식을 시켜먹거나 높은 휴대폰 요금 등으로 상당한 빚을 지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이렇게 통제 안 되는 상황에서 채무를 지는 것은 좋지 않지만, 꼭 필요한 경우에 정부지원 대출 정보를 알고 있으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도 했다.

“휴대폰 소액결제로 게임도 아니고 이것저것 많이 시켜먹어 가지고 그리고 요금도 비싸다 보니까 그래서 다 한번에 돼서 채무가 됐어요 (중략) 휴대폰 그거를 이제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제가 받은 돈은 150정도 까지 밖에 안되는데 빚이 300까지 늘어난거예요 그래서 그 때 제가 광주청년은행인가 거기에 이제 도움을 받고, 청년을 봐줄 수 있는 햇살론 대출 뭐 이런거를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중략) 이제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는 좀 필요하신 분들 되게 많다보니까 좀 좀 잘 알려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한적은 있어요” (C3)

“대출은 나쁘게 아니라고 생각하고..대출에 대한 지식은..아무것도 모르고 은행가서 무턱대고 대출해달라고 하는데, ‘고객님은 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이 나올 수도 있고, 대출이 안 될 수도 있고..대출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아 나는 얼마까지 되겠다..이 은행가서 대출해야 되겠다..이런 지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E5)

④ 신용관리

신용등급이 나뉘져 있고, 기한내 빌린 돈을 갚지 못 하면 신용이 나빠진다는 정도는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는 못했다. 합법적인 대출기관 외에도 사채와 같은 음성적인 불법대출로 피해를 당하는 일도 경계하는 분위기였다.

“어떤 경우에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지는 몰라요 등급이 나뉘져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D4)

“(신용불량자가 되면 어떤 제제가 있을까?) 은행을 사용을 못해요? 저희 아빠가 그랬었어요 제 명의로 만들고 그랬었어요” (D4)

“빌려 쓰는데 어느 한정기간 안에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 돈을 못주면 그 대가를 따라서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거죠 계속.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대출도 못하고, 대출 금액도 떨어지고, 집 살 때 신용등급을 엄청 따져요” (F6)

“은행 관련된 신용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신용도 있잖아요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못된 놈들 돈 빌려준다는 사채..어른들 하는 사람 은근 많아요 엄청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하면 안되는거 알면서 하게 되는게 사람이랬어요” (G7)

⑤ 카드사용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과소비를 하게 되어 빚을 많이 지게 될 것이라는 염려들이 많았다. 특히 월급날에 카드빚으로 다 나가면 힘들 수 있고, 신용도 나빠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절대 신용카드를 만들지 않고 체크카드를 사용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런 면에서 청소년들에게 카드 사용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신용관리를 위해서 나는 체크카드를 쓸 것이다 뭐 이런 것도 들어가면 좋을 거 같은데.. 일단 그 저희 나이대에는 솔직히 과소비를 많이 하잖아요 그 체제를 못하기 때문에 억제도 못하고 그렇게 때문에 저도 아직 신용카드 안 만들었거든요 일부러 빚은 있지만 신용카드는 절대 안 만들었거든요” (C3)

“이거는 별 다섯 개고요 최대한 빚이 없겠끔 신용카드는 만들면 안된다 생각해요 체크카드 이런걸로(생활해야 돼요)” (B2)

“카드 사용하는거를 좀 알려주면 좋을거 같아요 그 일단 일을 한다고 가정했으면 월급날 되기 전에는 카드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월급을 받고 카드비 거의 다 나가면 힘들 수 있으니까.. 일단 저는 체크카드 우선으로 썼는데..” (A1)

사. 일상생활관리

① 음식준비

삼시세끼 식사를 해결하는 것은 혼자 생활하는 청소년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음식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배달음식이나 인스턴트 식품을 선호하는 쪽과 직접 조리해서 먹는 것을 선호하는 쪽으로 나뉘는 편이었다. 배달음식이나 편의점 식품을 선호하는 청소년들은 편리하고 시간이 절약도 되고, 영양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는 반면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청소년들은 집에서 먹는 것이 오히려 간단하고, 저렴하게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 편의점 음식이 건강에 안 좋은 건 아닌데, 집에서 만들어 먹는 음식보다는 덜 좋을 것이라며 가급적 음식을 만들어 먹어야 한다는 중립적 입장도 있었다.

“배달의민족? 필요해요 가끔은..어 저는 단골집 있어요 저희 가는 단골집 있거든요 거기 가서 맨날 사먹어요.” (F6)

“(요즘 청소년들은?) 무조건 시켜먹죠 나가서 먹어요 요즘은 편의점 예약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먹는 애들도 있어요.” (G7)

레인지만 돌려 먹으면 갖 한 것처럼 먹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시간 날 때 요리 좀

해봤다가 얼려놓고 해동시켜서 먹는 것도 시간절약 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D4)

“매일 매일 밖에서 사먹는 것 보다는 그냥 집에서 그 밥을 해먹는 게 더 저렴하다고 봐요
저는 쌀도 그냥 20kg 하나 사놓으면 한 몇 달은 먹잖아요? (중략) 음식을 할 때에도 밥
보관을 잘 하면은 다시 전자

“밥하고, 계란후라이 하고...(웃음)...그냥 햄 굽고..자기가 국 끓이고,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E5)

“편의점에서 밥 먹지 말고 그리고 배달음식 이런 거 좀 요즘 배달 음식이 좀 비싸단 말이
예요 그것도 좀 어느 정도는 자제 좀 해야 자기가 음식, 요리를 해야할 줄 알고 그런 부
분.. 그래야 나중에 아내한테 요리 해줄수 있고 하니까..” (B2)

“근데 저는 삼각김밥이 몸에 안좋다고는 생각 안하거든요 그 삼각김밥 만드는 회사에서
자기는 진짜 완도 김을 쓴다고 좋은 김이라고 먹어도 된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었어
요 그래도 직접 만들어 먹는 거 보단 덜 좋으니까..사람들이 밥 차려서 먹어라 이렇게 하
는 거 같아요” (D4)

② 음식물 관리

식생활에 있어서 남은 음식물을 보관하고 뒤처리하는 것도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며, 특히
식재료는 유통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유통기한을 넘
겨 잘 못 먹었을 경우 아플 수도 있고, 그러면 혼자 살면서 더욱 서러울 것 같다는 것이다.

“저같은 경우에는 음식 만들고 나서 다 먹긴 하는데...(중략) 그 음식물 남는 거 있잖아요
일단은 그러면 안 되는데 냉동실에다가 잠깐 얼려놓고, 남은 부분은 이제 음식물 처리 하
거든요 냄새 안나겠끔” (B2)

“그게 진짜 중요하죠 요즘엔 그래도 유통기한이 넘어서 먹으면 탈날까봐 그런거지, 살짝
넘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그래도 그 유통기한이 왜 있겠어요 먹으면 아플
수도 있으니까...심지어 혼자 살게 되면 서러울 거잖아요” (D4)

“음식은 되게 유통기한 관리 잘해야돼요 그리고 1인 가정이면 이걸 언제까지 먹고 언제
써야되는지...기간 짧은거는 좀 잘 보이는데에다가 보관하고..” (A1)

③ 주방관리

주방 주변에는 물기와 음식물 찌꺼기 등으로 세균과 악취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식사 후 곧바로 설거지를 하고 주방 위생을 청결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스레인지나 환풍기, 전자레인지, 밥솥, 냉장고, 싱크대 및 하수구 주변을 항상 청결히 해줘야 한다고 했다.

“주방 관리가 되게 많잖아요. 뭐 가스레인지 청소도 원래 한번 씩 해줘야 되는 거고, 약간 뭐 그 환풍기 있으면 환풍기도 원래 청소를 한번 씩 해줘야 되거든요 싱크대에 하수구 그것도 청소해줘야 되고” (C3)

“세균, 소독, 그러니까 제 친구도 자취하는 애가 있는데, 진짜 소독을 겁나게 안해요. 그래서 개가 행주 닦고 물에 행구고 납두고 한단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 버리고 알콜 티슈를 놔뒀어요. 그 뒤로 알콜티슈로 닦아요 (F6)”

“물 빠지는 받침대 있잖아요. 그걸 잘 닦아줘야 돼요. 물 때, 지금도 안지워지고 있어요. 가스레인지랑 가스레인지 주변 그 벽쪽에...여는거 있잖아요. (후드?) 그것도 닦아줘야 되고, 주방이랑 화장실은 무조건 해야돼요. 특히 냉장고” (G7)

“아무튼 청결이 제일 중요하죠. (중략) 먹고 바로 치우는거...그리고 자주 닦아 주는 것, 가스렌지, 후드, 전자렌지, 밥솥, 다 잘 닦아 주고 밥솥은 또 물 나오는 그거 알죠? 그것도 자주 닦아 줘야돼요. 안 그러면 다 썩어가고 쌓이고 쌓이고 쌓여요. 그리고 그릇도 잘 말려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D4)

④ 청소, 세탁

집안 청소나 정리정돈을 습관화해야 하며, 세탁물 종류에 따라 세탁 및 보관하는 방법을 알아야 옷을 오랫동안 입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청소나 세탁은?) 어떻게 하는지는 알아야될거 같아요. 자기가 집을 관리를 해야되잖아요. 그걸 만약 안 하는 타입이면 되게 방치하거나 더럽게 쓸 수도 있잖아요” (A1)

“근데 청소같은것도 음식물 쓰레기나 분리수거나 화장실 청소랑 싱크대 청소 이런거는 알아야될 거 같아요” (A1)

아. 사회성

① 의사소통

원만한 사회생활을 위해서는 타인과 의사소통이 원활해야 한다. 청소년들 중에는 눈을 마주치지 못 하는 등의 부자연스러운 대화습관이 있는 경우가 있어 평소에 소통훈련이 요구된다. 특히 타인의 말을 이해하고 감정상태를 알아차릴 수 있는 정정기술도 필요할 것이다.

“소통할 때는 약간 대화의 방법이잖아요 소통방법 뭐 그거를 다 적기에는 너무 많기 때문에...저는 약간 눈을 보면서 얘기하거나 듣거나 이런 거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C3)

② 용모관리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는 첫 인상이 중요하다. 상황에 맞는 적절한 복장을 갖추 줄 알고, 단정하고 깔끔하게 차려입는 정도는 사회생활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았다. 담배 냄새가 나거나 경조사 같이 격식이 필요한 자리에 운동복 같은 복장을 하고 가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좋은 이미지를 위해 외모만을 가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도 있었으며, 이런 것들은 배우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쉽게 검색해 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외모를 관리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자기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중략)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씻어야 하잖아요 청결해야 하잖아요 (중략) 구명난 옷 그런거 입을 수 있는데...그래도 되도록 깔끔한 옷을 입는게...장소에 따라서 옷도 다 달라지잖아요 그런거 다 지키는거? 그런게 중요한거 같아요..” (D4)

“(외모 관리는?) 좋은 이미지를 위해서 외모를 가꾸는건 아닌 것 같아요 내면?” (G7)

“냄새나 뭐 담배 편 냄새나고, 옷도 찢어져 있고 그러면 사회생활 하기에는 지장이 좀 있지 않나...” (B2)

“그냥 용모나 예절같은 거는 그 격식있는 자리에서 뭐 그냥 운동복이나 뭐 이렇게...여기서는 이렇게 해야된다 뭐 그냥 대중 뭘지만 알려주는 정도만 하면 될거 같아요 약간 장례식이나 결혼식...” (A1)

“(용모관리는?) 그런 것은...배워...그런 것은 남들 시선이다 보니까...막 그렇게 배우지 않더

라도, 네이버에 가면 검색해보고..” (E5)

③ 예절

사회생활을 위해서는 예절을 잘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너무 지나치게 예절을 지킬 필요는 없지만, 연장자에게 존대말을 쓰고 인사를 잘 하고,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할 행동들을 하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나이가 든 사람도 예의 없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좋아 보이지 않아서 인성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거 진짜 중요해요 예의범절이 지켜지지 않은 사람들은 참..어..되게 보기 안 좋아요 그리고 나이 드신 사람들도 어쩔 때 예의없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거 보면 아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꼭 예의가 바르고 겸손한건 아니구나...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저는 예의가 가장 중요해요” (D4)

“(예절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청크죠 별 다섯 개죠 송신부님한테 맨날 듣는 소린데 사람은 항상 겸손해야 하고, 누굴 만나든 인사 철저히 하고, 그리고 인성 부분에서 줌...” (B2)

“예절은 기본적으로 그냥 웃어른께 높임말 쓰고 인사 잘 하고 그냥 그 공공장소에서 뭐 하면 안되는거 그런거 지키는 정도면...그냥 괜찮은 애들도 있긴한데 그냥 담배 피거나 되게 인싼데 질 안 좋은쪽 애들이랑 어울리면 그게 좀 안 될 수도 있을거 같아요” (A1)

④ 시간관리

시간관리가 잘 안되면 허무하게 시간을 소비하고 자괴감마저 들 것이라고 했다. 가급적 시간계획을 짜서 알차게 보내면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자기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도 있었다. 기존 척도에서는 생산적인 시간과 소비적인 시간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 하는 청소년들이 많아 쉬운 내용으로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

“(생산적인 시간, 소비적인 시간 이거 말 이해해요?) 그니까 생산적인 시간은 일단 계획해서 자기가 쓸 시간...비는 시간을 만들어야 하는 거고 그렇게 계획한 거에 맞게 시간을 쓰는거 아니예요? 잘 모르겠어요(웃음)” (D4)

“(생산적인 시간과 소비적인 시간에 대해 이해하고 있어요?) 아니요” (C3)

“(시간관리는?) 네 이거는 그 부분에서는 하루종일 맨날 자고 있으면 쉬는 날이라도 자고 있으면 진짜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후 6시 막 이러면 시간 허무하고 자괴감 들고 발전도 없고 이 시간에 내가 딸걸 했으면은 좋겠다. 자격증 하나 뒀으면은 좋겠다 이런거...” (B2)

자. 자원관리

자립과정에서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때, 긴급하게 도움받을 일이 생길 때 누군가의 도움으로 해결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공통적이었다. 자원을 이용하는데는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사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공식적인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 관심이 많은 편이었다.

“제일 중요한건 자립을 하고 나서 내가 진짜 긴급할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뭐 이런것도 들어가면 되게 좋을거 같아요” (C3)

“(혼자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을까요?) 도움 없이는 안 될 거 같아요 중요도는 별 다섯개 정도되요” (B2)

“(남의 도움을 받는 능력이 필요한지?) 지원은 받을수록 좋죠 아무래도 자기 도움 덜어나...” (A1)

차. 자기보호

① 신체건강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영양식품을 챙겨먹기도 하며, 몸이 아플 때는 의료적 치료도 해야 한다는 생각들이 있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운동하고 싶지만 비용부담으로 하지 못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스트레스 예방 차원에서 운동 하나쯤은 꾸준히 하는게 도움이 된다고 했다. 특히 혼자 사는데 몸이 아프면 누가 책임질 사람도 없고 서럽다는 생각이 많이 들 것이라고도 했다.

“신체가 안 아파야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자기관리 잘 해야되고 운동을 해야되는데 꾸준히 하는게 힘들거같고...(중략) 습관 기르려고 예전에는 나가서 운동도 하고 그랬는데 코로나 터지고는 거의 안 나갔거든요 가능하면 PT를 받고싶긴한데 가격 때문에...” (A1)

“비타민C를 먹고 있어요 고려은단, 확실히 미용을 하고 오래 서 있고 하다 보니까 무릎도 안 좋아지더라구요 일단 저는 진짜 헬스장은 싫어하거든요 근데 전 수영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능력이 된다면 수영 배우러 다닐 것 같고, 아니면 한의원 침 맞는게 그렇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웃음) 그래서 한의원 생각하고 있어요 ” (D4)

“근데 우선 사람들을 보면 규칙적인 4일 일주일에 4번하는 사람들 거의 못봤거든요?(웃음) 근데 이게 맞긴 맞는데...(중략) 그냥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이 정도로” (D4)

“꼭 하나쯤은 자기 스트레스 풀 수 있는 운동 같은거...(중략) 아프지 않겠음 자기 몸 관리 하면서 스트레칭도 해 주고, 자기 좋아하는 거 뭐, 예를들면 제가 좋아하는 족구 이런거 하나쯤...” (B2)

“건강관리는 조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혼자사는데 아프면 누가 책임질 사람도 없고..아픈 것이 제일 서럽다고 들어서...” (E5)

② 정신건강

스트레스나 우울증 같이 심리정서적으로 힘들 때 제대로 대처하는 것이 신체건강 못지않게 건강관리에 중요하다고 하였다. 보통은 가정불화나 개인적인 문제로 우울증 같은 정신적인 어려움이 많은데, 이럴 경우 심리적으로 무너지면 일도 못 하고 친구들의 위로도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하였다. 심할 때는 병원치료를 받고 싶지만, 의료비 부담으로 선뜻 치료받지 못하기 때문에 의료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여의치 않을 경우 스스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스트레스 푸는 방법을 찾아 해결하려고 한다고도 하였다.

“정신적으로 힘들때는 자기 자신이 하기에 정말 달려있거든요 근데 친구나 지인들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정신적으로 힘들때는 이 말이 안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 뭐 이렇게 좋을 것 같아요(웃음)” (D4)

“일단 우울증은 되게 중요한거 같아요 이게 내가 무너지면 생활에 되게 밀접하게 연관이 돼서...근데 저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다닐 때 컴퓨터에 있었는데..일단 가정 불화나 제 개인적인 문제도 있었고 우울증 약을 먹었는데 나중에 약을 끊고나서 우울증이 재발했거든요 (중략) 우울증 때문에 알바를 못 하거나 좀 잘 못 어울리거나 그럴 수가 있어서 그런 관리를 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 (A1)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랑 제가 스트레스 푸는 방법들 찾아보려고 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D4)

“병원같은거 의료지원이 좀 되는 쪽이면 좋겠어요 근데 보통 아파도 병원에 안 가려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뭐 지원을 해주면 조금 갈 수 있으니까” (A1)

③ 성 보호

성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나중에 원치 않는 임신을 하거나 불가피하게 입장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피임방법이나 임신에 관한 성지식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특히 성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피임방법을) 세 가지는 알고 있어야.. 일단 팔에 주사맞는거 하나, 자궁에 뭐 사입하는거 하나, 그리고 아예 난자...나팔관을 묶어버리는 수술도 있거든요? 그것도 피임 방법이고 그리고 남자 콘돔을 잘 끼는거? 그리고 피임약 먹는거, 그리고 질 외 사정법 이라고 이거는 거의 피임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이것도 효과적이라고 하더라고요...그리고 생리기간에 관계하는거? 이것도 피임 방법이래요..*” (D4)

“*그런 지식이 없으면, 뭐 성관계를 해서 안에 (사정을) 했으면, 애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것도 모르면...모르고 했다고 하고..아이가 생기면 나중에 완전 당황하고, 아이가 어떻게 생겼지? 자기 아이가 맞나? 이런 생각도 날 것 같고..성지식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5)

“*임신하면 입장 같은 거 낳자마자 보내거나 뭐 낙태를 시키거나 그러잖아요 방법이 알려진 게 그거 밖에 없기 때문에 뭐 결혼이 된다면 결혼하는 게 좋죠 뭐. 가정을 꾸리던 가 보통 그게 제 나이 또래는 잘 안 되잖아요...(콘돔 사용이) 솔직히 그거는 필요한 거 같아요 여자 남자 다 상관없이*” (C3)

“*일단 성에 대해서는 자신을 지키려면 피임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성폭력을 당했을 때는 절대로 씻으면 안된다고 그러더라고요,*” (D4)

카. 학업관리

대체로 학업을 지속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자립에 큰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많았다. 다만, 공부에 자신은 없어도 좋아하는 것은 열심히 할 자신이 있고, 자격증 취득을 해야 할 때 역시 공부 요령을 알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자립을 위해 자기계발이나 학력취득이 도움 되기 때문에 국민내일배움카드 등으로 직업훈련이나 학업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학업관리는?) 이거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자립에서는 그렇게 막 큰 요인은 차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시험 이런 거 아니더라도 앞으로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계속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공부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중략) 고민이 많아요 제가 미용 쪽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대학이 꼭 필요하지 않다고 주변에서 조언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미용은 기술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 그래도 대학은 가고 싶은데, 제가 대학을 가고 싶은 이유가 그 스무살에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캠퍼스이런게 있잖아요 이제 또 그거를 느끼기 위해 학교를 가기엔 좀 그러니까..저는 아직 취업쪽으로 많이 기울어진 편이에요.” (D4)

“사실 저도 공부 못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거는 정말 잘 하거든요 제가 딱 이 자격증은 내가 좋아하는 부분이니깐 따야지... 이런 부분에서는 공부 요령은 도움될 것 같아요” (B2)

“저는 자취를 한 이후니까 제가 뭐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더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C3)

“자기계발이나 학력취득은 중요한거 같아요... 학업지원이나 자격증 딸 동안 도와준다거나 그 내일배움카드도 대신 한다거나 신경을 써주면 좋을 거 같아요” (A1)

3. 구성개념 도출 및 기초문항 개발

가. 자립준비 영역 도출

자립준비 영역은 기존 척도 및 선행연구와 현장의 실증조사를 통해 다음의 <표 16>과 같이, 자립의지, 직업역량, 경제적관리, 주거관리, 일상생활기술, 사회적기술, 자원활용, 자기보호, 자기계발 등 9개로 구분하여 도출되었다. 영역별로 자립준비 영역 도출 이유를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립의지’는 선행연구와 현장의견 모두 매우 중요한 영역으로 간주하고 있다. 다만, 정의적인 측면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자립노력에 대한 ‘실천’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기존 척도의 자립의지 영역은 그대로 유지하되 하위영역을 보완하였다.

둘째, ‘주거관리’는 집을 구하고 안정되게 관리하는 것으로 자립에 필수적이며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부분이기도 하여 국내외 다수 연구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기존 척도에서는 일상생활관리와 주거관리, 안전관리를 합쳐서 주거생활관리로 분류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각 영역이 중요하므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에 따라 별도의 주거관리 영역으로 분리하였다. 안전관리 영역은 주거관련 안전지식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주거관리 영역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포함시켰다.

셋째, ‘직업역량’은 국내외 대부분의 연구와 현장의견에서 자립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로 보고 있다. 기존 척도에서는 진로를 탐색하는 10대 청소년의 특성을 감안하여 ‘직업’과 ‘진로’ 키워드를 병행하여 사용했으나, 자립에 직면한 후기 청소년에 초점을 두고자 직업역량에 중점을 두어 분류하였다. 다만, 학위요소들 중 직업가치관은 별도 요소로 분리하지 않고 관련된 질문에 포함하였으며, 긍정적인 취업경험 유무를 추가로 포함하였다.

넷째, ‘경제적관리’는 경제활동을 통해 얻어지는 수입에 대해 소비, 지출, 저축을 하며 안정된 자립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이다. 청소년의 특성상 경제관념 부족으로 과소비, 충동소비, 과시소비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에는 휴대폰 소액결제나 주식투자, 금융사기, 카드관리, 그리고 건강이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등 금융이슈들이 새로 등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일상생활기술’은 의식주와 관련된 일상생활을 스스로 챙기며 관리해 나가는 능력이다. 다수의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가사 관련된 기술이 제시되고 있으며, 일부 연구에서 주거 관련 안전관리 지식이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도 주거기반의 가사일과 안전 지식이 포함된 자립준비 영역을 제시하였다. 특히 식생활은 가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므로 이에 대한 세부적인 준비요소들이 다뤄질 필요가 있다.

여섯째, ‘사회적기술’은 사회 속에서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능력으로, 선행연구에서는 의사소통, 대인관계, 공공장소 예절 등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시간관리나 용모·위생관리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도 사회적기술을 자립준비의 한 영역으로 제안하였다.

일곱째, ‘자원활용’은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회에서 외부 자원을 활용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선행연구에서는 공식자원과 비공식자원으

로 나누고 있다. 기존 척도에서는 사회적기술 영역 내에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현장의 요구와 중요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자원활용’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여덟째, ‘자기보호’는 기존 연구와 유사하게 신체건강 관리, 심리정서적 안정, 성보호를 통해 자신을 보호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는 능력으로, 선행연구와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도 자기보호 영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였다.

아홉째, ‘자기개발’은 사회에서 안정된 직업을 갖고 인정받으며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 척도에서는 주로 학업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학업정보나 학습방법 인지여부가 제시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학력취득 외에도 자격증 취득이나 개인의 성장을 위한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이를 포괄할 수 있는 자기개발로 의미를 확대하여 자립준비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표 16> 자립준비도 구성개념 도출을 위한 시사점

기존척도 자립준비 영역	선행연구	현장전문가 FGI	청소년 심층면접	<시사점>
자립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연구에서는 자립의지, 목표의식, 일에 대한 의지, 어려움 극복에 대한 자신감, 자립동기, 자립실천노력 등 자립의지와 관련된 개념을 포함시킴 해외에서는 Cook(1986)이 ‘자존심’을 포함하고 있을뿐 거의 포함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립의지가 매우 중요함 주로 자립의지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 방법이 필요 예컨대, 자립의지를 실천하고 있는지,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 문제해결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정 제안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립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함. 사전에 목표를 갖고 있다면 자립의지가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목표 확인 문항이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립의지 영역은 그대로 유지함 세부 문항에서 목표설정 여부, 자립동기, 실천여부, 문제해결방법 인지 여부 등 객관적인 자립의지 확인 질문을 추가하도록 함
진로직업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외 대부분의 연구에 직업역량 또는 진로탐색 영역으로 포함됨 하위요소에 목표설정, 직업기술, 직업훈련, 구직기술, 취업여부, 직업유지 등이 포함됨 직업가치관은 김세진 등(2020), 조규필(2013) 등 일부 연구에만 포함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정기간(1년 이상), 일정수준(150만원 이상)의 급여, 근로권 보장 필요 직장내의 갈등조정능력과 조직 내의 자기역할 이해, 입퇴사 예절이 필요함 긍정적인 취업경험은 직업선택이나 취업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업정보를 인터넷 사이트나 유튜브에서 얻는데 익숙함 직업선택시 자신이 좋아하면서 잘하는 일을 선택하는게 좋지만, 현실여건상 쉽게 취직해서 돈부터 벌고, 나중에 적성을 찾아가려는 경향이 많았음 직업가치관의 의미에 대해 어려워했으나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업에 초점을 두어 직업역량 영역으로 수정함. 다만 하위요소를 중 직업가치관은 별도 요소로 분리하지 않고 관련 질문으로 쉽게 재구성하여 보완하도록 함 긍정적인 취업경험 유무 추가로 포함

기존최도 자립준비 영역	선행연구	현장전문가 FGI	청소년 심층면접	<시사점>
			<p>해하고 나면 직업선택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인식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은 구직시 도움이 됨 • 직장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경험을 통해 적응방식을 배워나가고 있음 	
경제적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대부분의 연구에 포함되어 있음 • 주로 돈관리, 소비와 저축, 신용관리 등이며, 공과금 및 통신비 납부, 건강보험, 세금, 경제관념, 개인물품 사기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인 저축 외에도 투자, 대출, 보험상품에 대한 지식이 요구되며, 공과금 및 할부금, 세금 납부 관리가 필요함 • 특히 신용관리를 위해 올바른 카드사용 및 금융사기 예방 지식이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돈관리를 위해 가계부 작성, 저축을 중요시함 • 건강이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지만, 실제 가입한 경우가 드물었음 • 휴대폰 소액결제, 대출, 주식투자, 신용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경계하는 편이며, 신용관리가 중요하지만 구체적인 지식은 없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관리 영역을 유지함. 다만 기존의 경제관리 요소들 외에 최근의 금융이슈들(휴대폰 소액결제, 주식투자, 보험가입, 금융사기 예방 지식, 카드관리, 대출지식 등에 대한 문항을 추가하도록 함
주거생활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관리는 자립의 중요한 요소로 주거지를 구하고 유지하는 기술이 국내외 다수 연구에 포함됨 • 일상생활관리는 가사(조리, 청소, 세탁 등) 관련된 기술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교통, 안전, 자녀양육, 용모관리가 일부 연구에 포함되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관리와 일상생활관리가 각각 중요한 영역이므로 분리될 필요가 있음 • 음식준비는 직접 식재료 구입 및 조리할 여건이 안 되면, 배달문화, 밀키트(Meal kit), 반찬가게 이용이 증가하는 최근 추세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집안 청소와 정리정돈, 세탁물 관리 등은 기존 유지함 • 가사 관련된 안전관리(가스밸브, 전기 등) 요소를 포함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관리, 일상생활관리, 안전관리를 별도로 분리함 • 주거문제는 청소년의 가장 큰 관심사지만, 주거정보가 복잡하고, 최소한의 보증금과 월세를 마련할 수 있는 안정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선결조건이며, 주거지를 알아보고, 계약하고, 집을 관리하는 지식은 미리 알아두는 것이 필요함 • 일상생활관리는 음식준비,주방관리, 청소 및 세탁관리가 있음. 배달음식이나 편의점 인스턴트 식품 이용을 편리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관리와 일상생활기술 영역으로 분리함 • 음식준비 관련 조리뿐만 아니라, 배달음식이나 반찬가게 이용이 증가하는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하도록 함 • 안전관리는 주거관련 안전지식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주거관리 영역에 포함하도록 함.

기존척도 자립준비 영역	선행연구	현장전문가 FGI	청소년 심층면접	<시사점>
			<p>게 생각하면서 비용부담이나 건강상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편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은 주로 문단속(도어록, cctv), 시설안전(가스, 전기, 수도 등), 외출시 범죄예방에 대해 주의가 요구됨 	
사회적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연구에 의사소통, 대인관계 등의 사회적기술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음 • 부분적으로 예절, 시간관리, 여가선용, 의사결정, 규범/준법여부 등이 포함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위요소로 소통기술, 관계형성, 갈등해결, 시간관리, 용모/위생관리가 중요함 • 갈등해결은 단순히 '방법을 알고 있다'보다는 '갈등상황에 적절히 대처한다'와 같이 실제 대처여부를 파악해야 함 • 기존척도의 시간관리 문항을 쉽게 수정 필요 • 용모/위생관리는 외모만을 중시하는 그릇된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문항 수정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모관리는 단지 좋은 이미지를 위해 외모를 가꾸기보다는 복장이나 개인위생 면에서 청결하고 단정한 정도면 충분함 • 대인관계에서 예절은 매우 중요하므로 인사 잘하고, 높임말을 사용하고,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할 정중한 태도를 가져야 함 • 시간관리는 중요하지만 실천이 잘 안되는 부분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술 영역을 유지함. • 하위요소에 의사소통, 대인관계 형성, 예절, 시간관리, 갈등해결, 용모/위생관리를 포함시키도록 함 • 다만, 용모/위생관리에 외모만을 중시하는 그릇된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함 • 시간관리의 실천여부를 구체적으로 묻는 문항을 추가하도록 함
자원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일부 연구에 자립준비 영역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주로 공공시설 등의 공식자원과 지역사회 도움청하기 등의 비공식자원으로 구분됨. • 부분적으로 목적지찾기, 대중교통, 중요한 연계 만들기 등의 자원활용이 포함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갑작스런 어려움이 닦쳤을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쉼터, 주민센터, 복지관 등의 공적 자원과 친구, 선배, 지인 등의 사적자원이 있는지 여부가 문항에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과정에서 혼자 감당하기 어려울 때, 긴급상황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며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이 공통적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척도에서 사회적기술 영역 내에 있었으나 독립된 자원활용 영역으로 분리함 • 중요 공식자원과 비공식자원의 구체적인 예시를 추가하도록 함
자기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연구에서 신체건강, 정신건강, 성보호가 공통적인 요소로 포함되어 있음 • 그의 개인위생, 약물남용, 의료처치, 정서자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건강, 심리정서안정, 성보호 3가지 요소를 포함함 • 신체건강에서 규칙적인 운동은 필요하지만, 기존척도의 운동 횟수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건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며, 약간의 건강식품이나 신체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례가 있음 • 기존척도에서 운동횟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보호 영역을 유지하며, 하위요소에 신체건강, 정신건강, 성보호 3가지를 포함시키도록 함 • 규칙적인 신체운동 여

기존척도 자립준비 영역	선행연구	현장전문가 FGI	청소년 심층면접	<시사점>
	의 요소들이 각 연구별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음	<p>준은 제외하며, 건강관련 보험여부와 보상방법에 대한 질문 추가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리정서안정은 심각하고 치료가 오래 걸리므로 중요하다는 입장. 전문가나 병원치료받을 의향이 있는지 확인 문항 필요 성범죄 및 대처방법 인지여부, 임신위험성 노출여부를 묻는 문항 필요 	<p>에 대한 질문(1주 4회 이상)은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는 정도로 수정을 원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리정서안정에서 '정신적으로 힘들 때 친구나 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를 '힘들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로 수정을 원함 성보호에서 여러 가지 피임방법을 알고 있는지, 입양과 낙태가 우려되는 임신 예방 문항이 필요함 	부, 정신적으로 힘들 때 대처방법, 건강관련 보험가입 및 보상방법, 성범죄 대처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 개발 포함
학업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외 연구 모두 절반 정도만 학업영역을 포함하고 있음 주로 학업의지, 학습기술, 학업정보 등으로 제시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업관리라는 용어 대신 교육관리, 역량개발, 평생교육의 다른 표현으로 수정 요함 교육영역은 검정고시, 대학진학, 자격증 취득 교육이 포함됨. 기존척도에서 학교공부에 가까운 질문 대신 학업지속 정보 인지 여부, 자격시험 준비 및 시험요령 인지여부에 대한 문항으로 수정 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진학, 자격증 취득, 개인의 성장을 위한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 일부 의견에서 '효과적인 필기방법을 알고 있다', '하고싶은 공부를 더 할 수 있다'는 질문 추가를 제안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업관리 영역을 자기계발 영역으로 수정함 대학진학, 검정고시, 직업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으로 범위를 넓혀 질문을 구성하도록 함.

나. 하위요인 도출

① 자립의지

자립의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천의 정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립동기가 얼마나 뚜렷한지(자립동기), 자립을 위한 목표설정 여부(목표의식), 자립 계획에 따른 자립준비를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실천여부), 자립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어려움 극복), 자격증을 준비하고, 직업기술을 습득하고, 구

직활동을 하는데 있어 포기하지 않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도전하는지(적극성/도전성)를 하위 요인에 포함시켰다.

② 주거관리

주거문제는 자립하려고 하는 청소년에게 가장 큰 관심사이지만, 정부지원 주거정보가 복잡하고, 보증금과 월세를 마련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사진에 이에 대한 준비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주거마련 준비), 집을 구하는 단계에서 알아야할 기본 지식과, 집을 계약하고, 보증금을 보호받고, 하자 발견시 대처요령 등(집구하기)에 대해 숙지해야 하며, 생활을 유지하는 과정에서는 공과금이나 간단한 보수유지 방법을 알고 있는지(집관리) 점검할 요인들을 포함시켰다.

③ 직업역량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인터넷 정보검색이나 직업상담, 직업인들과의 대화, 직업현장 방문 등을 통해 관심 직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과정이 필요하며(직업조사), 자신의 흥미와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제대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직업선택). 또한 입직의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와 같은 직업훈련 정보를 알고, 자격증 취득이나 근로 경험을 통해 직업기술을 습득하고 과정이 필요하며(직업훈련),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효과적인 면접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구직기술). 가장 중요한 것은 직업을 얻고 나서부터다. 직업에 들어가서 직면하는 동료, 상사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갖고 부당한 처사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는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직장적응) 이러한 점들을 하위요인에 포함시켰다.

④ 경제적관리

기본적으로 경제활동을 통해 얻어지는 수입에 대한 소비를 조절하는 능력(지출관리), 매달 저축하거나 정부의 금융지원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수입관리)이 요구된다. 또한 다양한 대출방법과 불법대출의 위험성을 알고 있는지(대출관리), 어떤 상황에서 신용이 낮아져 경제활동이 제한될 수 있고, 특히 신용카드의 무분별한 스스로 사용을 통제하고 있는지(신용관리), 그 밖에 질병이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실비보험 가입이나 가계부 작성, 금융피해 예방 지식에 관한 지식과 태도(돈관리)가 어떠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요인들을 포함시켰다.

⑤ 일상생활기술

먹는 문제는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기본 요소로 기본음식을 스스로 조리할 수 있어야 하지만, 최근 혼자서 생활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음식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어 밀키트(meal kit) 같은 배달음식이나 인스턴트 식품, 반찬가게 이용을 편리하게 생각하는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음식을 마련하고 보관하는 능력이 요구된다(음식준비). 또한 음식물 뒤처리와 주방위생 청결에 얼마나 신경쓰는지(주방관리), 쓰레기 분리수거와 집안청소와 정리정돈, 적절한 세탁 및 보관능력이 요구된다(청소/세탁). 주거 관련 안전 문제는 도어록 문단속과 가스, 전기, 수도 등의 시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안전관리) 등의 요소들이 포함되었다.

⑥ 사회적기술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개인용모와 청결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용모/위생관리). 다만 외모만을 중시하는 그릇된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도록 단정하고 청결한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면 충분할 것이다. 소통능력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할 줄 알며, 타인의 충고에 대해 수용적인 자세가 필요하며(의사소통), 타인과의 관계는 건전한 대인관계를 맺고, 타인의 부탁이나 갈등상황에서 원만하게 대처하는 기술이 요구되며(관계형성), 원만한 사회생활을 위해 인사를 잘하고, 높임말을 사용할 줄 알며,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할 정중한 태도를 지닐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하였다(예절).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의 시간약속이나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아야 하며(시간관리), 공중도덕과 법규를 잘 준수하는 것(규범준수)도 사회적 기술에 필요한 요소로 포함시켰다.

⑦ 자원활용

공적 분야에서는 대중교통을 원활히 이용하고, 지역 관청에서 문서 발급을 잘 할 수 있는지, 병원이나 은행 등의 공공시설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공식자원). 사적 분야에서는 친구나 지인과 소통하며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받을 수 있고, 지역사회 커뮤니티에 소속되어 유대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비공식 자원)을 필요한 요소로 포함시켰다.

⑧ 자기보호

신체건강을 위해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이 요구된다(신체건강). 심리정서 안정을 위해서는 적절히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전문 상담자나 의료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

어야 한다(정신건강), 성문제 예방을 위해서는 여러 피임방법을 알고, 낙태, 임신, 성병 예방에 관한 기본 지식을 갖고 있는지(성보호)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 이에 관한 요소들을 포함하였다.

⑨ 자기계발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학력취득이나 상급학교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지(학업), 원하는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시험준비 요령을 알고 있는지(자격시험), 개인의 취미나 적성을 개발하기 위해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지(역량개발)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요소들을 포함하였다.

다. 기초문항 개발

① 기초문항 개발의 원칙

첫째, 자립준비도 기초문항은 새롭게 도출된 자립준비 영역과 하위요인에 따라 기존 척도와 자립준비 관련 척도들의 문항들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둘째, 현장전문가와 청소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

셋째, 최근의 사회, 경제, 문화적 환경과 트렌드를 최대한 고려한다.

넷째, 질문유형은 OECD 교육 2030 프로젝트(OECD, 2017)에서 제시한 역량 범주인 ‘지식(knowledge)’, ‘기술(skill), 태도(attitude)로 구분하여 질문 문항을 구성한다.

② 기초문항 개발

기초문항은 9개 영역과 36개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여 전체 89개 문항으로 개발하였다. 이 중 신규로 37개 문항을 새로 개발하였고(41.6%), 기존 척도의 문항을 일부 수정하여 26개 문항(29.2%)을 사용하였으며, 나머지는 관련 척도의 문항을 일부 수정하여 26개 문항(29.2%)을 사용하였다. 질문유형은 지식(knowledge)을 묻는 문항이 25개로 28.1%, 기술(skill)에 관한 문항이 24개로 26.9%, 태도(attitude)에 관한 문항이 40개로 각각 44.9%를 각각 차지한다.

자립준비 영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립의지 영역은 자립동기, 목표의식, 실천여부, 어려움극복, 적극성/도전성 요인에서 각 1문항씩 모두 5문항이다.

주거관리 영역은 주거마련 준비 4문항, 집구하기 4문항, 집관리 2문항으로 모두 10문항이다. 일상생활기술 영역은 음식관리 5문항, 주방관리 2문항, 청소/세탁 3문항, 안전관리 2문항으로 모두 12문항이다.

직업역량 영역은 직업조사 3문항, 직업선택 3문항, 직업훈련 2문항, 구직기술 2문항, 직장 적응 5문항으로 모두 15문항이다.

경제적관리 영역은 지출관리 3문항, 수입관리 2문항, 대출관리 3문항, 신용관리 3문항, 기타 돈관리 3문항으로 모두 14문항이다.

사회적기술 영역은 용모/위생관리 2문항, 의사소통 2문항, 관계형성 3문항, 예절 2문항, 시간관리 3문항, 규범준수 2문항으로 모두 14문항이다.

자원활용 영역은 공식자원 3문항, 비공식자원 3문항으로 모두 6문항이다.

자기보호 영역은 신체건강 4문항, 정신건강 3문항, 성보호 3문항으로 모두 10문항이다.

끝으로, 자기계발 영역은 학업, 자격시험, 역량개발 각 1문항씩 모두 3문항이다.

<표 17> 자립준비도 척도 기초문항

자립준비 영역	하위요인	질문유형 (지식/기술 /태도)	순번	문항	비고
자립의지	자립동기	태도	1	나는 자립하려고 하는 동기가 뚜렷하다	김세진 외(2020)
	목표의식	태도	2	나는 자립을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목표나 계획이 있다	신규
	실천여부	태도	3	나는 자립계획에 따라 자립준비를 실천하고 있다	김세진 외(2020) 수정
	어려움극복	기술	4	나는 자립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참고 이겨낼 자신이 있다	조규필(2013)
	적극성/도전성	태도	5	나는 어떤 일을 하다가 안 되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도전하는 적극성이 있다(예: 취업, 자격증, 기술 습득)	신규
주거관리	주거마련 준비	기술	6	나는 집을 얻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시기, 지역, 예산)을 갖고 있다	신규
		지식	7	나는 정부의 주택임대 지원 정보를 수시로 찾아서 확인하고 있다	조규필(2013) 수정
		기술	8	나는 집을 구하는데 필요한 보증금(목돈)을 모으고 있다	신규
		기술	9	나는 안정적으로 월세를 낼 수 있는 일자리를 갖고 있다	신규
	집구하기	지식	10	나는 집을 구할 때 점검해야 할 기본사항들을 알고 있다	신규
		지식	11	나는 집을 계약할 때 주의해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알고 있다	조규필(2013)

자립준비 영역	하위요인	질문유형 (지식/기술 /태도)	순 번	문항	비고
		지식	12	나는 집을 구한 직후(주택임대 계약) 임대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조규필(2013)
		지식	13	나는 집을 구한 후 하자 발견시 대처방법을 알고 있다	신규
	집관리	지식	14	나는 주거시 납부해야할 공과금의 종류와 납부방법을 알고 있다	노총래 외(2018)
		기술	15	나는 형광등을 갈거나 막힌 하수구를 뚫는 등 간단한 보수유지 방법을 알고 있다	신규/ 시설 보수,유지 등
	일상생활 기술	음식관리	기술	16	나는 밥과 밑반찬 등 기본 음식을 조리할 수 있다
기술			17	나는 식생활 건강에 필요한 영양식단을 짤 수 있다	조규필(2013)
기술			18	나는 레시피(조리방법) 등을 활용하여 음식을 만들 수 있다	조규필(2013)
태도			19	나는 조리가 어려운 경우, 반찬가게나 배달음식(밀키트 등) 등을 활용해 적절히 영양섭취를 하고 있다	신규/ 최근 식생활문화 반영
지식			20	나는 음식물 종류에 맞는 보관방법(냉동, 냉장 등)을 알고 있다	김지선 외(2018)
주방관리		태도	21	나는 식사 후 설거지를 미루지 않고 곧장 한다	조규필(2013) 수정
		기술	22	나는 식기 건조, 행주 살균, 싱크대 및 환풍기 청소 등 주방 위생청결에 신경을 쓴다	신규
청소/세탁		기술	23	나는 분리수거 방법에 따라 쓰레기(음식물, 재활용품 등)를 처리한다	김지선 외(2018)
		태도	24	나는 평소에 집안 청소와 정리정돈을 미루지 않고 깔끔하게 하는 편이다	노총래 외(2018) 수정
		지식	25	나는 옷 종류에 맞게 세탁, 건조, 보관을 한다	김세진 외(2020) 수정
안전관리		태도	26	나는 외출할 때 가스불이나 전기스위치 차단(off) 등 화재안전 상태를 철저히 점검한다	조규필(2013) 수정
		태도	27	나는 취침시나 외출시 문단속(창문, 현관문)을 철저히 한다	조규필(2013) 수정
직업역량		직업조사	태도	28	나는 관심 갖고 있는 직업을 구하기 위해 직업정보 사이트(워크넷, 커리어넷 등)나 인터넷 자료 등을 통해 수시로 직업정보를 알아본다
	태도		29	나는 직업인을 만나거나 직업체험을 통해 관심있는 직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아본다	조규필(2013)

자립준비 영역	하위요인	질문유형 (지식/기술 /태도)	순 번	문항	비고	
	직업선택	태도	30	나는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전문가에게 상담이 나 조언을 듣는다	조규필(2013)	
		기술	31	나는 나의 관심과 적성에 맞는 직업이 무엇인지 알 고 있다	김지선 외(2018) 수정	
		지식	32	나는 원하는 직업의 자격요건(학력, 자격증, 기술 등)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김지선 외(2018) 수정	
	직업훈련	태도	33	나는 긍정적인 취업경험을 통해 일에 대한 자신감 을 갖고 있다	신규	
		지식	34	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정부의 직업훈련 서비 스들에 대해 알고 있다.	신규	
	구직기술	태도	35	나는 원하는 직업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 구체적으 로 준비하고 있다(자격증, 교육훈련, 일경험 등)	신규	
		기술	36	나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제대로 작성할 수 있 다	조규필(2013) 수정	
	직장적응	기술	37	나는 채용면접 준비와 효과적인 면접방법을 알고 있다	조규필(2013) 수정	
		지식	38	나는 기본적인 근로자의 권리를 알고 있다	신규	
		지식	39	나는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등 직장에서 불합리 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조규필(2013) 수정	
		기술	40	나는 직장 상사와 마찰이 생겼을 때 원만하게 해결 할 자신이 있다	신규	
		지식	41	나는 직장 내에서 성추행이나 언어폭력 등의 피해 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신규	
	경제적 관리	지출관리	태도	42	나는 직장에서 불가피하게 지각을 하거나 결근을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노총래 외(2018) 수정
			태도	43	나는 물건을 사기 전에 가격과 품질을 신중하게 비 교해본다	노총래 외(2018) 수정
			태도	44	나는 충동구매를 하지 않는다	조규필(2013) 수정
수입관리		태도	45	나는 내 수입에 맞게 근검절약하는 편이다	노총래 외(2018) 수정	
		태도	50	나는 매달 저축이나 적금을 하고 있다	노총래 외(2018) 수정	
		지식	46	나는 정부나 지자체의 청년우대 금융상품(청년내일 채움공제, 서울청년수당 등) 정보를 알고 있다	신규	

자립준비 영역	하위요인	질문유형 (지식/기술 /태도)	순 번	문항	비고
	대출관리	지식	47	나는 돈을 빌리는 다양한 방법들(친구, 은행, 대부업체, 학자금대출 등)의 장단점에 대해 알고 있다	노총래 외(2018)
		지식	48	나는 불법 대부업체로부터 받는 대출의 위험성을 알고 있다	노총래 외(2018) 수정
		태도	49	나는 휴대폰 소액결제를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는다	신규/ 최근 청소년 소비패턴 반영
	신용관리	지식	51	나는 어떤 경우에 신용등급이 낮아지는지 알고 있다	조규필(2013) 수정
		태도	52	나는 갚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지출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만들지 않거나 카드사용을 통제하고 있다	신규
		태도	53	나는 아무리 친한 관계라도 함부로 돈을 빌리지 않는다	신규
	돈 관리	태도	54	나는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에 대비해서 보험(실비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다	신규
		태도	55	나는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기 위해 가계부를 작성하고 있다	신규
		지식	56	나는 보이스피싱 등의 전자금융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는 대처요령을 알고 있다	신규
사회적 기술	용모/위생	태도	57	나는 경우에 맞는 단정한 옷차림을 할 줄 안다 (초대, 면접, 행사 등)	조규필(2013)
		태도	58	나는 규칙적으로 개인위생을 청결히 한다 (샤워, 양치질, 손톱발톱 손질, 이미용 등)	신규
	의사소통	기술	59	나는 생각이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적절하게 표현한다	노총래 외(2018)
		태도	60	나는 다른 사람의 충고를 기분 상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다	김지선 외(2018)
	관계형성	기술	61	나는 건전한 대인관계를 맺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	조규필(2013)
		기술	62	나는 다른 사람의 부탁을 기분 나쁘지 않게 거절할 수 있다	노총래 외(2018)
		기술	63	나는 다른 사람과 갈등이 있을 때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	조규필(2013)
	예절	태도	64	나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본 예절(인사, 높임말 등)을 잘 지킨다	조규필(2013)
		태도	65	나는 남에게 대접받거나 도움을 받으면 반드시 감사의 표현을 하거나 갚으려고 한다	신규

자립준비 영역	하위요인	질문유형 (지식/기술 /태도)	순 번	문항	비고
	시간관리	태도	66	나는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신규
		태도	67	나는 다른 사람과의 시간 약속을 잘 지킨다	신규
		태도	68	나는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고 그때 그때 처리한다	신규
	규범준수	태도	69	나는 조직의 규칙이나 사회의 공중도덕을 잘 지킨다	김세진 외(2020) 수정
		태도	70	나는 법을 잘 준수한다	김세진 외(2020) 수정
자원활용	공식자원	기술	71	나는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등)을 이용해 원하는 목적지에 잘 찾아갈 수 있다	김지선 외(2018)
		기술	72	나는 공공기관(주민센터, 시군구청 등)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필요한 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김지선 외(2018)
		기술	73	나는 공공시설(병원, 도서관, 은행, 문화센터 등)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다	김지선 외(2018)
	비공식자원	기술	74	나는 외롭거나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전화나 SNS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친구, 지인)이 있다	신규
		기술	75	나는 아프거나 긴급한 어려움이 생겼을 때 부담없이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친구, 지인 등)이 있다	신규
		기술	76	나는 취미나 관심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지역모임(동호회, 종교시설 등)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다	신규
자기보호	신체건강	태도	77	나는 매주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신체건강을 관리하고 있다	조규필(2013) 수정
		태도	78	나는 건강에 해로운 음식을 잘 먹지 않는다	신규
		태도	79	나는 좋지 않은 식습관(야식, 과식, 폭식)을 피하고 있다	신규
		기술	80	나는 기본적인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 (예: 상처, 벌레물림, 가벼운 통증 등)	노총래 외(2018) 수정
	정신건강	기술	81	나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나만의 대처방법이 있다	조규필(2013)
		지식	82	나는 우울, 불안 등 심리적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의 정보를 알고 있다	노총래 외(2018) 수정
		태도	83	나는 중독증상을 일으킬만한 물질이나 매체(온라인게임, 영상물, 술, 담배 등)의 사용을 조절할 수 있다.	신규
	성보호	지식	84	나는 예기치 않은 임신 예방을 위한 피임방법을 알고 있다	노총래 외(2018) 수정

자립준비 영역	하위요인	질문유형 (지식/기술/태도)	순번	문항	비고
		지식	85	나는 임신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고 있다	조규필(20130)
		지식	86	나는 성병 예방 방법을 알고 있다	노총래 외(2018) 수정
자기개발	학업	태도	87	나는 학력취득이나 상급학교 진학을 준비하고 있다	신규/ 검정고시, 대학진학
	자격시험	지식	88	나는 원하는 자격증 취득에 대비한 시험준비 요령을 알고 있다	신규/ 자격증 취득 등
	역량개발	태도	89	나는 개인의 역량개발을 위해 공부를 계속 하고 있다	신규

4. 내용타당도 분석 결과

가. 검증 절차

내용타당도는 검사문항이 측정하려고 하는 내용을 얼마나 잘 표현하고 있는지를 말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현장에서 다년간 자립지원 경력을 갖고 있는 현장전문가와 자립문제 관련 학계 전문가 10명의 전문적 판단에 근거하여 각 문항 내용과 형식의 적절성을 평가하였다. 현장전문가로 청소년자립지원관 기관장 3명, 중장기청소년쉼터 시설장 1명,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시설장 1명이 참여하였으며, 학계전문가로 교수 2명과 연구기관 박사급 2명, 검사 도구 전문기관 대표 1명이 참여하였다. 내용타당도 평가시 문항별 내용타당성을 5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지식(Knowledge), 기술(Skill), 태도(Attitude)로 구분한 질문유형과 자립준비 구성요소가 적절한지, 그리고 각 문항의 내용타당성이 낮거나 수정이 필요한 경우 검토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나. 통계분석 및 문항수정 기준

내용타당도를 객관적으로 정량화하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내용타당도 지수(Content Validity Index: CVI)에 근거하여 문항을 선택하는 방법 중 하나로서, Fehring(1987)이 제시한 5점 척도(1점=진단과 관련된 특징이 전혀 없음; 2점=진단과 관련된 특징이 매우 적음; 3점=특징이 다소 있음; 4점=특징이 상당히 있음; 5점=특징이 매우 있음)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각 점수별로 가중치(1점=0, 2점=.25, 3점=.50, 4점=.75, 5점=1.00)를 부

여하여 각 문항마다 전문가 10명이 평가한 점수들의 평균을 산출하였다. 내용타당도 지수 (CVI)의 절단점(cut-off score)을 결정하는 기준은 연구목적에 따라 연구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Sparks & Lien-Gieschen(1994)이 제시한 CVI 절단점인 .60이상보다 보수적으로 .70이상을 선택하여, 이를 통해 수정·보완하였다.

다. 분석 결과

내용타당도 검증결과, 다음의 표 16과 같이, 기초문항 89개 중 1문항을 제외하고 모든 문항의 CVI가 .70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에 CVI 기준점 이하의 문항(78번)은 제거하였으며, 다른 문항들은 전문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신규문항 3개를 추가하고, 1개 문항은 제거하여 전체 91문항으로 수정·보완하였다.

문항 내용의 적절성에 관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구조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에서 보완하였다. 우선, 구조적 측면에서는 자립준비 9개 영역은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하위요인 중에서는 자립의지 내의 ‘어려움극복’은 ‘인내심’으로, ‘적극성/도전성’은 ‘적극성’으로, 자기계발 내의 ‘자격시험’은 ‘직업’으로 각각 수정하였다. 질문유형(KSA)은 지식, 기술, 태도의 분류가 부적절하다고 지적된 문항에 대해 수정의견을 반영하였다.

다음으로, 문항내용의 적절성 측면에서는 공통적으로 질문내용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문맥이나 용어를 수정하거나 구체적인 예시를 추가하였다. 또한, 시간관리, 공식자원, 신체건강 요인에 각 1개씩 3개의 신규문항을 추가하였으며, 신체건강 요인에서 ‘해로운 음식’ (78번)과 ‘안 좋은 식습관’ (79번) 두 개의 문항을 하나의 문항으로 합쳤다. 구체적으로 영역별 주요 수정의견 반영결과는 다음과 같다.

- 자립의지 영역 : 5번 문항을 ‘나는 자립을 위해 정보탐색이나 새로운 시도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한다’로 수정하여 자립에 관한 적극적 태도를 반영하였다.
- 주거관리 영역 : 7번 문항은 포괄적 의미를 포함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 지원정보’ 대신 ‘주택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정책변동 정보’로 수정하였다. 9번 문항은 일 자리를 구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시키고자 ‘일자리를 갖고 있다’를 ‘일자리를 갖고 있거나 구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으며, 10번 문항은 점검사항들의 예시를 추가하여 ‘기본사항들(냉난방, 누수, 주변환경 등)’로 수정하였고, 13번 문항은 하위요소를 ‘집구하기’에서 ‘집관리’로 이동하였다. 15번 문항은 ‘막힌 하수구를 뚫는 것’이 직접 하기에는 좀 어려운 작업일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대변기를 뚫는

등' 으로 수정하였다.

- 일상생활기술 영역 : 16번 문항은 18번 문항과 겹칠 수 있어 차별화를 위해 '기본 음식을 만들 수 있다' 를 '다른 도움(레시피, 친구 등) 없이 혼자서' 로 수정하였다. 17번 문항은 '필요한 영양소를 고려하여 식단(음식메뉴)을 준비할 수 있다' 로 수정하여 의미를 분명히 하고자 하였으며, 18번 문항은 16번 문항과 같은 이유로 '조리방법을 모르는 음식은 레시피를 활용해서 만들 수 있다' 로 수정하여 의미가 겹치지 않도록 하였다. 21번 문항은 '설거지' 를 '설거지나 잔반(음식물 찌꺼기) 처리' 로 범위를 확대 수정하였다.
- 직업역량 영역 : 30번 문항은 적성을 강조하여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를 '나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로 수정하였다. 33번 문항은 '일에 대한' 을 '적절한 직업선택에 대한' 으로 수정하여 직업선택을 강조하였다. 38번 문항은 의무를 추가하여 '권리' 를 '권리와 의무' 로 수정하였으며, 40번 문항은 대상을 넓혀 '직장상사' 를 '직장상사나 동료, 고객 등' 으로 수정하였다.
- 경제적관리 영역 : 45번 문항은 '근거절약' 을 좀 구체화하여 '수입을 고려하여 돈을 지출한다' 로 수정하였고, 48번 문항은 53번 문항과 중복의 여지가 있어 돈을 빌리는 다양한 방법들의 예시 중에 '친구' 를 제외하였다. 51번 문항은 '신용등급이 낮아지는지' 를 '신용등급이 높아지거나 낮아지는지' 로 수정하여 범위를 넓혔으며, 53번 문항은 친구 간의 무분별한 돈거래 여부를 확인하고자 빌리는 것에 빌려주는 것까지 포함하였다. 54번 문항은 실제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자립준비 단계에서는 쉽지 않아 '가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로 수정하여 앞으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하위요소도 '돈관리' 에서 '안전관리' 로 변경하였다. 56번 문항은 금융사기의 예시(보이스피싱, 휴대폰 명의도용 등)를 추가하였다.
- 사회적기술 영역 : 시간관리 요소로 시간계획의 중요성이 제안되었기 때문에 신규문항으로 '시간계획(일, 휴식, 자기개발)을 세워 수시로 점검한다' 를 추가하였으며, 나머지는 간단한 문맥 수정을 하였다.
- 자원활용 영역 : 75번 문항은 74번과 중복될 수 있어 경제적 도움을 강조하여 '아프거나 갑작스런 사고가 났을 때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가족, 친척, 친구, 지인 등)' 으로 수정하였다. 국가의 경제적 지원 정보가 중요하다는 제안에 따라 신규문항으로 '정부나 지자체(시도)에서 제공하는 경제적 지원(공공부조, 긴급복지지원, 청년우대 금융상품 등) 정보를 알고 활용할 수 있다' 을 추가하였다.
- 자기보호 영역 : 질병치료의 중요성이 제안되어 신규문항으로 '질병이 발생할 경우

의료시설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를 추가하였다. 78번과 79번 문항이 중복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건강에 해로운 음식이나 안 좋은 식습관(야식, 과식, 폭식)을 피하고 있다’ 로 합쳐서 수정하였다. 85번 문항은 84번과 임신 관련 내용이 중복될 수 있어 ‘임신에 대한’ 을 ‘성폭력(성추행, 성희롱 등) 가해나 피해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으로 수정하였다.

- 자기개발 영역 : 89번 문항은 역량개발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자립에 초점을 두기 위해 ‘자립에 필요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취미, 특기, 적성을 개발하고 있다(예: 운전, 요리, 그림 등)’ 로 수정하였다.

<표 18> 내용타당도 검토결과

영역	하위 요인	질문 유형 (KSA)	번호	평가문항	CVI	검토의견 반영
자립 의지	자립동기	태도	1	나는 자립하려고 하는 동기가 뚜렷하다	0.88	동기 → 의지로 수정 : 나는 자립하고자 하는 의지가 뚜렷하다
	목표의식	태도	2	나는 자립을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목표나 계획이 있다	0.98	
	실천여부	태도	3	나는 자립계획에 따라 자립준비를 실천하고 있다	0.88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있다’로 수정
	어려움 극복	기술	4	나는 자립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참고 이겨낼 자신이 있다	0.95	하위요소 변경 : 어려움극복 → 인내심 KSA 변경 : 기술 → 태도
	적극성/도전성	태도	5	나는 어떤 일을 하다가 안 되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도전하는 적극성이 있다(예: 취업, 자격증, 기술습득)	0.75	• KSA수정 : 적극성/도전성 → 적극성 • 자립에 관한 적극적 태도를 반영하여 수정 : 나는 자립을 위해 정보탐색이나 새로운 시도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한다
주거 관리	주거마련 준비	기술	6	나는 집을 얻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시기, 지역, 예산)을 갖고 있다	0.83	
		지식	7	나는 정부의 주택임대 지원 정보를 수시로 찾아서 확인하고 있다	0.75	포괄적 의미로 수정 : 주택임대 지원 정보 → 주택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정책변동 정보
		기술	8	나는 집을 구하는데 필요한 보증금(목돈)을 모으고 있다	1.00	
		기술	9	나는 안정적으로 월세를 낼 수 있는 일자리를 갖고 있다	0.95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일자리를 갖고 있다 → 일자리를 갖고 있거나 구할 수 있다

영역	하위 요인	질문 유형 (KSA)	번호	평가문항	CVI	검토의견 반영
	집구하기	지식	10	나는 집을 구할 때 점검해야 할 기본사항들을 알고 있다	0.98	점검사항들의 예시 추가: 기본사항들(냉난방, 누수, 주변환경 등)
		지식	11	나는 집을 계약할 때 주의해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알고 있다	0.98	
		지식	12	나는 집을 구한 직후(주택임대 계약) 임대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0.95	
		지식	13	나는 집을 구한 후 하자 발견시 대처방법을 알고 있다	0.95	
	집관리	지식	14	나는 주거시 납부해야할 공과금의 종류와 납부방법을 알고 있다	0.93	
		기술	15	나는 형광등을 갈거나 막힌 하수구를 뚫는 등 간단한 보수유지 방법을 알고 있다	0.90	좀 더 쉬운 작업으로 수정 : 하수구를 뚫는 등 → 대변기를 뚫는 등
일상 생활 기술	음식관리	기술	16	나는 밥과 밑반찬 등 기본 음식을 조리할 수 있다	0.80	18번과 차별화: 나는 밥과 밑반찬 등의 기본 음식은 다른 도움(레시피, 친구 등) 없이 혼자서 조리할 수 있다
		기술	17	나는 식생활 건강에 필요한 영양식단을 짤 수 있다	0.70	문구수정 : 나는 필요한 영양소를 고려하여 식단(음식메뉴)을 준비할 수 있다 KSA 수정 : 기술 → 지식
		기술	18	나는 레시피(조리방법) 등을 활용하여 음식을 만들 수 있다	0.85	16번과 차별화 : 나는 (조리방법을 모르는 음식은) 레시피 ~
		태도	19	나는 조리가 어려운 경우, 반찬가게나 배달음식(밀키트 등) 등을 활용해 적절히 영양섭취를 하고 있다	0.85	
		지식	20	나는 음식물 종류에 맞는 보관방법(냉동, 냉장 등)을 알고 있다	0.95	
	주방관리	태도	21	나는 식사 후 설거지를 미루지 않고 곧장 한다	0.75	잔반처리 포함하여 수정 : 설거지나 잔반(음식물 찌꺼기) 처리를 잘 미루지 않는다
		기술	22	나는 식기 건조, 행주 살균, 씹크대 및 환풍기 청소 등 주방 위생정결에 신경을 쓴다	0.88	• 환풍기 → 주방후드(환풍시설)로 수정, • 위생정결에 신경을 쓴다 → 위생정결 방법을 알고 실천한다
	청소/세탁	기술	23	나는 분리수거 방법에 따라 쓰레기(음식물, 재활용품 등)를 처리한다	0.93	
		태도	24	나는 평소에 집안 청소와 정리정돈을 미루지 않고 깔끔하게 하는 편이다	0.78	
		지식	25	나는 옷 종류에 맞게 세탁, 건조, 보관을 한다	0.93	KSA 수정 : 지식 → 기술

영역	하위 요인	질문 유형 (KSA)	번호	평가문항	CVI	검토의견 반영
	안전관리	태도	26	나는 외출할 때 가스불이나 전기스위치 차단(off) 등 화재안전 상태를 항상 점검 한다	0.95	
		태도	27	나는 취침시나 외출시 문단속(창문, 현관 문)을 철저히 한다	0.93	
직업 역량	직업조사	태도	28	나는 관심 갖고 있는 직업을 구하기 위해 직업정보사이트(워크넷, 커리어넷 등)나 인터넷 자료 등을 통해 수시로 직업정보를 알아본다	0.95	관심 갖고 있는 → 관심 있는 직업정보사이트 → 직업정보사이트
		태도	29	나는 직업인을 만나거나 직업체험을 통해 관심있는 직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아본다	0.88	직업인 →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
		태도	30	나는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전문가에게 상담이나 조언을 듣는다	0.93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 나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직업선택	지식	31	나는 나의 관심과 적성에 맞는 직업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0.90	
		지식	32	나는 원하는 직업의 자격요건(학력, 자격증, 기술 등)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0.95	
		태도	33	나는 긍정적인 취업경험을 통해 일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	0.75	일에 대한 → 적절한 직업선택에 대한
	직업훈련	지식	34	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정부의 직업훈련 서비스들에 대해 알고 있다.	0.93	
		태도	35	나는 원하는 직업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자격증, 교육훈련, 일경험 등)	0.98	
	구직기술	기술	36	나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제대로 작성 할 수 있다	1.00	
		기술	37	나는 채용면접 준비와 효과적인 면접방법을 알고 있다	0.90	채용면접 → 면접
	직장적응	지식	38	나는 기본적인 근로자의 권리를 알고 있다	0.95	권리 → 권리와 의무
		지식	39	나는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등 직장에서 불합리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0.98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 대처방법
		기술	40	나는 직장 상사와 마찰이 생겼을 때 원만하게 해결할 자신이 있다	0.98	직장 상사 → 직장상사나 동료, 고객 등
		지식	41	나는 직장 내에서 성추행이나 언어폭력 등의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1.00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 대처방법

영역	하위 요인	질문 유형 (KSA)	번호	평가문항	CVI	검토의견 반영
		태도	42	나는 직장에서 불가피하게 지각을 하거나 결근을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1.00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 대처방법 KSA 수정 : 태도 → 기술
경제적 관리	지출관리	태도	43	나는 물건을 사기 전에 가격과 품질을 신중하게 비교해본다	0.90	
		태도	44	나는 충동구매를 하지 않는다	0.80	
		태도	45	나는 내 수입에 맞게 근검절약하는 편이다	0.85	내 수입에 맞게 근검절약하는 편이다 → 수입을 고려하여 돈을 지출한다
	수입관리	태도	46	나는 매달 저축이나 적금을 하고 있다	0.90	
		지식	47	나는 정부나 지자체의 청년우대 금융상품(청년내일채움공제, 서울청년수당 등) 정보를 알고 있다	1.00	
	대출관리	지식	48	나는 돈을 빌리는 다양한 방법들(친구, 은행, 대부업체, 학자금대출 등)의 장단점에 대해 알고 있다	1.00	친구 제외 : 다양한 대출 방법들(은행, 대부업체, 학자금대출 등) 각각의 장단점을 알고 있다
		지식	49	나는 불법 대부업체로부터 받는 대출의 위험성을 알고 있다	0.98	
		태도	50	나는 휴대폰 소액결제를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는다	0.85	하위요소 이동 : 대출관리 → 지출관리
	신용관리	지식	51	나는 어떤 경우에 신용등급이 낮아지는지 알고 있다	0.93	낮아지는지 → 높아지거나 낮아지는지
		태도	52	나는 갚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지출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만들지 않거나 카드사용을 통제하고 있다	0.93	통제 → 억제
		태도	53	나는 아무리 친한 관계라도 함부로 돈을 빌리지 않는다	0.83	빌리지 → 빌리거나 빌려주지
	돈 관리	태도	54	나는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에 대비해서 보험(실비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다	0.88	~가입되어 있다 → ~가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하위요소 이동 : 돈관리 → 안전관리)
		태도	55	나는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기 위해 가계부를 작성하고 있다	0.95	
		지식	56	나는 보이스피싱 등의 전자금융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는 대처요령을 알고 있다	0.93	금융사기 예시 추가 : 나는 전자금융사기 피해(보이스피싱, 휴대폰 명의도용 등)를 당하지 않기 위한 대처요령을 알고 있다
사회적 기술	용모/위생 관리	태도	57	나는 경우에 맞는 단정한 옷차림을 할 줄 안다(초대, 면접, 행사 등)	0.90	문맥수정 : 나는 상황(초대, 면접, 행사 등)에 맞는 단정한 옷차림을 할 줄 안다
		태도	58	나는 규칙적으로 개인위생을 청결히 한다(샤워, 양치질, 손톱발톱 손질, 미용 등)	0.93	

영역	하위 요인	질문 유형 (KSA)	번호	평가문항	CVI	검토의견 반영	
	의사소통	기술	59	나는 생각이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적절하게 표현한다	0.95	표현한다 → 표현할 수 있다	
		태도	60	나는 다른 사람의 충고를 기분 상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다	0.80	충고 → 충고나 조언	
	관계형성	기술	61	나는 건전한 대인관계를 맺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	0.83		
		기술	62	나는 다른 사람의 부탁을 기분 나쁘지 않게 거절할 수 있다	0.88		
		기술	63	나는 다른 사람과 갈등이 있을 때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	0.95		
	예절	태도	64	나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본 예절(인사, 높임말 등)을 잘 지킨다	0.93		
		태도	65	나는 남에게 대접받거나 도움을 받으면 반드시 감사의 표현을 하거나 갚으려고 한다	0.90	문맥수정 : 나는 남에게 신세를 지면 감사의 표현을 하고, 반드시 신세를 갚는다. (하위요소 이동 : 예절 → 관계형성)	
	시간관리	태도	66	나는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0.78		
		태도	67	나는 다른 사람과의 시간 약속을 잘 지킨다	0.95		
		태도	68	나는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고 그때 그때 처리한다	0.90		
		태도	-	나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시간계획(일, 휴식, 자기개발 등)을 세워 수시로 점검한다	-	신규 문항 추가	
	규범준수	태도	69	나는 조직의 규칙이나 사회의 공중도덕을 잘 지킨다	0.88		
		태도	70	나는 법을 잘 준수한다	0.90		
	자원 활용	공식자원	기술	71	나는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등)을 이용해 원하는 목적지에 잘 찾아가갈 수 있다	0.90	
			기술	72	나는 공공기관(주민센터, 시군구청 등)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필요한 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0.93	
			기술	-	나는 정부나 지자체(시·도)에서 제공하는 경제적 지원(공공부조, 긴급복지지원, 청년우대 금융상품 등) 정보를 알고 활용할 수 있다	-	신규 문항 추가
기술			73	나는 공공시설(병원, 도서관, 은행, 문화센터 등)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다	0.93	문맥수정 : 나는 공공시설(병원, 은행, 도서관 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영역	하위 요인	질문 유형 (KSA)	번호	평가문항	CVI	검토의견 반영
비공식 자원		기술	74	나는 외롭거나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전화나 SNS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친구, 지인)이 있다	0.93	소통할 수 → 편하게 소통할 수
		기술	75	나는 아프거나 긴급한 어려움이 생겼을 때 부담없이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친구, 지인 등)이 있다	0.88	74번과 차별화 : 나는 아프거나 갑작스런 사고가 났을 때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가족, 친척, 친구, 지인 등)이 있다
		기술	76	나는 취미나 관심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지역모임(동호회, 종교시설 등)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다	0.85	지역모임 → 모임
자기 보호	신체건강	태도	77	나는 매주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신체건강을 관리하고 있다	0.93	
		기술	78	나는 건강에 해로운 음식을 잘 먹지 않는다	0.68	78, 79번 합침 : 나는 건강에 해로운 음식이나 안 좋은 식습관(야식, 과식, 폭식)을 피하고 있다 KSA 수정 : 기술 → 태도
		기술	79	나는 좋지 않은 식습관(야식, 과식, 폭식)을 피하고 있다	0.83	78, 79번 합침 : 나는 건강에 해로운 음식이나 안 좋은 식습관(야식, 과식, 폭식)을 피하고 있다 KSA 수정 : 기술 → 태도
		태도	-	나는 질병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의료시설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	신규 문항 추가
		기술	80	나는 기본적인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 (예: 상처, 벌레물림, 가벼운 통증 등)	0.98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 →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안전비상약품 사용법을 알고 있다(예: 발열, 근육통, 상처, 벌레물림 등)
	정신건강	기술	81	나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나만의 대처방법이 있다	0.98	나만의(삭제)
		지식	82	나는 우울, 불안 등 심리적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의 정보를 알고 있다	1.00	
		태도	83	나는 중독증상을 일으킬만한 물질이나 매체(온라인게임, 영상물, 술, 담배 등)의 사용을 조절할 수 있다.	0.95	문맥 수정 : 나는 중독증상을 일으킬만한 물질(술, 담배, 약물 등)이나 매체(온라인게임, 영상물 등)의 사용을 조절할 수 있다.
	성보호	지식	84	나는 예기치 않은 임신 예방을 위한 피임방법을 알고 있다	0.90	
		지식	85	나는 임신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고 있다	0.85	내용 수정 : 나는 성폭력(성추행, 성희롱 등) 가해나 피해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기본 지식을 갖고 있다

영역	하위 요인	질문 유형 (KSA)	번호	평가문항	CVI	검토의견 반영
		지식	86	나는 성병 예방 방법을 알고 있다	0.95	성병 예방 → 성병 예방과 치료
자기 계발	학업	태도	87	나는 학력취득이나 상급학교 진학을 준비하고 있다	0.78	
	자격시험	지식	88	나는 원하는 자격증 취득에 대비한 시험준비 요령을 알고 있다	0.85	하위요소 수정 : 자격시험 → 직업
	역량개발	태도	89	나는 개인의 역량개발을 위해 공부를 계속하고 있다	0.88	내용 수정 : 나는 자립에 필요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취미, 특기, 적성을 개발하고 있다(예: 운전, 요리, 그림 등)

5. 예비조사 결과

예비조사 문항은 2021년 9월 10일부터 15일까지 19~21세 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pilot 테스트를 시행하였다. pilot 테스트는 응답자인 청소년들이 문항을 잘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는지, 현실성이 떨어지는 문항은 없는지 등을 체크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보다 포괄적 의미 단어는 괄호에 일부 예시를 두어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수정 및 보완하였다. 예를 들어 주거관리 요인 문항 중 ‘나는 집을 구할 때 점검해야 할 기본사항들을 잘 알고 있다’ 라는 문항에서 청소년들은 점검해야 하는 기본사항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예시를 써 주시면 더 좋을 듯 하다는 의견에 대해 ‘나는 집을 구할 때 점검해야 할 기본사항들(냉난방, 누수, 주변환경)을 잘 알고 있다’ 등으로 수정하였다.

6. 본조사 결과

본조사는 예비조사 결과를 통해 수정·보완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2021년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실시되었다. 조사 대상은 자립준비도 척도 사용이 요구되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중장기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의 가정 밖 청소년, 아동양육시설, 아동청소년공동생활가정 등에서 생활하는 가정외보호청소년, 보호종료아동, 범법청소년을 지원하는 청소년자립생활관에서 생활하는 만 17~24세 청소년 중 연구참여에 동의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설문 참여자 466명 중 문항 답변을 완료하지 않은 청소년 38명을 제외한 428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활용되었다. 연구방법에서 기 기술한 절차대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문항 분석

척도 검증에 대한 연구방법에 근거하여 문항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문항들의 평균 분포는 최저 2.36 ~ 최대 3.51로 나타났다. 문항들의 평균값이 3.5점 이상인 문항과 평균값이 1.5점 이하인 문항은 삭제 기준인데 이러한 기준에 해당하는 문항은 f9 문항이다. 또한 개별문항과 전체문항의 상관은 최저 .437에서 최대 .729의 분포를 보였다.

<표 19> 각 문항의 평균, 문항과 전체의 상관계수

문항	평균	표준편차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계수	항목 삭제시 Cronbach α
a1	3.39	0.75	.535	.981
a2	2.96	0.86	.682	.981
a3	2.80	0.90	.674	.981
a4	3.09	0.82	.649	.981
a5	3.01	0.85	.719	.981
b1	2.42	0.96	.577	.981
b2	2.36	1.01	.547	.981
b3	2.49	1.05	.477	.982
b4	2.63	1.00	.558	.981
b5	2.81	0.97	.599	.981
b6	2.52	0.99	.651	.981
b7	2.30	1.01	.607	.981
b8	2.45	0.98	.610	.981
b9	2.53	1.04	.549	.981
b10	2.91	0.94	.622	.981
c1	3.14	0.86	.515	.982
c2	2.88	0.90	.633	.981
c3	3.38	0.72	.517	.982
c4	3.20	0.82	.545	.981
c5	3.25	0.73	.647	.981
c6	3.12	0.89	.534	.981
c7	3.10	0.83	.706	.981

문항	평균	표준편차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계수	항목 삭제시 Cronbach α
c8	3.32	0.72	.618	.981
c9	3.04	0.87	.580	.981
c10	3.10	0.80	.675	.981
c11	3.18	0.84	.581	.981
c12	3.40	0.71	.565	.981
c13	3.26	0.71	.563	.981
d1	2.82	0.91	.678	.981
d2	2.72	0.92	.674	.981
d3	2.68	0.92	.584	.981
d4	2.93	0.86	.678	.981
d5	3.04	0.83	.691	.981
d6	2.75	0.94	.729	.981
d7	2.66	1.01	.525	.982
d8	2.79	0.93	.580	.981
d9	2.71	0.87	.695	.981
d10	2.63	0.91	.684	.981
d11	2.93	0.84	.725	.981
d12	2.84	0.90	.682	.981
d13	2.92	0.78	.715	.981
d14	3.14	0.81	.658	.981
d15	3.02	0.84	.690	.981
e1	3.30	0.74	.567	.981
e2	2.84	0.93	.508	.982
e3	3.06	0.84	.596	.981
e4	3.43	0.83	.410	.982
e5	2.80	1.01	.527	.982
e6	2.48	1.01	.622	.981
e7	2.58	1.02	.647	.981
e8	3.38	0.82	.500	.982
e9	2.87	0.98	.671	.981
e10	3.33	0.76	.468	.982
e11	3.17	0.81	.484	.982
e12	2.37	1.10	.522	.982
e13	3.24	0.84	.636	.981

문항	평균	표준편차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계수	항목 삭제시 Cronbach α
f1	3.34	0.70	.647	.981
f2	3.41	0.66	.623	.981
f3	3.19	0.77	.652	.981
f4	3.15	0.75	.616	.981
f5	3.09	0.84	.657	.981
f6	3.04	0.84	.677	.981
f7	3.12	0.80	.696	.981
f8	3.40	0.66	.631	.981
f9	3.51	0.61	.579	.981
f10	2.90	0.94	.662	.981
f11	3.26	0.76	.643	.981
f12	2.87	0.90	.680	.981
f13	2.90	0.95	.713	.981
f14	3.36	0.68	.634	.981
f15	3.42	0.66	.575	.981
g1	3.49	0.62	.529	.982
g2	3.40	0.78	.605	.981
g3	2.81	0.99	.692	.981
g4	3.37	0.76	.620	.981
g5	3.37	0.79	.561	.981
g6	3.24	0.83	.475	.982
g7	2.58	1.15	.530	.982
h1	2.67	1.00	.591	.981
h2	2.81	0.93	.615	.981
h3	3.37	0.70	.629	.981
h4	3.28	0.77	.678	.981
h5	3.12	0.88	.621	.981
h6	3.10	0.86	.660	.981
h7	3.25	0.82	.512	.982
h8	3.47	0.70	.575	.981
h9	3.45	0.66	.638	.981
h10	3.18	0.86	.629	.981
i1	2.66	1.11	.377	.982
i2	2.96	0.87	.647	.981
i3	3.12	0.84	.682	.981

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문항분석 이후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최종 분석결과, 청소년 자립준비도 척도 문항들은 자료에 대한 표본적절성 측정치인 KMO 값이 .964로 좋은 값을 나타냈다. 또한 Bartlett의 구형성 검증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p < .001$) 자료가 요인분석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적절한 분포를 보였다. 고유치, 누적설명변량비율, 스크리 검정, 공통성, 요인부하계수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11개의 요인으로 구성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보다 적절한 문항 선정을 위해 반복적인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요인부하계수의 기준인 .40 이상인 문항을 채택하였다. 문항 채택과정에서 요인부하계수가 낮은 문항인 b1, b3, b4, c13, d5, d10, d12, e6, e7, e8, e9, e10, e11, e12, e13, f15, g3, h4, h6, i1, i3의 21개 문항이 제거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 청소년 자립준비도 척도는 총 11개 요인, 74개의 문항을 선정할 수 있었다.

<표 20>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f7	.751	.158	.177	.124	.156	.225	.113	.115	.102	.147	.117
f4	.667	.210	.098	.081	.117	.047	.176	.131	.262	.102	.035
f6	.655	.153	.147	.182	.036	.192	.240	.110	.213	.068	.196
f3	.630	.128	.150	.132	.270	.165	.051	.109	.110	.193	.158
f5	.617	.108	.196	.139	.199	.201	-.042	.156	.136	.192	.252
f10	.531	.204	.280	.186	.165	.173	.193	.141	-.119	.061	.289
f8	.516	.159	.201	.036	.400	.076	.118	.145	.304	.100	-.063
f12	.502	.310	.386	.126	.116	.140	.205	.118	-.104	-.021	.331
f11	.495	.193	.343	.041	.154	.165	.334	.059	.211	.032	.053
f2	.457	.107	.344	.074	.329	.036	.274	.047	.261	.160	-.052
f13	.454	.335	.365	.162	.086	.067	.251	.213	.011	-.014	.318
f14	.438	.211	.252	.057	.375	.109	.321	.077	.231	-.011	-.091
f1	.437	.199	.142	.055	.349	.159	.147	.142	.279	.190	.043
d3	.107	.732	.088	.181	.077	.100	.080	.109	.079	.097	.106
d2	.158	.692	.150	.200	.166	.107	.113	.166	.075	.106	.130
d8	.143	.686	.103	.102	-.003	.145	.118	.124	.101	.175	.098
d7	.009	.650	.049	.255	.062	.191	.156	.087	.034	.020	.051
d5	.271	.584	.190	.154	.251	.155	.030	.211	.202	.112	-.034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d1	.174	.577	.212	.181	.245	.023	.171	.095	.151	.096	.221
d4	.321	.571	.095	.159	.216	.199	.056	.215	.133	.081	.034
d6	.330	.556	.148	.221	.153	.255	.123	.202	.067	.081	.130
d9	.157	.469	.173	.213	.108	.440	.178	.213	-.012	.095	.238
i2	.169	.463	.124	.078	.200	.118	.200	.149	.251	.163	.231
c6	.172	.120	.754	.091	.034	.121	.069	.137	.013	.137	.147
c9	.222	.084	.709	.192	.117	.034	.159	.140	-.015	.110	.179
c7	.281	.150	.679	.179	.123	.219	.121	.114	.153	.212	.146
c8	.145	.105	.621	.075	.207	.216	.162	.133	.221	.230	.014
c10	.233	.127	.617	.207	.130	.148	.216	.142	.056	.242	.169
c12	.144	.213	.587	.096	.191	.116	.171	-.046	.396	.126	-.125
c11	.112	.306	.536	.141	.079	.067	.205	.027	.388	.091	-.038
b9	.041	.204	.056	.806	.127	.143	.069	.162	.073	.077	-.019
b6	.171	.239	.165	.798	.052	.184	.084	.123	.087	.078	.081
b7	.145	.251	.106	.788	.011	.127	.130	.153	.005	.063	.139
b5	.124	.110	.189	.745	.197	.176	.026	.082	.129	.141	.019
b8	.149	.178	.093	.728	.020	.235	.088	.095	.113	.115	.194
b2	.067	.384	.121	.571	.045	-.097	.060	.277	-.017	.128	.144
b10	.093	.099	.215	.442	.230	.353	.073	.088	.086	.274	.225
g2	.110	.172	.133	.150	.763	.153	.123	.154	.073	.111	.070
g1	.130	.041	.068	.059	.703	.121	.233	.170	.151	.200	-.019
g4	.127	.206	.120	.105	.698	.190	.099	.167	.175	.028	.140
g5	.418	.135	.126	.161	.549	-.026	-.067	.107	.029	.217	.143
h3	.266	.091	.234	.027	.520	.153	.102	.087	.358	.108	.255
g6	.310	.203	.007	.032	.514	.097	.077	-.133	.099	.107	.209
d12	.200	.214	.134	.284	.164	.658	.116	.149	.108	.117	.159
d11	.165	.333	.218	.215	.187	.639	.134	.179	.125	.090	.139
d15	.279	.265	.225	.255	.232	.604	.057	.097	.104	.075	.054
d13	.425	.219	.149	.208	.159	.583	.100	.171	.084	.198	.070
d10	.153	.457	.116	.255	.054	.557	.065	.140	.038	.156	.272
d14	.283	.200	.213	.224	.267	.531	.002	.015	.259	.166	.044
e3	.131	.179	.195	.100	.165	.083	.751	.145	.085	.131	.131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e2	.180	.165	.199	.088	.037	.047	.721	.048	.037	.096	.163
e5	.125	.209	.109	.187	.005	.011	.590	.173	.135	.075	.188
e4	.134	.000	.093	-.048	.351	.142	.559	.185	.068	.121	-.122
e1	.157	.223	.268	.152	.189	.080	.496	-.065	.304	.169	-.056
a1	.135	.171	.067	.184	.148	.101	.085	.736	.161	.106	.014
a2	.164	.374	.172	.266	.119	.163	.154	.652	.026	.052	.116
a5	.212	.357	.199	.249	.178	.096	.096	.633	.128	.103	.146
a3	.172	.392	.190	.278	.110	.138	.181	.616	-.047	.058	.123
a4	.231	.247	.138	.168	.155	.203	.202	.553	.075	.164	.109
h8	.270	.079	.054	.067	.361	.085	.161	.173	.601	.252	-.036
h7	.168	.211	.174	.050	.156	.023	.176	.045	.572	.053	.219
h10	.334	.111	.094	.182	.178	.208	.103	.130	.521	.129	.233
h9	.370	.059	.165	.134	.400	.185	.066	.042	.521	.138	.117
h6	.279	.300	.216	.197	.312	.148	-.036	.075	.409	-.022	.306
c1	.203	.172	.146	.138	.198	.065	.142	-.010	-.056	.753	.073
c3	.146	.119	.182	.082	.268	.071	.097	.085	.196	.719	-.073
c2	.154	.259	.284	.222	.032	.150	.171	.100	.024	.619	.201
c5	.192	.087	.351	.158	.092	.242	.135	.186	.291	.581	.049
c4	.043	.141	.157	.187	.122	.156	.087	.219	.299	.492	.132
h1	.191	.194	.130	.190	.045	.197	.176	.141	.111	.040	.680
h2	.137	.191	.315	.139	.184	.161	.223	.030	.152	.041	.608
g7	.257	.317	-.048	.126	.151	.112	-.028	.137	.082	.153	.534
h5	.348	.169	.223	.175	.394	.045	.003	.012	.175	.110	.423

<표 21> 설명된 총분산

성분	초기 고유값 / 추출 제곱합 로딩			회전 제곱합 로딩		
	총계	분산의 %	누적률 (%)	총계	분산의 %	누적률 (%)
1	29.496	40.405	40.405	6.745	9.239	9.239
2	4.184	5.732	46.138	6.581	9.015	18.255
3	2.503	3.429	49.566	5.293	7.251	25.505
4	2.344	3.210	52.777	5.280	7.232	32.738
5	2.119	2.903	55.680	4.983	6.827	39.564

성분	초기고유값 / 추출 제공합 로딩			회전 제공합 로딩		
	총계	분산의 %	누적률 (%)	총계	분산의 %	누적률 (%)
6	1.601	2.193	57.873	3.829	5.245	44.810
7	1.522	2.086	59.959	3.478	4.765	49.574
8	1.414	1.937	61.896	3.309	4.533	54.108
9	1.357	1.859	63.755	3.294	4.512	58.620
10	1.301	1.783	65.538	3.221	4.413	63.032
11	1.120	1.534	67.072	2.949	4.040	67.072

<표 22> 요인별 문항수 및 신뢰도

구분	합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요인	6 요인	7 요인	8 요인	9 요인	10 요인	11 요인
문항수	74	14	10	7	7	6	6	5	5	5	5	4
Cronbach's α	.978	.937	.918	.903	.915	.856	.914	.808	.903	.835	.855	.783

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다음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로 도출된 74개 문항의 확인적 요인 분석의 초기 적합도 지수 값은 <표 23>과 같다.

<표 23> 청소년 자립준비도 척도 최초모형의 χ^2 통계량과 적합도 지수

χ^2	df	p	RMSEA	90% CI RMSEA	CFI	TLI	IFI
6902.362	2645	.000	.059	.057- .061	.819	.805	.820

최초 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항을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적합도 지수를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즉 표준화람다 계수가 낮아 요인별 AVE 값에 영향을 미치는 문항과 적합도 지수를 향상시키기 위해 한 요인에 많은 문항이 구성된 경우 문항의 내용 타당도를 확인하여 제거한 것이다. 청소년 자립준비도 예비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11개 요인 43개 문항으로 구성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였다. 확인적 요인 분석의 결과에서 30문항, 즉 a1, b2, b7, b10, c1, c4, c6, c8, c12, d3, d7, d8, d11, d13, d14, d15, e4, f2, f4, f6, f7, f8, f10, f12, f13, g5, g6, g7, h7, i2 문항이 제거되었다. 선정된 문항의 표준화 람다값은 .679~.915로 나타나 Bagozzi, Yi 그리고 Phillips(1991)가 제시하고 있는

.50 이상 .95 이하 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적 요인분석의 적합도 지수를 검토한 결과, 청소년 자립준비도 척도 요인 구조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표 24>이 초기 적합도 지수인 <표 23>과 비교해 볼 때 적합도 지수가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NFI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CFI가 .901, 요인분석을 위해 개발된 TLI 지수가 .883, IFI도 .901로 .90 이상으로 나타나 실제 자료가 모델에 적합함을 보여준다. 또한 RMSEA도 .057로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들을 볼 때, 청소년 자립준비도 척도는 교차타당도가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24> 청소년 자립준비도 척도 수정모형의 χ^2 통계량과 적합도 지수

χ^2	df	p	RMSEA	90% CI RMSEA	CFI	NFI	TLI	IFI
2018.082	805	.000	.057	.054- .060	.901	.847	.883	.902

확인적 요인분석 이후 척도의 신뢰성과 타당성에 대해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43개의 관측변수들의 C.R.은 최소값 12.757, 최대값 25.200으로서 유의수준 1%의 C.R.인 2.58보다 크기 때문에 관측변수가 잠재변수를 제대로 측정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43개의 관측변수의 표준화 람다는 .619~.915로 최소기준인 .5 이상을 만족하기 때문에 수렴 타당성이 인정된다. 셋째, 11개의 잠재변수 각각의 개념 신뢰성은 .7을 모두 초과하고 있고, AVE는 잠재변수 모두 .5를 초과하고 있어 수렴타당도가 있다고 판단된다.

<표 25> 청소년 자립준비도 척도의 CFA 모형을 통한 잠재변수들의 신뢰성

잠재 변수	변수명	비표준화 람다	S.E.	C.R.	표준화 람다	표준화 람다제곱	오차 분석	AVE	개념 신뢰도
H2	h1	1			0.711	0.5055	0.4945	.531	.773
	h2	1.023	0.073	14.067	0.78	0.6084	0.3916		
	h5	0.859	0.067	12.757	0.694	0.4816	0.5184		
				합	2.185				
F	f5	1			0.745	0.5550	0.4450	.519	.843
	f3	0.921	0.06	15.358	0.745	0.5550	0.4450		
	f11	0.839	0.059	14.203	0.693	0.4802	0.5198		

잠재 변수	변수명	비표준화 람다	S.E.	C.R.	표준화 람다	표준화 람다제곱	오차 분석	AVE	개념 신뢰도
	f1	0.832	0.055	15.221	0.739	0.5461	0.4539		
	f14	0.741	0.053	13.903	0.679	0.4610	0.5390		
				합	3.601				
D	d1	1			0.71	0.5041	0.4959	.570	.869
	d2	1.034	0.07	14.843	0.743	0.5520	0.4480		
	d4	0.984	0.065	15.052	0.753	0.5670	0.4330		
	d6	1.155	0.071	16.16	0.808	0.6529	0.3471		
	d9	1.003	0.066	15.145	0.758	0.5746	0.4254		
					3.772				
B	b9	1			0.806	0.6496	0.3504	.695	.901
	b6	1.082	0.049	22.115	0.915	0.8372	0.1628		
	b5	0.945	0.049	19.122	0.817	0.6675	0.3325		
	b8	0.927	0.051	18.311	0.791	0.6257	0.3743		
				합	3.329				
C	c6	1			0.735	0.5402	0.4598	.598	.880
	c9	1.018	0.065	15.748	0.769	0.5914	0.4086		
	c7	1.123	0.062	18.21	0.886	0.7850	0.2150		
	c10	1	0.06	16.775	0.817	0.6675	0.3325		
	c11	0.822	0.064	12.943	0.638	0.4070	0.5930		
					3.845				
G	g2	1			0.764	0.5837	0.4163	.551	.830
	g5	0.874	0.065	13.352	0.656	0.4303	0.5697		
	g4	0.984	0.062	15.857	0.768	0.5898	0.4102		
	h3	0.922	0.058	16.024	0.775	0.6006	0.3994		
				합	2.963				
D2	d12	1			0.843	0.7106	0.2894	.697	.873
	d11	0.961	0.044	21.681	0.869	0.7552	0.2448		
	d13	0.811	0.043	18.937	0.79	0.6241	0.3759		
				합	2.502				
A	a3	1			0.884	0.7815	0.2185	.694	.900
	a2	0.955	0.038	25.2	0.883	0.7797	0.2203		
	a5	0.887	0.039	22.676	0.833	0.6939	0.3061		
	a4	0.742	0.041	17.892	0.723	0.5227	0.4773		

잠재 변수	변수명	비표준화 란다	S.E.	C.R.	표준화 란다	표준화 란다제공	오차 분석	AVE	개념 신뢰도
				합	3.323				
E	e3	1			0.846	0.7157	0.2843	.535	.820
	e2	1.018	0.06	16.907	0.774	0.5991	0.4009		
	e5	0.887	0.068	13.004	0.619	0.3832	0.6168		
	e1	0.696	0.049	14.189	0.666	0.4436	0.5564		
				합	2.905				
C2	c5	1			0.859	0.7379	0.2621	.591	.812
	c3	0.825	0.052	15.802	0.718	0.5155	0.4845		
	c2	1.029	0.065	15.886	0.721	0.5198	0.4802		
				합	2.298				
H	h8	1			0.778	0.6053	0.3947	.643	.844
	h9	1.035	0.057	18.293	0.862	0.7430	0.2570		
	h10	1.204	0.075	16.104	0.763	0.5822	0.4178		
				합	2.403				

* 각 영역의 하위영역 요인명은 최종척도구성 후 명명하였기에 잠재변수명을 알파벳으로 기재하였음. 최종요인명은 <표 28> 참조

또한 각 잠재변수들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SMC를 구하기 위해 잠재변수간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표 26 참고). SMC와 AVE를 대조한 결과 <표 27>와 같이 모두 AVE가 SMC보다 크기 때문(예를 들어, 잠재변수 A와 B의 상관계수 제공인 SMC .332보다 잠재변수 A의 AVE가 .694, B의 AVE가 .695로 AVE 값이 SMC 값보다 크다)에 모든 잠재변수들 간의 변별 타당성이 확인되었다.

<표 26> 잠재변수 간 상관관계

구분	A	B	C	C2	D	D2	E	F	H2	H	G
A	1										
B	.576**	1									
C	.560**	.484**	1								
C2	.524**	.479**	.637**	1							
D	.732**	.578**	.596**	.543**	1						
D2	.627**	.602**	.571**	.568**	.704**	1					

구분	A	B	C	C2	D	D2	E	F	H2	H	G
E	.524**	.396**	.575**	.510**	.572**	.471**	1				
F	.577**	.447**	.648**	.595**	.657**	.661**	.550**	1			
H2	.527**	.466**	.583**	.468**	.624**	.580**	.513**	.621**	1		
H	.464**	.415**	.505**	.546**	.532**	.554**	.461**	.692**	.510**	1	
G	.527**	.426**	.515**	.516**	.615**	.566**	.435**	.710**	.586**	.665**	1

**p<.01

<표 27> 청소년 자립준비도 척도의 CFA 모형을 통한 잠재변수들의 타당성

요인	AVE	변수 간	상관 계수	SMC	변수 간	상관 계수	SMC
H2	.531	A-B	.576	0.332	C2-D2	.568	0.323
F	.519	A-C	.560	0.314	C2-E	.510	0.260
D	.570	A-C2	.524	0.275	C2-F	.595	0.354
B	.695	A-D	.732	0.536	C2-H2	.468	0.219
C	.598	A-D2	.627	0.393	C2-H	.546	0.298
G	.551	A-E	.524	0.275	C2-G	.516	0.266
D2	.697	A-F	.577	0.333	D-D2	.704	0.496
A	.694	A-H2	.527	0.278	D-E	.572	0.327
E	.535	A-H	.464	0.215	D-F	.657	0.432
C2	.591	A-G	.527	0.278	D-H2	.624	0.389
H2	.643	B-C	.484	0.234	D-H	.532	0.283
		B-C2	.479	0.229	D-G	.615	0.378
		B-D	.602	0.362	D2-E	.471	0.222
		B-D2	.602	0.362	D2-F	.661	0.437
		B-E	.396	0.157	D2-H2	.580	0.336
		B-F	.477	0.228	D2-H	.554	0.307
		B-H2	.466	0.217	D2-G	.566	0.320
		B-H	.415	0.172	E-F	.550	0.303
		B-G	.426	0.181	E-H2	.513	0.263
		C-C2	.637	0.406	E-H	.461	0.213
		C-D	.596	0.355	E-G	.435	0.189
		C-D2	.571	0.326	F-H2	.621	0.386
		C-E	.575	0.331	F-H	.692	0.479

요인	AVE	변수 간	상관 계수	SMC	변수 간	상관 계수	SMC
		C-F	.648	0.420	F-G	.710	0.504
		C-H2	.583	0.340	H2-H	.510	0.260
		C-H	.505	0.255	H2-G	.586	0.343
		C-G	.515	0.265	H-G	.665	0.442
		C2-D	.543	0.295			

라. 최종척도 구성

모든 논리적, 통계적 분석과정을 완료한 후에 최종 추출된 요인을 대표할 수 있는 요인명을 명명하여 척도를 확정하였다. 청소년 자립준비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11개 요인 43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11개 요인은 각각 자립의지, 주거관리, 일상생활기술, 음식관리, 직업준비, 직장적응, 경제관리, 사회기술, 자원활용, 건강관리, 성보호로 명명되었다. 최종문항간 내적일치도는 .966(각 요인별 .768~.899)로 나타났다(표 28 참조).

<표 28> 청소년 자립준비도 척도 최종 요인 간 내적 일치도 계수

구분	전체	A	B	C	C2	D	D2	E	F	H2	H	G
		자립 의지	주거 관리	일상생활 기술	음식 관리	직업 준비	직장 적응	경제 관리	사회 기술	자원 활용	건강 관리	성 보호
문항수	43	4	4	5	3	5	3	4	5	4	3	3
Cronbach's α	.966	.898	.899	.854	.802	.870	.870	.802	.842	.841	.768	.798

7. 타당화 분석결과

최종 개정한 자립준비도 척도와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는 ‘진로준비행동’ 과 ‘진로자기효능감’ 척도를 준거 척도로 삼아 개발한 개정척도와 기존 척도와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표 29>에서와 같이 자립준비도 전체와 진로준비행동은 .709로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자립준비도 하위요인들과 진로준비행동과의 상관관계는 .436에서 .752 사이의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자립준비도 전체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846으로 높은 상관이 있었으며, 자립준비도 하위요인들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의 상관관계도 .506에서 .799 사이의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따라서 자립준비도 척도는 기존의 타당화된 척도인 진로준비행동 척도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척도와 모두 정적상관을 보여 공인타당도의 근거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표 29> 자립준비도, 진로준비행동, 진로자기효능감과의 상관관계

구분		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자립준비도		.709**	.846**
자립준비영역	A 자립의지	.628**	.697**
	B 주거관리	.434**	.508**
	C 일상생활기술	.503**	.600**
	C2 음식관리	.436**	.584**
	D 직업준비	.752**	.799**
	D2 직장적응	.575**	.720**
	E 경제관리	.448**	.536**
	F 사회기술	.587**	.765**
	H2 자원활용	.617**	.692**
	H 건강관리	.458**	.615**
G 성보호	.488**	.689**	

**p<.01

8. 최종문항 개발

최종문항은 11개 요인에 43문항이 선정되었다. 자립준비도 척도의 최종문항은 표 30과 같

다. 구성요소 및 문항수는 자립의지 4문항, 주거관리 4문항, 일상생활기술 5문항, 음식관리 3문항, 직업준비 5문항, 직장적응 3문항, 경제관리 4문항, 사회기술 5문항, 자원활용 4문항, 건강관리 3문항, 성보호 3문항, 총 43문항이다. 최종 도출된 문항을 근거로 각 요인의 개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자립의지 : 자립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세워, 자립정보 수집 및 자립실천 노력을 기울이며, 자립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곳곳이 견뎌내려는 내적 상태를 말함
- 주거관리 : 주거생활에 필요한 기본지식과 정보를 수집하여 집을 구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함
- 일상생활기술 : 가정 내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음식물 뒤처리와 설거지, 주방 정리와 위생청결, 집안청소 및 정리정돈, 세탁 및 보관, 외출시의 집단숙 및 안전상태를 유지·관리하는 기술을 말함
- 음식관리 :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영양식단을 준비하고, 음식을 조리하고, 음식물을 위생적으로 보관하는 것을 말함
- 직업준비 : 직업탐색 및 현장체험을 통해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직업을 알아보고 선택하여 구직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직업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함
- 직장적응 : 일터에서 직장상사나 동료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근로자로서의 기본적인 관리를 알고, 불합리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말함
- 경제관리 : 소득에 맞는 소비와 저축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는 것을 말함
- 사회기술 : 단정하고 청결한 용모를 가꾸어 긍정 이미지를 지니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고 타인과 사회와의 약속을 지키고 존중함으로써 신뢰를 쌓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여 책임성 있는 사회인으로 살아가는 능력을 말함
- 자원활용 : 공공행정이나 질병치료 등 위급하고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에 직면할 경우 지역사회 공공시설이나 의료기관, 또는 인적 관계망을 활용하여 해결하는 능력을 말함
- 건강관리 : 규칙적인 운동과 스트레스 관리, 올바른 식습관을 통해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능력을 말함
- 성보호 : 원치 않는 임신이나 성폭력, 성병 등의 성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올바른 성지식과 대처방법을 알고 자신을 지킬 줄 아는 능력과 태도를 말함

<표 30> 자립준비도 척도 최종 문항 (43문항)

요인	유형	핵심어	문항
자립의지 (4)	태도	목표의식	A2 나는 자립을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목표나 계획이 있다
	태도	실천여부	A3 나는 자립계획에 따라 자립준비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태도	어려움극복	A4 나는 자립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참고 이겨낼 자신이 있다
	태도	적극성	A5 나는 자립을 위해 정보탐색이나 새로운 시도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주거관리 (4)	지식	집점검	B5 나는 집을 구할 때 점검해야 할 기본사항들(냉난방, 누수, 주변환경)을 잘 알고 있다
	지식	계약	B6 나는 집을 계약할 때 주의해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알고 있다
	지식	하자발견	B8 나는 집을 구한 후 하자 발견시 대처방법을 알고 있다
	지식	공과금	B9 나는 집에 주거 시 납부해야 할 공과금의 종류와 납부 방법을 잘 알고 있다
일상생활 기술 (5)	태도	설거지등	C6 나는 식사 후 설거지나 잔반(음식물 찌꺼기) 처리를 미루지 않는다
	기술	주방청결	C7 나는 행주 살균, 싱크대 및 주방후드(환풍시설) 청소 등 주방 위생청결 방법을 알고 실천한다
	태도	집안청소	C9 나는 평소에 집안청소와 정리정돈을 깔끔하게 하는 편이다
	기술	세탁	C10 나는 옷 종류에 맞게 세탁, 건조, 보관을 한다
	태도	안전점검	C11 나는 외출할 때 가스불이나 전기스위치 차단(off) 등 화재 안전상태를 항상 점검한다.
음식관리 (3)	지식	영양식단	C2 나는 필요한 영양소를 고려하여 식단(음식메뉴)을 준비할 수 있다
	기술	조리방법	C3 나는 조리방법을 모르는 음식은 레시피(조리방법)를 검색하고 활용해서 만들 수 있다
	지식	음식보관	C5 나는 음식물 종류에 맞는 보관방법(냉동, 냉장 등)을 알고 있다
직업준비 (5)	태도	직업정보	D1 나는 관심 있는 직업을 구하기 위해 직업정보사이트(워크넷, 커리어넷 등)나 인터넷 자료 등을 통해 수시로 직업정보를 알아본다
	태도	직업체험	D2 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직업체험을 통해 관심있는 직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아본다
	지식	직업적성	D4 나는 나의 관심과 적성에 맞는 직업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태도	직업선택	D6 나는 긍정적인 취업경험을 통해 적절한 직업선택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
	기술	구직기술	D9 나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제대로 작성할 수 있다
직장적응 (3)	지식	근로권	D11 나는 기본적인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있다
	지식	부당대처	D12 나는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등 직장에서 불합리한 일을 당했을 때 대처방법을 알고 있다
	기술	문제해결	D13 나는 직장상사나 동료, 고객 등과의 마찰이 생겼을 때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

요인	유형	핵심어	문항
경제관리 (4)	태도	가격품질	E1 나는 물건을 사기 전에 가격과 품질을 신중하게 비교해본다
	태도	충동구매	E2 나는 충동구매를 하지 않는다
	태도	지출규모	E3 나는 수입을 고려하여 돈을 지출한다
	태도	저축	E5 나는 매달 저축이나 적금을 하고 있다
사회기술 (5)	태도	웃차림	F1 나는 상황에 맞는 단정한 웃차림을 할 줄 안다
	기술	의사소통	F3 나는 생각이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다
	기술	관계형성	F5 나는 건전한 대인관계를 맺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
	태도	시간관리	F11 나는 다른 사람과의 시간 약속을 잘 지킨다
	태도	규범준수	F14 나는 조직의 규칙이나 사회의 공중도덕을 잘 지킨다
자원활용 (4)	기술	대중교통	G1 나는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 등)을 이용해 원하는 목적지에 잘 찾아갈 수 있다
	기술	문서발급	G2 나는 공공기관(주민센터, 시군구청 등)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필요한 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기술	공공서비스	G4 나는 공공시설(은행, 도서관 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술	의료서비스	H3 나는 질병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의료시설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건강관리 (3)	태도	신체건강	H1 나는 매주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건강을 관리하고 있다
	태도	식습관	H2 나는 건강에 해로운 음식이나 안 좋은 식습관(야식, 과식, 폭식)을 피하고 있다
	기술	정신건강	H5 나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대처방법이 있다
성보호 (3)	지식	피임	H8 나는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피임방법을 알고 있다
	지식	성폭력	H9 나는 성폭력 가해나 피해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기본 지식을 갖고 있다
	지식	성병	H10 나는 성병 예방과 치료방법을 알고 있다

9. 집단 차이분석

설문참여자 특성에 따른 청소년자립준비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31>과 같다. 우선 성별에서는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 자립준비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t=2.725, p<.01$), 연령에서는 20세 이상의 청소년이 19세 이하 청소년에 비해 자립준비도가 높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였다($t=2.254, p<.05$). 학력에 따른 자립준비도 분산분석에서는 학력에 따른 자립준비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F=5.620, p<.01$). 각 집단을 Scheffe 사후검증을 통하여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졸업 학력을 가진 청소년의 자립준비도가 학업

중단 및 재학 청소년의 자립준비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증 소지 여부에 있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의 자립준비도가 자격증이 없는 청소년의 자립준비도보다 높았고($t=2.429, p<.05$), 취업경험 유무에 있어서 취업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취업 경험이 없는 청소년보다 자립준비도가 높게 나타났으며($t=2.399, p<.05$)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였다. 그러나 직업훈련 경험의 유무에 있어서 자립준비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설문에 참여한 청소년의 소속 및 특성에 따른 자립준비도를 분산분석 후 사후검증을 통하여 집단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자립준비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3.433, p<.01$). 각 집단을 Scheffe 사후검증을 통하여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학교밖청소년지원시설이 다른 시설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 참여자 특성에 따른 청소년자립준비도의 차이

구분	집단	N	자립준비도	t/F	p
성별	남	182	133.87	2.725	.007
	여	264	127.65		
연령	19세 이하	269	128.34	2.254	.025
	20세 이상	159	133.61		
학력	학업중단(a)	221	132.36	5.620	.004 b<a,c
	졸업(b)	108	123.81		
	재학(c)	99	132.76		
자격증	있음	220	132.97	2.429	.016
	없음	208	127.48		
직업훈련 경험	있음	146	129.30	631	.528
	없음	282	130.81		
취업경험	있음	101	135.18	2.399	.017
	없음	327	128.79		
소속 및 특성	청소년자립지원관(a)	92	133.80	3.433	.009 d<a,b,c,e
	청소년쉼터(b)	110	130.87		
	아동복지시설(c)*	47	136.93		
	학교밖청소년지원시설(d)**	114	124.48		
	비행예방시설(e)***	33	131.78		

* 아동복지시설 : 아동양육시설, 아동청소년그룹홈

** 학교밖청소년지원시설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내일이룸학교

*** 비행예방시설 : 청소년자립생활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V.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기존의 자립준비도 척도들을 종합분석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 문헌자료를 검토하여 기존의 자립준비 영역을 검토하였으며, 현장의 실증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우선 자립준비도의 구성개념을 도출하고 기초문항을 개발하였으며, 이에 대해 학계와 현장 전문가의 내용타당도 평가를 통해 부적절한 문항 수정 및 제거와 신규문항 생성을 통해 예비문항을 개발하고, 예비조사를 거쳐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게 수정하였다. 본조사를 통해 문항정화와 탐색적,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집단간의 차이분석을 통해 취약청소년의 자립준비도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조사에서는 해외 자립준비도 척도들의 구성요인과 타당화 여부를 살펴보았으며, 국내 척도 개발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와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국내의 척도들은 주로 아동복지분야의 시설아동 및 보호종료아동 대상으로 척도가 개발되었으며, 최근들어 사각지대의 가출, 학업중단, 미혼모시설 등의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아동, 청소년과 보호·지원기관의 현황을 리뷰하였다. 이를 통해 자립준비도 요소들을 유목화한 결과, 자립준비 영역은 자립의지, 직업역량, 경제(돈)관리, 사회적기술, 주거관리, 일상생활관리, 자기보호, 자원활용, 학업관리로 분류되었다.

둘째, 현장전문가 FGI와 청소년 심층면접을 통한 실증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을 얻어 기초문항에 반영하였다. 자립의지 영역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목표설정 및 실천여부를 보완하였다. 진로·직업역량 영역에서는 후기청소년의 니즈를 고려하여 ‘직업’에 초점을 두어 직업역량으로 수정하였고, 긍정적인 취업경험 유무가 직업선택 및 직장적응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이를 추가하였다. 경제적관리 영역에서는 기존의 경제관리 요소들 외에 최근의 금융이슈들(휴대폰 소액결제, 주식투자, 보험가입, 금융사기, 신용카드, 대출 등)에 관한 문항이 신규로 추가하였다. 주거생활관리 영역은 주거관리와 일상생활기술로 분리하고, 음식준비 관련 조리뿐만 아니라 최근의 식생활 문화의 변화 양상을 고려하여 밀키트와 같은 배달음식이나 인스턴트 식품에 관한 문항도 추가

하였다. 사회적기술 영역에서는 대인관계 형성, 예절, 시간관리, 갈등해결, 용모/위생관리 요소를 포함하였으며, 자원활용 영역은 기존척도에서 사회적기술 내에 포함되었으나 비중이 커서 독립된 영역으로 분리하였다. 자기보호 영역은 기존대로 신체건강, 정신건강, 정보보호 3요소를 포함시키고 건강 관련 보험가입 및 보상방법을 추가시켰다. 끝으로 학업관리 영역은 학습으로 인식되어 직업을 구하는 후기 청소년의 상황과 거리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학업이나 직업 및 취미를 포함하는 자기개발로 수정하였다.

셋째, 기초문항 및 예비조사 문항 개발단계에서 자립준비 영역이 자립의지, 주거관리, 직업역량, 경제적관리, 일상생활기술, 사회적기술, 자원활용, 자기보호, 자기개발의 9가지로 도출되었다. 기초문항은 9개 영역과 36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전체 89개 문항을 개발하였다. 이중 신규문항이 37개(41.6%), 기존 척도의 문항을 수정한 것이 26개(29.2%), 관련 척도의 문항을 일부 수정한 것이 26개(29.2%)였다. 질문유형은 지식(knowledge)을 묻는 문항이 25개로 28.1%, 기술(skill)에 관한 문항이 24개로 26.9%, 태도(attitude)에 관한 문항이 40개로 각각 44.9%를 차지했다. 기초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 평가결과, 신규문항 3개를 추가하고, 1개 문항은 제거하여 전체 91문항으로 수정·보완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해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수정하였으며, 보다 포괄적 의미의 단어는 구체적인 예시를 추가하여 보완하였다.

넷째, 본조사 및 자료분석 단계에서는 91개의 예비문항으로 2021년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수집된 아동, 청소년 자립지원 관련시설(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쉼터, 아동복지시설, 아동공동생활가정 등)의 청소년 총 428명(남 182명, 여 246명)의 응답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문항분석(기술통계치 등),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순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과정은 엄정한 과정을 거쳤는데, 문항분석을 통해 문항 제거 기준에 해당하는 문항을 1차적으로 제거하였고, 다음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11개 요인을 추출하였다. 개발한 척도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추가로 수행하였다. 그 결과 모형적합도 지수가 아주 좋은 편이 아니어서 각 요인 내 문항의 표준화 랏다계수와 문항 내용을 확인하면서 문항들을 추가 제거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향상시키는 과정을 거쳤다. 이후 개념신뢰성과 평균분산추출값을 확인하고, 하위요인들 간의 SMC와 AVE값을 대조하여 변별타당성을 확인하는 과정까지 거쳤다. 최종 산출된 척도와 기존 자립 관련 척도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공인타당성을 확인하여 자립준비도 척도는 총 11개 요인(자립의지, 주거관리, 일상생활기술, 음식관리, 직업준비, 직장적응, 경제관리, 사회기술, 자원활용, 건강관리, 정보보호) 43문항으로 확정되었다.

다섯째, 설문참여자 특성에 따른 집단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에서는 여자청소년보

다 남자청소년의 자립준비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연령에서는 20세 이상의 청소년이 19세 이하 청소년에 비해 자립준비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학력에 따른 자립준비도 분산분석에서는 졸업 학력을 가진 청소년의 자립준비도가 학업중단 및 재학 청소년의 자립준비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격증 소지 여부에 있어 자격증을 갖고 있는 청소년이 자격증이 없는 청소년의 자립준비도보다 높았고, 취업경험 유무에 있어서 취업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취업 경험이 없는 청소년보다 자립준비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직업훈련 경험의 유무에 있어서 자립준비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설문에 참여한 청소년의 소속 및 특성에 따른 자립준비도를 분산분석 후 사후검증을 통해 집단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시설이 다른 시설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논의

부모의 돌봄이 취약한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준비 과정은 어릴 때부터 충분한 교육과 체험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안전하고 준비된 자립이행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10대를 갓 넘기는 청소년들은 여전히 등 떠밀려 준비 안 된 독립을 강요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지난 20여 년간 우리나라에서는 계속적으로 이들의 자립준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타당화된 척도의 개발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정작 척도를 사용해 검사한 이후 부족한 부분에 대한 인식만 하게 되고, 자립지원정책과 서비스들은 최소 기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었다. 현장조사에서도 ‘왜 이렇게 검사만 하고 달라지는 게 없지’ 라는 반응을 쉽게 접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제는 자립준비도 척도를 사용함에 있어 단지 현 상태를 파악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 주거문제와 같이 개인의 역량 범위를 넘어서는 대책들을 앞당겨 내놓아서 실질적인 자립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본 척도의 연구 과정에서 논의될 몇 가지 이슈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타당화 과정을 거치면서 각 부처의 지원으로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립지원 관련 시설에서 효과적인 개입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도구로 사용 가능하며, 기존 청소년 자립지원 관련시설에서 사용하던 조규필(2013)의 자립준비도 척도보다 문항수도 54개에서 43개로 20.4%나 감소되어 청소년이 좀 더 부담없이 활용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게 되었다. 하지만, 통계처리 과정에서 자립지원현장과 문헌에서 자립준비에 필요하다고 보고된 구체적인 자립준비 요소들이 다수 제거되었고, 특히 식생활 문화의 변화와

자립지원정책의 개선 등으로 변화된 자립지원 환경의 특성들을 구체적으로 포함시키는 데 제한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도출한 11개의 자립준비 영역은 청소년들에게 자립준비의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준비의 필요성을 자각하도록 돕는데 유용한 도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통계적 타당성을 선택함으로써 손실된 자립준비 체크 리스트로서의 유용한 기능은 추후 자립지원사업 매뉴얼 내 자립지원 가이드라인에 포함하여 현장에 제공하면 좀 더 실질적인 자립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정부 부처별 어느 곳에 속하느냐에 따라 복지 속의 차별이 존재하는 것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하는 척도는 가급적 자립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비슷한 연령대의 아동, 청소년에게 포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서로 다른 부처에서 지원받는 아동, 청소년들을 조사대상에 포함하였다. 세부적으로 아동복지계에서는 양육시설과 그룹홈, 보호종료 아동을, 청소년계에서는 자립지원관, 내일이룸학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교정분야에서는 청소년자립생활관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시설 및 기관별로 조사에 대한 협조와 관심이 달라 비슷한 집단 규모의 설문 참여자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부처별로 제공되는 자립지원 서비스의 불균형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자립준비도의 변화를 측정하는데 있어 동일한 잣대의 적용이 옳은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그러므로 부처 간의 차별적인 자립지원 서비스의 균형을 맞추고 정책대안을 모색하는데 본 연구의 척도가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셋째, 앞의 논의와 비슷한 맥락이지만, 검사 후에 확인된 청소년의 자립준비 관련 지식, 기술, 태도에 대해 어떻게 부족한 영역을 끌어올리고, 잘 준비된 영역을 강화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가 더 큰 고민거리이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자립준비 영역을 11가지로 더욱 세분화하여 제시하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자원을 확보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다양한 자립지원 정보를 수록한 자립북을 별도로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는 점은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시설들에서도 주목할 일이며, 비슷한 수준으로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임대주택 제공 등의 물적 자원 확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의의 및 제언

본 연구를 통해 개정된 자립준비도 척도는 아래와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이 연구는 청소년의 자립지원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들의 자립준비의 현황을 파악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강화하고자 기존의 자립준비 척도를 보완하고

통계적으로 타당화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둘째, 자립준비도 척도의 문항수를 축소하여 청소년의 검사 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기존의 척도는 54개 문항이지만, 개정된 척도는 43개 문항으로 개정되어, 문항수는 20.4% 줄여 검사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기존의 5점 척도방식을 4점 척도로 변경하여 중립적 판단을 최소화하여 좀 더 명확한 자립준비 수준을 측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검사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완화하고 자립준비 상태를 좀 더 명확하게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식생활 문화의 최근 트렌드와 자립지원 환경의 시대적 상황을 어느 정도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존 척도에서 합쳐져 있던 주거생활관리 영역을 주거관리와 일상생활기술로 분리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하였고, 음식관리 영역을 별도로 제시하여 음식문화의 비중이 커지는 현대의 상황을 반영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자원관리 영역도 별도로 제시함으로써 고립된 생활보다는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적 자립의 중요성이 강조된 점은 척도의 활용성을 높일 것이다.

넷째, 자립준비를 위해 필요한 11개의 세부적인 영역을 제시함으로써 청소년의 자립준비에 필요한 요소들을 풍부하게 제공하고, 자립준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실제로 본 척도 개정연구와 함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자립준비 프로그램이 함께 개발되었으며, 본 척도의 자립영역을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용 앱(App)을 동시에 개발하여 청소년이 스마트폰 상에서 자신의 자립준비 상태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급될 예정이다.

다섯째, 검사결과를 통해 세분화된 자립준비 영역별로 취약한 부분에 대해 청소년 스스로 자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적용 및 정보제공을 통해 개인에게 최적화된 자립역량 강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건강관리 측면에서 식생활이나 신체건강 관리가 안 되는 청소년에게는 식생활 개선을 위한 영양교육이나 운동처방이 필요할 것이다. 사회기술 측면에서 상황에 부적합한 옷차림을 하거나 시간 약속을 잘 지키지 못 하는 청소년에게는 드레스 코드 교육이나 시간관리 프로그램, 혹은 스케줄 관리 다이어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하다. 음식을 제대로 만들어 먹을 줄 모르거나 제때 음식물을 보관하지 않아 낭비하는 청소년에게는 요리실습 기회를 제공하거나 음식물 관리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11개 영역으로 세분화된 척도를 사용함으로써 자립역량 강화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기에 유용할 것이다.

위와 같은 연구의 의의와 함께 후속 연구를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자립준비도 척도의 타당성 검증이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쉼터나 청소년자립지원관 등의 실제 현장에서 척도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척도의 보완 사항 및 자립준비도 척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을 확인함으로써 척도의 타당도를 높이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검사결과의 상대적인 수준을 판단하기 위한 표준화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 표본이 부족하여 기준 제시가 어려웠다. 척도 결과의 질적인 해석과 적용을 돕기 위해서는 보다 대표성을 담보한 전국 규모의 연구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성별, 연령별, 특성유형별(아동복지시설, 청소년시설, 비행시설), 학업상태(학업중단, 재학, 졸업) 등에 따른 기준이 마련되면 유용할 것이다.

셋째, 부처별 개입 수준에 따른 자립준비도의 차이에 대해 비교 연구가 이루어지면 부처간의 자립지원 서비스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위한 정부합동대책에 따르면 보호종료 기간이 25세까지 연장되고, 보호 종료 후 자립수당 지급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는 등 자립지원 혜택을 개선하는 부처가 있는가 하면, 입소기간에 따라 대책없이 시설을 떠나야 하는 청소년시설 체계상의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는 부처도 있다. 이에 비교연구를 통해 부족한 부처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개정척도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진로 관련 척도들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자립준비도의 개념상 직업, 경제관리, 사회기술 등 여러 영역에 걸쳐 폭넓은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이와 연관된 척도들을 추가로 상관분석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본조사용 91문항과 2개의 진로관련 척도 41문항까지 포함하여 다소 많은 문항이 조사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조사문항을 사용할 경우 응답 신뢰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자립관련 요소들을 조사하는데 제약이 있었다. 그러나 후속연구에서는 최종문항으로 확정된 문항이 43문항으로 축소되었기 때문에 상관관계 분석에 더 많은 척도들을 활용하는데 부담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 관계부처합동 (2021.7.13).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
- 김경준, 김지혜, 류명화, 정익중, 김윤정 (2006). 청소년 유형별 복지욕구 실태와 지원 방안.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대업 (2008). Amos A to Z : 논문작성절차에 따른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파주: 학현사.
- 김봉환 (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세진, 조규필, 노자은, 이상철, 전예나, 김아람 (2020). 청소년 자립준비 사정도구 개발 : 자립지원관 입소 대상 청소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김정연, 하지선, 김인숙(2011). 시설 실택 청소년의 자립척도 개발: 실택 여성지원시설 입소 및 이용자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3(2), 23-53. 45-65.
- 김지선, 이정애, 김보옥, 정익중 (2011). 가정외보호 청소년 자립기술평가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 청소년복지연구, 20(2),
- 김희성 (2002). 빈곤가정 청소년의 자립준비에 관한 연구 -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희성 (2004). 빈곤가정 청소년의 자립준비에 대한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6(3), 135-157.
- 김희진, 백혜정, 김은정, 이미영 (2018).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와 자립지원 방안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584.
- 노충래, 강현아, 이동욱, 송유진, 손유경, 이종은, 서지은 (2018). 아동공동생활가정 및 가정위탁용 자립지원프로그램 표준화 개발연구. 보건복지부, 이화여자대학교.
- 보건복지부,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2018). 2018 가정위탁보호 현황보고서.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16). 2016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 정혜옥, 손병덕 (2018). 아동양육시설 중도퇴소 청소년의 자립 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 연구. 청소년학연구, 25(5), 291-315.
- 제철웅 (2020).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논집, 37(1), 330-371.

- 조규필 (2020). 자립준비도 척도(ILRS) 활용매뉴얼. 여성가족부, 복권위원회,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조규필 (2013). 취약청소년의 자립준비도 척도개발 및 타당화.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규필, 정경은 (2016). 취약청소년의 자립준비도 분석 : 두드림 프로그램 참여자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3(3), 267-292.
- 서정아 (2016). 연구자의 시각에서 본 청소년회복센터의 현황과 과제. 2016년 소년보호실무연구회(2016.10.24. 발표자료).
- 손혜옥, 최외선, 이미옥(2008). 시설청소년의 자립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한국가족복지학, 13(4), 185-203.
- 신혜령 (2000). 시설청소년의 자립준비에 관한 연구: 청소년과 보육사의 인식비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혜령, 한지은, 백미진, 김진희 (2006). 보호아동자립지원프로그램 매뉴얼. 보건복지부.
- 신혜령, 김보옥 (2011). 시설청소년의 자립지원프로그램 효과성에 관한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8(1), 29-49.
- 심정은 (2017). 학교 밖 청소년의 좌절된 소속감과 지각된 진로장벽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아동자립지원단 (2013). 자립척도개발 연구. 아동자립지원단 내부자료.
- 여성가족부 (2021). 2021 청소년사업안내. 여성가족부.
- 이상정, 류정희, 김지연, 김무현, 김지민 (2019). 가정 외 보호 아동의 자립준비실태와 자립지원체계 개선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19-2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은진 (2001). 다재다능한 대학생을 위한 진로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임영식, 정경은 (2019). 청소년 디지털 시민성 척도 개발. 청소년학연구, 26(9), 495-522.
- 조운정, 주경필 (2018). 청소년자립생활관 청소년들의 자립과정에서의 저항과 자유갈망. 한국청소년문화포럼, VOL.54, 1975-2733.
- 최수진, 김은영, 김혜진, 박균열, 박상환, 이상은, 장압미 (2019). OECD 교육 2030 참여 연구: 미래지향적 역량교육의 실행 전략 탐색. 연구보고서 RR 2019-06. 한국교육개발원.
- 최순중, 윤옥경, 조남억 (2009). 가출청소년쉼터의 새로운 기능에 대한 정책적 모색. 청소년학연구, 18(6), 247-270.

- 허민숙 (2018).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지원 방안. 입법·정책보고서 Vol.8. 국회입법조사처.
- Bagozzi, R. and Yi, Y. (1988) On the Evaluation of Structural Equation Models.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s*, 16, 74-94.
- Bagozzi, R. P., Yi, Y., & Phillips, L. W. (1991). Assessing construct validity in organizational research.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36(3), 421-458.
- Bartlett, M. S. (1950). Tests of significance in factor analysis.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3, 77-85.
- Betz, N. E., Klein, K. L. & Taylor K. M. (1996). Evaluation of a Short Form of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 47-57.
- Brown, M. W. & Cudeck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Bollen, K. A. & J. S. Long(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Newbury Park, California: Sage, 136-162.
- Cook, R. J.(1986). Independent Living Service for Youth in Substitute Care. Prepared for the Administration for Children, Youth, and Families,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Rockville, MD: Westat, INC.
- Fehring, R. J. (1987). Methods to validate nursing diagnoses. *Heart and Lung*, 16(6), 625-629.
- Fornell, C. & Larcker, D. F. (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Feb), 39-5.
- Georgiades, S. (2005). A Multi-Outcome Evaluation of an Independent Living Program. *Child and Adolescent Social Work Journal*, 22, Nos. 5-6, December. 417-439.
- Hair.Jr., J. F., Black., W. C., Babin., B. J., Anderson., R. E., & L.Tatham., R. (2006). *Multivariate Data Analysis*. New Jersey: Pearson International Edition.
- Iglehart, A. P.(1994). Adolescents in foster care: Prediction readiness for independent living. *Children and Youth Review*, 16, 159-169.
- Kaiser, H. F. (1960). Directional statistical decisions. *Psychological Review*, 67(3), 160-167.
- Leathers, S. J., & Testa, M. F. (2006). Foster youth emancipating from care: Caseworkers' reports on needs and services. *Child Welfare*, 85(3), 463-497.
- Lemon, K., Hines, A. M., & Merdinger, J. (2005). From foster care to young adulthood: The role of independent living programs in supporting successful transition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27, 251-270.

- Lindsey, E. W., & Ahmed, F. U. (1999). The North Carolina Independent Living Program: A comparison of outcomes for participants and nonparticipants. *Children and Youth Service Review, 21*(5), 389-412.
- Mallon, G. P. (1998). After care, then where? Outcomes of an independent living program. *Child welfare, 77*(1), 61-78.
- Maluccio, A., Krieger, R., & Pine, B.(1990). Adolescents and their preparation for life after foster family care: An overview. In A. Maluccio, R. Krieger, & B. Pine (Eds.), *Preparing adolescents for life after foster care*, 5-17. Washington, DC: Child Welfare League of America.
- Mech, E. V.(1994). Preparing foster youth for adulthood: A knowledge-building perspective.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16*, 141-145.
- Nacarato, T., DeLorenzo, E., Park, A. L. (2008). A Rapid Instrument Review (RIR) of Independent Living Program(ILP) Evaluation Tools. *Journal of Public Child Welfare, 2*(2), 253-267
- Nollan, K. A., Horn, M., Downs, A. C., & Pecora, P. J. (2002). *Ansell-Casey Life Skills Assessment(ACLSA) And Life Skills Guidebook Manual*, WA: Casey Family Programs, 15-16.
- OECD (2017). The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Education 2030: Progress report of the OECD Learning Framework 2030.
- Passtor, E. M., Clarren, J., Timmberlake, E. M., & Bayless, L.(1986). Stepping Out of Foster Care into Independent Living. *Children Today*, (3-4). 32-35.
- Powell, M(1963). *The psychology of adolescence*. New York: The BobbsMerill Co., Inc.
- Sparks, S., & Lien-Gieschen, T.(1994). Modification of the diagnostic content validity model. *Nursing Deagnosis, 5*, 31-35.
- Taylor, K. M. & Betz. N. E. (1983).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1), 63-81.
- The Learning Clinic (2006). The Learning Clinic Transition & Independent Skill Assessment(TILSA). Retrieved March 23, 2021, from <https://www.crporegon.org/cms/lib/OR01928264/Centricity/Domain/45/Documents/TILSAInstructionsandForm.pdf>
- United States General Accounting Office(1999). *Foster care: Effectiveness of independent living services unknown*(GAO/HEHS-00-13). Washington, DC: GAO Health, Education, and Human Services Division.

<기타자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에서 2021년 10월 30일 인출.

소년보호협회 <http://www.kipa.or.kr>에서 2021년 10월 30일 인출.

<법령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main.html>에서 2021년 10월 30일 인출.

자립준비도 척도(개정판) 매뉴얼

1. 척도 소개	136
가. 척도의 특징	136
나. 척도의 검사목적	136
다. 척도의 구성	137
라.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	137
마. 척도의 구성요인, 문항유형, 핵심어	137
2. 검사대상 및 방법	140
가. 검사대상	140
나. 검사방법	140
3. 해석방법	141
4. 자립준비도 검사결과표 (예시)	142
5. 자립준비도 척도 (양식)	144

1. 척도 소개

가. 척도의 특징

- 이용 대상 범위가 포괄적임
 - 자립을 준비중인 가정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관련 시설(청소년자립지원관(여가부), 중장기쉼터, 청소년자립생활관(법무부), 아동자립생활관(복지부)), 아동양육시설 및 그룹홈 시설퇴소 예정 아동·청소년 등에게 포괄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자립준비 하위요소가 매우 구체적으로 세분화되어 있음
 - 자립의지, 주거관리, 일상생활기술, 음식관리, 직업준비, 직장적응, 경제관리, 사회기술, 자원활용, 건강관리, 성보호 등 11가지
-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었음
 - 내적 일치도가 .966으로 높고, 수렴타당도, 변별타당도, 공인타당도가 있음
- 청소년 자립준비 역량을 지식, 기술, 태도로 구분하여 문항유형을 제시함
 - 지식(12개), 기술(12개), 태도(19)
- 모바일용으로 개발된 자립준비 앱(App)과 연계하여 사용함.
 - 본 척도에 기반하여 자립준비 앱(App)이 동시에 개발되었기 때문에 청소년이 손쉽게 자신의 자립준비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한 가이드 정보를 얻을 수 있음.
- 자립준비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음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본 척도와 연계하여 개발한 자립준비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 개인별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 보완할 수 있고 자립준비 수준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확인함

나. 척도의 검사목적

- [청소년]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자립준비 역량을 파악하여 부족한 부분을 개선
- [기관]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효과 확인, 프로그램 개선, 예산 확보
- [정부] 부처별 자립지원 효과 비교를 통해 정책 개발
- [연구] 자립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 효과성 검증

다. 척도의 구성

○ 하위요소 및 문항수

구분	전체	자립의지	주거관리	일상생활기술	음식관리	직업준비	직장적응	경제관리	사회기술	자원활용	건강관리	성보호
문항수	43	4	4	5	3	5	3	4	5	4	3	3

○ 응답 방식

- 4점 Likert 척도 :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그렇다(3점), 매우 그렇다(4점)

라.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

○ 내적 일치도

- 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전체 문항 간 .966이며, 각 요인별 .768~.899로 신뢰도가 높음

구분	전체	자립의지	주거관리	일상생활기술	음식관리	직업준비	직장적응	경제관리	사회기술	자원활용	건강관리	성보호
Cronbach's α	.966	.898	.899	.854	.802	.870	.870	.802	.842	.841	.768	.798

○ 모형 적합도

-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통한 모형 적합도 확인 결과 수렴타당성이 있음
-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분석 결과 변별타당성이 있음

○ 공인타당도

- 자립준비도 척도는 타당화된 척도들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과 모두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공인 타당도가 있음

마. 척도의 구성요인, 문항유형, 핵심어

<자립준비도 척도 구성요인, 문항유형 및 핵심어>

요인	유형	핵심어	문항내용
자립의지 (4)	태도	목표의식	1. 나는 자립을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목표나 계획이 있다
	태도	실천여부	2. 나는 자립계획에 따라 자립준비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태도	어려움극복	3. 나는 자립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참고 이겨낼 자신이 있다
	태도	적극성	4. 나는 자립을 위해 정보탐색이나 새로운 시도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요인	유형	핵심어	문항내용
주거관리 (4)	지식	집점검	5. 나는 집을 구할 때 점검해야 할 기본사항들(냉난방, 누수, 주변환경)을 잘 알고 있다
	지식	계약	6. 나는 집을 계약할 때 주의해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알고 있다
	지식	하자발견	7. 나는 집을 구한 후 하자 발견시 대처방법을 알고 있다
	지식	공과금	8. 나는 집에 주거 시 납부해야 할 공과금의 종류와 납부 방법을 잘 알고 있다
일상생활 기술 (5)	태도	설거지등	9. 나는 식사 후 설거지나 잔반(음식물 찌꺼기) 처리를 미루지 않는다
	기술	주방청결	10. 나는 행주 살균, 싱크대 및 주방후드(환풍시설) 청소 등 주방 위생청결 방법을 알고 실천한다
	태도	집안청소	11. 나는 평소에 집안청소와 정리정돈을 깔끔하게 하는 편이다
	기술	세탁	12. 나는 옷 종류에 맞게 세탁, 건조, 보관을 한다
음식관리 (3)	태도	안전점검	13. 나는 외출할 때 가스불이나 전기스위치 차단(off) 등 화재 안전상태를 항상 점검한다.
	지식	영양식단	14. 나는 필요한 영양소를 고려하여 식단(음식메뉴)을 준비할 수 있다
	기술	조리방법	15. 나는 조리방법을 모르는 음식은 레시피(조리방법)를 검색하고 활용해서 만들 수 있다
직업준비 (5)	지식	음식보관	16. 나는 음식물 종류에 맞는 보관방법(냉동, 냉장 등)을 알고 있다
	태도	직업정보	17. 나는 관심 있는 직업을 구하기 위해 직업정보사이트(워크넷, 커리어넷 등)나 인터넷 자료 등을 통해 수시로 직업정보를 알아본다
	태도	직업체험	18. 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직업체험을 통해 관심있는 직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아본다
	지식	직업적성	19. 나는 나의 관심과 적성에 맞는 직업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태도	취업경험	20. 나는 긍정적인 취업경험을 통해 적절한 직업선택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
직장적응 (3)	기술	구직기술	21. 나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제대로 작성할 수 있다
	지식	근로권	22. 나는 기본적인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있다
	지식	부당대처	23. 나는 임금체불이나 부당하고 등 직장에서 불합리한 일을 당했을 때 대처방법을 알고 있다
경제관리 (4)	기술	문제해결	24. 나는 직장상사나 동료, 고객 등과의 마찰이 생겼을 때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
	태도	가격품질	25. 나는 물건을 사기 전에 가격과 품질을 신중하게 비교해본다
	태도	충동구매	26. 나는 충동구매를 하지 않는다
	태도	지출규모	27. 나는 수입을 고려하여 돈을 지출한다
사회기술 (5)	태도	저축	28. 나는 매달 저축이나 적금을 하고 있다
	태도	웃차림	29. 나는 상황에 맞는 단정한 웃차림을 할 줄 안다
	기술	의사소통	30. 나는 생각이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다
	기술	관계형성	31. 나는 건전한 대인관계를 맺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
	태도	시관관리	32. 나는 다른 사람과의 시간 약속을 잘 지킨다
	태도	규범준수	33. 나는 조직의 규칙이나 사회의 공중도덕을 잘 지킨다

요인	유형	핵심어	문항내용
자원활용 (4)	기술	대중교통	34. 나는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 등)을 이용해 원하는 목적지에 잘 찾아갈 수 있다
	기술	문서발급	35. 나는 공공기관(주민센터, 시군구청 등)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필요한 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기술	공공서비스	36. 나는 공공시설(은행, 도서관 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술	의료서비스	37. 나는 질병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의료시설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건강관리 (3)	태도	신체건강	38. 나는 매주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건강을 관리하고 있다
	태도	식습관	39. 나는 건강에 해로운 음식이나 안 좋은 식습관(야식, 과식, 폭식)을 피하고 있다
	기술	정신건강	40. 나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대처방법이 있다
성보호 (3)	지식	피임	41. 나는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피임방법을 알고 있다
	지식	성폭력	42. 나는 성폭력 가해나 피해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기본 지식을 갖고 있다
	지식	성병	43. 나는 성병 예방과 치료방법을 알고 있다

2. 검사대상 및 방법

가. 검사대상

- 연령 : 만 17세 ~ 24세
- 자립지원 관련 시설
 - 가정 밖 청소년 : 청소년자립지원관, 중장기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학교 밖 청소년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내일이룸학교
 - 법적 보호 청소년 : 청소년자립생활관
 - 아동복지시설 : 아동자립생활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 기타 가정의 돌봄이 취약한 아동·청소년

나. 검사방법

- 검사 시작 전
 - 검사의 목적, 소요시간(약 10분), 문항 수(43문항), 응답방식(4점 척도)을 설명함
 - 어떤 태도로 검사에 임해야 하는지 알려줌

☞ “자기 자신의 자립준비 수준을 스스로 파악해서 앞으로 어떻게 자립을 준비해야 할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며, 남에게 잘 보일 필요도 없어요
단지, 자립을 준비준비를 위한 체크 리스트라고 생각하고 답해보세요”

- 아직 취업이나 자취생활을 하지 않는 청소년인 경우 설명 예시

☞ “혼자 자취생활을 하거나 취업을 준비 또는 직장생활을 한다고 가정하고 응답해주세요”

- 검사 중
 - 응답자가 질문내용에 대해 모를 경우 쉽게 설명해줌
 - 4점 척도의 중간 수준이라고 생각할 경우, 단 1%라도 마음이 기울어지는 쪽에 표시하도록 안내

○ 검사 종료 후

- 빠뜨린 문항이 있는지 바로 확인
- 빠진 문항이 있으면 그 이유를 물어보고, 되도록 모든 문항에 응답하도록 지도

3. 해석방법

○ 계산방법

- ☞ 원점수 총점 범위 : 43문항×(1~4점)=43점~172점
- ☞ 백분율 환산 : 원점수×25
예) 자립의지 평균 3.0일 때 : 환산점수는 $3.0 \times 25 = 75$
- ☞ 요인별 원점수 평균점수, 백분율 환산점수를 계산
- ☞ 자립준비도 전체 평균점수와 백분율 환산점수를 계산

○ 해석방법

- 자립준비도 요인별 해석 : 해당 요인의 핵심어와 점수결과를 사용하여 자립준비 수준에 대해 평가내용을 아래 채점표에 기록함
- 자립준비도 전체 해석 : 하위 요인들 중에 평균 2점대의 낮은 요인을 중심으로 자립준비도 전반적인 수준을 평가하여 아래 채점표에 기록함

4. 자립준비도 검사결과표 (예시)

〈자립준비도 검사결과표 예시〉

요인	유형	핵심어	문항 점수	평균 점수	환산점수 (백분율)	해석의 예
자립의지 (4)	태도	목표의식	4.0	3.00	75.00	자립을 위한 목표가 뚜렷하고 계획이 구체적이며, 어느 정도 실천도 하고 있지만, 어려움 극복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함. 자립을 위해 정보탐색이나 기술을 배우는 등 뭔가 해보려는 적극성이 있음
	태도	실천여부	3.0			
	태도	어려움극복	2.0			
	태도	적극성	3.0			
주거관리 (4)	지식	집점검	2.0	2.00	50.00	집을 계약할 때의 유의사항은 다소 알고 있지만, 집을 구할 때의 점검사항이나 하자발견시의 대처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지식이 부족하며, 집을 관리하는데 기초가 되는 공과금 관리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음
	지식	계약	3.0			
	지식	하자발견	2.0			
	지식	공과금	1.0			
일상생활 기술 (5)	태도	설거지등	2.0	2.80	70.00	집안 청소와 정리정돈을 깔끔하게 잘 하는 편이며, 주방 위생청결에 신경쓰고 있으며, 외출시 가스불, 절전 상태를 잘 점검함. 하지만 식사 후 설거지나 잔반 뒤처리 미루는 편이며, 옷 종류에 맞는 세탁 및 보관이 잘 이루어지지 않음
	기술	주방청결	3.0			
	태도	집안청소	4.0			
	기술	세탁	2.0			
	태도	안전점검	3.0			
음식관리 (3)	지식	영양식단	1.0	2.00	50.00	영양을 고려한 식단 준비를 거의 고려하지 않는 편이며, 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는데 익숙하지 않음. 음식물은 냉동이나 냉장 구분하여 비교적 잘 정리하고 있음
	기술	조리방법	2.0			
	지식	음식보관	3.0			
직업준비 (5)	태도	직업정보	1.0	2.40	60.00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알고 취업경험을 통해 취업선택에 대해 어느정도 자신감이 있음. 하지만, 구체적인 직업정보를 제대로 조사해 적이 별로 없고, 관련 종사자를 만나보거나 직업현장을 체험한 기회를 많이 가져보지 못해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객관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음
	태도	직업체험	2.0			
	지식	직업적성	4.0			
	태도	취업경험	3.0			
	기술	구직기술	2.0			
직장적응 (3)	지식	근로권	3.0	2.00	50.00	기본적인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어느정도 알고 있지만, 직장에서 불합리한 일을 당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직장 동료나 상사, 고객들과 마찰이 생겼을 때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됨
	지식	부당대처	2.0			
	기술	문제해결	1.0			

요인	유형	핵심어	문항 점수	평균 점수	환산점수 (백분율)	해석의 예
경제관리 (4)	태도	가격품질	3.0	2.25	56.25	물건을 살 때 가격이나 품질을 따져보며, 수입을 고려해서 지출을 조절할 줄 아는 편이지만, 간혹 충동구매를 하기도 함. 규칙적으로 저축을 하지 않아 목돈 마련이 어려울 수 있음
	태도	충동구매	2.0			
	태도	지출규모	3.0			
	태도	저축	1.0			
사회기술 (5)	태도	옷차림	4.0	2.40	60.00	상황에 맞는 단정한 옷차림을 할 줄 알며, 비교적 건전한 대인관계를 맺는데 별 문제가 없지만,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고, 특히 시간약속을 못 지켜 신뢰를 잃을 수 있음
	기술	의사소통	2.0			
	기술	관계형성	3.0			
	태도	시관관리	1.0			
	태도	규범준수	2.0			
자원활용 (4)	기술	대중교통	4.0	2.75	68.75	어디든 대중교통을 이용해 다니는데 능숙하며, 공공기관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필요한 문서들을 발급고, 공공시설의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음. 하지만, 아플 때 의료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워 함
	기술	문서발급	3.0			
	기술	공공서비스	3.0			
	기술	의료서비스	1.0			
건강관리 (3)	태도	신체건강	4.0	2.33	27.33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신체 건강관리를 매우 잘 하는 편이지만, 안 좋은 식습관이 있으며, 스트레스에 취약해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심신의 조화로운 건강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 보임
	태도	식습관	1.0			
	기술	정신건강	2.0			
성보호 (3)	지식	피임	3.0	3.00	75.00	성문제 관련하여 성병 관련 충분한 지식이 있고, 피임방법을 어느정도 알고 있음. 하지만 성폭력 문제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기본 지식이 부족함
	지식	성폭력	2.0			
	지식	성병	4.0			
전체 (43)	-	-	-	3.20	80.0	주거관리나 음식관리가 취약하며, 직장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집을 구하고, 식생활을 관리 관련 지식과 정보 제공이 필요해 보임. 또한 직장생활 중에 마찰이 생기거나 불합리한 일을 겪을 때 원만하게 문제를 풀어나가고 해결하는 능력이 다소 결여됨

5. 자립준비도(개정판) 척도 (양식)

〈자립준비도 척도(개정판)〉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문 항			
1. 나는 자립을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목표나 계획이 있다			
2. 나는 자립계획에 따라 자립준비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3. 나는 자립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참고 이겨낼 자신이 있다			
4. 나는 자립을 위해 정보탐색이나 새로운 시도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5. 나는 집을 구할 때 점검해야 할 기본사항들(냉난방, 누수, 주변환경)을 잘 알고 있다			
6. 나는 집을 계약할 때 주의해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알고 있다			
7. 나는 집을 구한 후 하자 발견시 대처방법을 알고 있다			
8. 나는 집에 주거 시 납부해야 할 공과금의 종류와 납부 방법을 잘 알고 있다			
9. 나는 식사 후 설거지나 잔반(음식물 찌꺼기) 처리를 미루지 않는다			
10. 나는 행주 살균, 싱크대 및 주방후드(환풍시설) 청소 등 주방 위생청결 방법을 알고 실천한다			
11. 나는 평소에 집안청소와 정리정돈을 깔끔하게 하는 편이다			
12. 나는 옷 종류에 맞게 세탁, 건조, 보관을 한다			
13. 나는 외출할 때 가스불이나 전기스위치 차단(off) 등 화재 안전상태를 항상 점검한다.			
14. 나는 필요한 영양소를 고려하여 식단(음식메뉴)을 준비할 수 있다			
15. 나는 조리방법을 모르는 음식은 레시피(조리방법)를 검색하고 활용해서 만들 수 있다			
16. 나는 음식물 종류에 맞는 보관방법(냉동, 냉장 등)을 알고 있다			
17. 나는 관심 있는 직업을 구하기 위해 직업정보사이트(워크넷, 커리어넷 등)나 인터넷 자료 등을 통해 수시로 직업정보를 알아본다			
18. 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직업체험을 통해 관심있는 직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아본다			
19. 나는 나의 관심과 적성에 맞는 직업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20. 나는 긍정적인 취업경험을 통해 적절한 직업선택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			
21. 나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제대로 작성할 수 있다			

문 항	1	2	3	4
22. 나는 기본적인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있다				
23. 나는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등 직장에서 불합리한 일을 당했을 때 대처방법을 알고 있다				
24. 나는 직장상사나 동료, 고객 등과의 마찰이 생겼을 때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				
25. 나는 물건을 사기 전에 가격과 품질을 신중하게 비교해본다				
26. 나는 총동구매를 하지 않는다				
27. 나는 수입을 고려하여 돈을 지출한다				
28. 나는 매달 저축이나 적금을 하고 있다				
29. 나는 상황에 맞는 단정한 옷차림을 할 줄 안다				
30. 나는 생각이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다				
31. 나는 건전한 대인관계를 맺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				
32. 나는 다른 사람과의 시간 약속을 잘 지킨다				
33. 나는 조직의 규칙이나 사회의 공중도덕을 잘 지킨다				
34. 나는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 등)을 이용해 원하는 목적지에 잘 찾아갈 수 있다				
35. 나는 공공기관(주민센터, 시군구청 등)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필요한 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36. 나는 공공시설(병원, 은행, 도서관 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37. 나는 질병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의료시설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38. 나는 매주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건강을 관리하고 있다				
39. 나는 건강에 해로운 음식이나 안 좋은 식습관(야식, 과식, 폭식)을 피하고 있다				
40. 나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대처방법이 있다				
41. 나는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피임방법을 알고 있다				
42. 나는 성폭력 가해나 피해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기본 지식을 갖고 있다				
43. 나는 성병 예방과 치료방법을 알고 있다				

자립준비도 척도 개정 기초자료

1. 현장실무자 FGI 질문지	147
2. 청소년 개별면접 질문지	149
3. 자립준비도 척도개정 기초문항	150
4. 내용타당도 질문지	154
5. 청소년 연구참여 동의서	160
6. 진로준비행동 척도	161
7.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척도	162

1. 현장실무자 FGI 질문지

초점집단 인터뷰(FGI) 질문 내용

1. 자립지원 대상

- 주된 연령대의 범위는 몇 살인가?
- 지원대상 청소년은 주로 어떤 아이들인가?
- 자립준비 수준은 어느정도 되어야 하는가?
- 기타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2. 자립지원 목표

- 시설의 자립지원 목표는 어디까지로 보아야 하나?
- 청소년의 기대는 어디까지인가?

3. 자립준비 실태

- 각 시설에서는 자립준비를 어떻게 시키고 있는가?
- 청소년들이 비교적 자립준비가 잘 되고 있는 것은?
- 각 시설에서 자립준비를 시키는데 취약한 부분(향후 보완해야 할 사항)은?

4. 자립준비 요소

- 기존 척도의 자립준비 요소 중에서 추가, 제외, 이동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가?

구분	주요 질문 내용
자립 준비 영역	자립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의지는 자립준비에 얼마나 중요한가? · 자립의지는 주관적인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 문제해결 방법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주거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마련을 위해서는 어느정도의 재정이 필요한가? · 주거마련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 주거마련에 필요한 정보는? · 집을 구하고, 관리하는 방법은?
	직업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을 위해 어느정도의 급여수준을 유지해야 하는가? · 일터에서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가? · 작장에서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 직장예절은 얼마나 중요한가? · 취업경험은 자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경제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돈에 대한 가치관은? · 보험과 투자, 저축, 대출에 대한 지식은 어떠한가? · 합리적인 소비방법은? · 공과금 및 할부금, 세금 납부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 신용카드를 통제하고,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은?
	자기보호 (신체, 심리정서,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건강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 심리정서 안정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 성보호를 위해 알아야 할 지식은?
	교육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준비를 위해 어떤 교육이 필요한가?
	자원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활용능력은 자립을 위해 어느정도 필요한가? · 자원활용에는 무엇인 있는가?
	일상생활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생활에 필요한 음식준비, 청소, 세탁, 안전관리는 어떠한가?
	사회적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인과 소통하고 관계맺고, 갈등해결하는 방법은 어떠한가? · 시간관리는 얼마나 중요하며, 그 방법은 어떠한가? · 용모와 위생관리는 사회생활에 얼마나 중요하며, 그 방법은 어떠한가?
척도의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척도의 문항수는 어느정도가 적당한가? · 적절한 검사주기는? · 현장에서 척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2. 청소년 개별면접 질문지

<청소년 개별면접 질문지>

구분	질문내용
사전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의 목적, 연구내용 및 방법 설명 · 연구참여자 동의서 작성
인구사회적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름, 나이, 성별, 가족현황 · 소속, 입소기간 · 자립준비상태 : 자격증 여부, 근로경험, 경제, 학력
연구질문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자립준비 상태는? · 자신이 생각하는 자립의 목표는? · 구체적인 자립계획은 갖고 있는가? · 자립준비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연구질문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준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심리적, 물리적, 환경적 요인들은 무엇인가? · 자립하는데 있어 자립의지는 얼마나 중요한가? (인생목표 여부, 자립동기, 실천여부) · 집을 마련하고, 관리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주거지원 정보, 주거마련계획, 집 관리) · 직업준비는 얼마나 중요한가? (직업가치관, 직업조사 여부, 직업선택 여부, 구직기술, 직장적응능력) · 경제관리는 얼마나 필요한가? (소비, 저축, 신용관리) · 자기보호는 얼마나 필요한가? (신체건강, 정신건강, 성보호) · 일상생활관리는 얼마나 필요한가? (음식, 청소, 세탁, 안전관리) · 사회기술은 얼마나 필요한가? (용모, 대인관계, 예절, 시간관리, 법준수) · 자립을 위해 교육은 얼마나 중요한가? (교육정보, 학력취득, 자기계발 등) · 주변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자원 관리)은 얼마나 필요한가?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부모의 도움, 친구나 아는 사람의 도움) · 그 밖에 자립준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면접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뷰 소감 · 추후 면접에 대한 동의 구하기

3. 자립준비도 척도개정 기초문항

〈자립준비도 척도 기초문항〉

자립준비 영역	하위요인	질문유형 (지식/기술/태도)	순번	문항	비고
자립 의지	자립동기	태도	1	나는 자립하려고 하는 동기가 뚜렷하다	김세진 외(2020)
	목표의식	태도	2	나는 자립을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목표나 계획이 있다	신규
	실천여부	태도	3	나는 자립계획에 따라 자립준비를 실천하고 있다	김세진 외(2020) 수정
	어려움 극복	기술	4	나는 자립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참고 이겨낼 자신이 있다	조규필(2013)
	적극성/도전성	태도	5	나는 어떤 일을 하다가 안 되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도전하는 적극성이 있다(예: 취업, 자격증, 기술습득)	신규
주거 관리	주거마련 준비	기술	6	나는 집을 얻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시기, 지역, 예산)을 갖고 있다	신규
		지식	7	나는 정부의 주택임대 지원 정보를 수시로 찾아서 확인하고 있다	조규필(2013) 수정
		기술	8	나는 집을 구하는데 필요한 보증금(목돈)을 모으고 있다	신규
		기술	9	나는 안정적으로 월세를 낼 수 있는 일자리를 갖고 있다	신규
	집구하기	지식	10	나는 집을 구할 때 점검해야 할 기본사항들을 알고 있다	신규
		지식	11	나는 집을 계약할 때 주의해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알고 있다	조규필(2013)
		지식	12	나는 집을 구한 직후(주택임대 계약) 임대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조규필(2013)
		지식	13	나는 집을 구한 후 하자 발견시 대처방법을 알고 있다	신규
	집관리	지식	14	나는 주거시 납부해야할 공과금의 종류와 납부방법을 알고 있다	노총래 외(2018)
		기술	15	나는 형광등을 갈거나 막힌 하수구를 뚫는 등 간단한 보수유지 방법을 알고 있다	신규/ 시설 보수,유지 등
일상 생활 기술	음식관리	기술	16	나는 밥과 밑반찬 등 기본 음식을 조리할 수 있다	조규필(2013)
		기술	17	나는 식생활 건강에 필요한 영양식단을 짤 수 있다	조규필(2013)
		기술	18	나는 레시피(조리방법) 등을 활용하여 음식을 만들 수 있다	조규필(2013)
		태도	19	나는 조리가 어려운 경우, 반찬가게나 배달음식(밀키트 등) 등을 활용해 적절히 영양섭취를 하고 있다	신규/ 최근 식생활문화 반영
		지식	20	나는 음식물 종류에 맞는 보관방법(냉동, 냉장 등)을 알고 있다	김지선 외(2018)
	주방관리	태도	21	나는 식사 후 설거지를 미루지 않고 곧장 한다	조규필(2013) 수정

자립준비 영역	하위요인	질문유형 (지식/기술 /태도)	순번	문항	비고	
		기술	22	나는 식기 건조, 행주 살균, 썩크대 및 환풍기 청소 등 주방 위생정결에 신경을 쓴다	신규	
	청소/ 세탁	기술	23	나는 분리수거 방법에 따라 쓰레기(음식물, 재활용품 등)를 처리한다	김지선 외(2018)	
		태도	24	나는 평소에 집안 청소와 정리정돈을 미루지 않고 깔끔하게 하는 편이다	노총래 외(2018) 수정	
		지식	25	나는 옷 종류에 맞게 세탁, 건조, 보관을 한다	김지선 외(2020) 수정	
	안전관리	태도	26	나는 외출할 때 가스불이나 전기스위치 차단(off) 등 화재안전 상태를 철저히 점검한다	조규필(2013) 수정	
		태도	27	나는 취침시나 외출시 문단속(창문, 현관문)을 철저히 한다	조규필(2013) 수정	
	직업 역량	직업조사	태도	28	나는 관심 갖고 있는 직업을 구하기 위해 직업정보사이트(워크넷, 커리어넷 등)나 인터넷 자료 등을 통해 수시로 직업정보를 알아본다	조규필(2013)
			태도	29	나는 직업인을 만나거나 직업체험을 통해 관심있는 직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아본다	조규필(2013)
			태도	30	나는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전문가에게 상담이나 조언을 듣는다	조규필(2013)
직업선택		지식	31	나는 나의 관심과 적성에 맞는 직업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김지선 외(2018) 수정	
		지식	32	나는 원하는 직업의 자격요건(학력, 자격증, 기술 등)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김지선 외(2018) 수정	
		태도	33	나는 긍정적인 취업경험을 통해 일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	신규	
직업훈련		지식	34	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정부의 직업훈련 서비스들에 대해 알고 있다.	신규	
		태도	35	나는 원하는 직업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자격증, 교육훈련, 일경험 등)	신규	
구직기술		기술	36	나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제대로 작성할 수 있다	조규필(2013) 수정	
		기술	37	나는 채용면접 준비와 효과적인 면접방법을 알고 있다	조규필(2013) 수정	
직장적응		지식	38	나는 기본적인 근로자의 권리를 알고 있다	신규	
		지식	39	나는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등 직장에서 불합리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조규필(2013) 수정	
	기술	40	나는 직장 상사와 마찰이 생겼을 때 원만하게 해결할 자신이 있다	신규		
	지식	41	나는 직장 내에서 성추행이나 언어폭력 등의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신규		
	태도	42	나는 직장에서 불가피하게 지각을 하거나 결근을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노총래 외(2018) 수정		

자립준비 영역	하위요인	질문유형 (지식/기술 /태도)	순번	문항	비고
경제적 관리	지출관리	태도	43	나는 물건을 사기 전에 가격과 품질을 신중하게 비교해본다	노총래 외(2018) 수정
		태도	44	나는 총동구매를 하지 않는다	조규필(2013) 수정
		태도	45	나는 내 수입에 맞게 근검절약하는 편이다	노총래 외(2018) 수정
	수입관리	태도	50	나는 매달 저축이나 적금을 하고 있다	노총래 외(2018) 수정
		지식	46	나는 정부나 지자체의 청년우대 금융상품(청년내일채움공제, 서울청년수당 등) 정보를 알고 있다	신규
	대출관리	지식	47	나는 돈을 빌리는 다양한 방법들(친구, 은행, 대부업체, 학자금대출 등)의 장단점에 대해 알고 있다	노총래 외(2018)
		지식	48	나는 불법 대부업체로부터 받는 대출의 위험성을 알고 있다	노총래 외(2018) 수정
		태도	49	나는 휴대폰 소액결제를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는다	신규/ 최근 청소년 소비패턴 반영
	신용관리	지식	51	나는 어떤 경우에 신용등급이 낮아지는지 알고 있다	조규필(2013) 수정
		태도	52	나는 갚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지출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만들지 않거나 카드사용을 통제하고 있다	신규
		태도	53	나는 아무리 친한 관계라도 함부로 돈을 빌리지 않는다	신규
	돈 관리	태도	54	나는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에 대비해서 보험(실비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다	신규
		태도	55	나는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기 위해 가계부를 작성하고 있다	신규
		지식	56	나는 보이스피싱 등의 전자금융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는 대처요령을 알고 있다	신규
	사회적 기술	용모/위생	태도	57	나는 경우에 맞는 단정한 옷차림을 할 줄 안다 (초대, 면접, 행사 등)
태도			58	나는 규칙적으로 개인위생을 청결히 한다 (샤워, 양치질, 손톱발톱 손질, 이미용 등)	신규
의사소통		기술	59	나는 생각이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적절하게 표현한다	노총래 외(2018)
		태도	60	나는 다른 사람의 충고를 기본 상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다	김지선 외(2018)
관계형성		기술	61	나는 건전한 대인관계를 맺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	조규필(2013)
		기술	62	나는 다른 사람의 부탁을 기본 나쁘지 않게 거절할 수 있다	노총래 외(2018)
		기술	63	나는 다른 사람과 갈등이 있을 때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	조규필(2013)
예절		태도	64	나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본 예절(인사, 높임말 등)을 잘 지킨다	조규필(2013)
		태도	65	나는 남에게 대접받거나 도움을 받으면 반드시 감사의 표현을 하거나 갚으려고 한다	신규
시간관리		태도	66	나는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신규
	태도	67	나는 다른 사람과의 시간 약속을 잘 지킨다	신규	
	태도	68	나는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고 그때 그때 처리한다	신규	

자립준비 영역	하위요인	질문유형 (지식/기술/태도)	순번	문항	비고
	규범준수	태도	69	나는 조직의 규칙이나 사회의 공중도덕을 잘 지킨다	김세진 외(2020) 수정
		태도	70	나는 법을 잘 준수한다	김세진 외(2020) 수정
자원활용	공식자원	기술	71	나는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등)을 이용해 원하는 목적지에 잘 찾아갈 수 있다	김지선 외(2018)
		기술	72	나는 공공기관(주민센터, 시군구청 등)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필요한 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김지선 외(2018)
		기술	73	나는 공공시설(병원, 도서관, 은행, 문화센터 등)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다	김지선 외(2018)
	비공식자원	기술	74	나는 외롭거나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전화나 SNS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친구, 지인)이 있다	신규
		기술	75	나는 아프거나 긴급한 어려움이 생겼을 때 부담없이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친구, 지인 등)이 있다	신규
		기술	76	나는 취미나 관심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지역모임(동호회, 종교시설 등)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다	신규
자기보호	신체건강	태도	77	나는 매주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신체건강을 관리하고 있다	조규필(2013) 수정
		기술	78	나는 건강에 해로운 음식을 잘 먹지 않는다	신규
		기술	79	나는 좋지 않은 식습관(야식, 과식, 폭식)을 피하고 있다	신규
		기술	80	나는 기본적인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 (예: 상처, 벌레물림, 가벼운 통증 등)	노총래 외(2018) 수정
	정신건강	기술	81	나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너만의 대처방법이 있다	조규필(2013)
		지식	82	나는 우울, 불안 등 심리적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의 정보를 알고 있다	노총래 외(2018) 수정
		태도	83	나는 중독증상을 일으킬만한 물질이나 매체(온라인게임, 영상물, 술, 담배 등)의 사용을 조절할 수 있다.	신규
	성보호	지식	84	나는 예기치 않은 임신 예방을 위한 피임방법을 알고 있다	노총래 외(2018) 수정
		지식	85	나는 임신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고 있다	조규필(2013)
지식		86	나는 성병 예방 방법을 알고 있다	노총래 외(2018) 수정	
자기개발	학업	태도	87	나는 학력취득이나 상급학교 진학을 준비하고 있다	신규/ 검정고시, 대학진학
	자격시험	지식	88	나는 원하는 자격증 취득에 대비한 시험준비 요령을 알고 있다	신규/ 자격증 취득 등
	역량개발	태도	89	나는 개인의 역량개발을 위해 공부를 계속 하고 있다	신규

4. 내용타당도 질문지

자립준비도 척도(개정판) 기초문항 내용타당도 평가

본 자료는 취약청소년의 자립준비도 척도 개정 연구 관련하여 연구문헌 분석과 청소년 및 실무자 의견을 종합하여 새롭게 수정 보완한 기초문항입니다. 전체 자립준비영역은 9개, 자립준비요인은 36개, 기초문항은 89개입니다. 이에 대해 학계 및 현장 전문가의 전문성과 경험을 토대로 기초문항이 적합한지에 대한 내용타당성(5점 척도)을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란에는 특별히 내용타당성이 현저히 낮거나, 수정이 필요한 문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그 외 추가적인 검토의견은 표 하단에 기술해주세요.

※ 내용타당성 : 1점(매우 부적절), 2점(조금 부적절), 3점(보통), 4점(조금 적절), 5점(매우 적절)										
자립준비 영역	하위요인	질문유형 (지식/기술/태도)	순번	문항	내용타당성					검토의견 (내용타당성이 낮거나 수정이 필요한 경우 기술)
					1	2	3	4	5	
자립의지	자립동기	태도	1	나는 자립하려고 하는 동기가 뚜렷하다						
	목표의식	태도	2	나는 자립을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목표나 계획이 있다						
	실천여부	태도	3	나는 자립계획에 따라 자립준비를 실천하고 있다						
	어려움 극복	기술	4	나는 자립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참고 이겨낼 자신이 있다						
	적극성/도전성	태도	5	나는 어떤 일을 하다가 안 되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도전하는 적극성이 있다(예: 취업, 자격증, 기술습득)						
주거관리	주거마련 준비	기술	6	나는 집을 얻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시기, 지역, 예산)을 갖고 있다						
		지식	7	나는 정부의 주택임대 지원 정보를 수시로 찾아서 확인하고 있다						
		기술	8	나는 집을 구하는데 필요한 보증금(목돈)을 모으고 있다						
		기술	9	나는 안정적으로 월세를 낼 수 있는 일 자리를 갖고 있다						
	집구하기	지식	10	나는 집을 구할 때 점검해야 할 기본사항들을 알고 있다						

자립준비 영역	하위요인	질문유형 (지식/ 기술/ 태도)	순번	문항	내용타당성					검토의견 (내용타당성이 낮거나 수정이 필요한 경우 기술)	
					1	2	3	4	5		
		지식	11	나는 집을 계약할 때 주의해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알고 있다							
		지식	12	나는 집을 구한 직후(주택임대 계약) 임대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지식	13	나는 집을 구한 후 하자 발견시 대처방법을 알고 있다							
		집관리	지식	14	나는 주거시 납부해야할 공과금의 종류와 납부방법을 알고 있다						
			기술	15	나는 형광등을 갈거나 막힌 하수구를 뚫는 등 간단한 보수유지 방법을 알고 있다						
	일상생활 기술	음식관리	기술	16	나는 밥과 밑반찬 등 기본 음식을 조리할 수 있다						
			기술	17	나는 식생활 건강에 필요한 영양식단을 짤 수 있다						
			기술	18	나는 레시피(조리방법) 등을 활용하여 음식을 만들 수 있다						
			태도	19	나는 조리가 어려운 경우, 반찬가게나 배달음식(밀키트 등) 등을 활용해 적절히 영양섭취를 하고 있다						
			지식	20	나는 음식물 종류에 맞는 보관방법(냉동, 냉장 등)을 알고 있다						
주방관리		태도	21	나는 식사 후 설거지를 미루지 않고 곧장 한다							
		기술	22	나는 식기 건조, 행주 살균, 싱크대 및 환풍기 청소 등 주방 위생청결에 신경을 쓴다							
청소/세탁		기술	23	나는 분리수거 방법에 따라 쓰레기(음식물, 재활용품 등)를 처리한다							
		태도	24	나는 평소에 집안 청소와 정리정돈을 미루지 않고 깔끔하게 하는 편이다							
		지식	25	나는 옷 종류에 맞게 세탁, 건조, 보관을 한다							
안전관리	태도	26	나는 외출할 때 가스불이나 전기스위치 차단(off) 등 화재안전 상태를 항상 점검한다								
	태도	27	나는 취침시나 외출시 문단속(창문, 현관문)을 철저히 한다								
직업역량	직업조사	태도	28	나는 관심 갖고 있는 직업을 구하기 위							

자립준비 영역	하위요인	질문유형 (지식/ 기술/ 태도)	순번	문항	내용타당성					검토의견 (내용타당성이 낮거나 수정이 필요한 경우 기술)
					1	2	3	4	5	
				해 직업정보사이트(워크넷, 커리어넷 등)나 인터넷 자료 등을 통해 수시로 직업 정보를 알아본다						
		태도	29	나는 직업인을 만나거나 직업체험을 통해 관심있는 직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아본다						
		태도	30	나는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전문가에게 상담이나 조언을 듣는다						
	직업선택	지식	31	나는 나의 관심과 적성에 맞는 직업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지식	32	나는 원하는 직업의 자격요건(학력, 자격증, 기술 등)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태도	33	나는 긍정적인 취업경험을 통해 일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						
	직업훈련	지식	34	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정부의 직업 훈련 서비스들에 대해 알고 있다.						
		태도	35	나는 원하는 직업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자격증, 교육 훈련, 일경험 등)						
	구직기술	기술	36	나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제대로 작성할 수 있다						
		기술	37	나는 채용면접 준비와 효과적인 면접방법을 알고 있다						
	직장적응	지식	38	나는 기본적인 근로자의 권리를 알고 있다						
		지식	39	나는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등 직장에서 불합리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기술		40	나는 직장 상사와 마찰이 생겼을 때 원만하게 해결할 자신이 있다							
지식		41	나는 직장 내에서 성추행이나 언어폭력 등의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태도		42	나는 직장에서 불가피하게 지각을 하거나 결근을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경제적	지출관리	태도	43	나는 물건을 사기 전에 가격과 품질을						

자립준비 영역	하위요인	질문유형 (지식/ 기술/ 태도)	순번	문항	내용타당성					검토의견 (내용타당성이 낮거나 수정이 필요한 경우 기술)
					1	2	3	4	5	
관리				신중하게 비교해본다						
		태도	44	나는 충동구매를 하지 않는다						
		태도	45	나는 내 수입에 맞게 근검절약하는 편이다						
	수입관리	태도	46	나는 매달 저축이나 적금을 하고 있다						
		지식	47	나는 정부나 지자체의 청년우대 금융상품(청년내일채움공제, 서울청년수당 등) 정보를 알고 있다						
	대출관리	지식	48	나는 돈을 빌리는 다양한 방법들(친구, 은행, 대부업체, 학자금대출 등)의 장단점에 대해 알고 있다						
		지식	49	나는 불법 대부업체로부터 받는 대출의 위험성을 알고 있다						
		태도	50	나는 휴대폰 소액결제를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는다						
	신용관리	지식	51	나는 어떤 경우에 신용등급이 낮아지는지 알고 있다						
		태도	52	나는 갚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지출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만들지 않거나 카드 사용을 통제하고 있다						
		태도	53	나는 아무리 친한 관계라도 함부로 돈을 빌리지 않는다						
	돈 관리	태도	54	나는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에 대비해서 보험(실비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다						
		태도	55	나는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기 위해 가계부를 작성하고 있다						
		지식	56	나는 보이스피싱 등의 전자금융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는 대처요령을 알고 있다						
	사회적 기술	용모/위생 관리	태도	57	나는 경우에 맞는 단정한 옷차림을 할 줄 안다(초대, 면접, 행사 등)					
태도			58	나는 규칙적으로 개인위생을 청결히 한다(샤워, 양치질, 손톱발톱 손질, 이미용 등)						
의사소통		기술	59	나는 생각이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적절하게 표현한다						
		태도	60	나는 다른 사람의 충고를 기분 상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다						

자립준비 영역	하위요인	질문유형 (지식/ 기술/ 태도)	순번	문항	내용타당성					검토의견 (내용타당성이 낮거나 수정이 필요한 경우 기술)
					1	2	3	4	5	
	관계형성	기술	61	나는 건전한 대인관계를 맺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						
		기술	62	나는 다른 사람의 부탁을 기분 나쁘지 않게 거절할 수 있다						
		기술	63	나는 다른 사람과 갈등이 있을 때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						
	예절	태도	64	나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본 예절(인사, 높임말 등)을 잘 지킨다						
		태도	65	나는 남에게 대접받거나 도움을 받으면 반드시 감사의 표현을 하거나 갚으려고 한다						
	시간관리	태도	66	나는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태도	67	나는 다른 사람과의 시간 약속을 잘 지킨다						
		태도	68	나는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고 그때 그때 처리한다						
	규범준수	태도	69	나는 조직의 규칙이나 사회의 공중도덕을 잘 지킨다						
		태도	70	나는 법을 잘 준수한다						
자원활용	공식자원	기술	71	나는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등)을 이용해 원하는 목적지에 잘 찾아갈 수 있다						
		기술	72	나는 공공기관(주민센터, 시군구청 등)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필요한 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기술	73	나는 공공시설(병원, 도서관, 은행, 문화센터 등)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다						
	비공식자원	기술	74	나는 외롭거나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전화나 SNS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친구, 지인)이 있다						
		기술	75	나는 아프거나 긴급한 어려움이 생겼을 때 부담없이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친구, 지인 등)이 있다						
		기술	76	나는 취미나 관심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지역모임(동호회, 종교시설 등)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다						

자립준비 영역	하위요인	질문유형 (지식/ 기술/ 태도)	순번	문항	내용타당성					검토의견 (내용타당성이 낮거나 수정이 필요한 경우 기술)
					1	2	3	4	5	
자기보호	신체건강	태도	77	나는 매주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신체건강을 관리하고 있다						
		기술	78	나는 건강에 해로운 음식을 잘 먹지 않는다						
		기술	79	나는 좋지 않은 식습관(야식, 과식, 폭식)을 피하고 있다						
		기술	80	나는 기본적인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 (예: 상처, 벌레물림, 가벼운 통증 등)						
	정신건강	기술	81	나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나만의 대처방법이 있다						
		지식	82	나는 우울, 불안 등 심리적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의 정보를 알고 있다						
		태도	83	나는 중독증상을 일으킬만한 물질이나 매체(온라인게임, 영상물, 술, 담배 등)의 사용을 조절할 수 있다.						
	성보호	지식	84	나는 예기치 않은 임신 예방을 위한 피임방법을 알고 있다						
		지식	85	나는 임신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고 있다						
		지식	86	나는 성병 예방 방법을 알고 있다						
자기개발	학업	태도	87	나는 학력취득이나 상급학교 진학을 준비하고 있다						
	자격시험	지식	88	나는 원하는 자격증 취득에 대비한 시험 준비 요령을 알고 있다						
	역량개발	태도	89	나는 개인의 역량개발을 위해 공부를 계속 하고 있다						

[기타 검토 의견]

5. 청소년 연구참여 동의서

<연구참여 동의서>

1. 연구주제 : 청소년 자립준비도 척도 개정 및 타당화 연구

2. 연구목적

본 조사는 청소년 여러분이 자립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요인들이 무엇인지 탐색해보고, 이를 통해 청소년 기존의 자립준비척도를 개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 연구개요

본 조사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연구 의뢰를 받아 세종사이버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실시하는 것으로서, 연구참여자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청취, 녹음, 분석하여, 청소년의 자립준비에 필요한 요소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1~2시간 정도 진행됩니다. 자료수집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상으로 추가 인터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연구목적 외에 사용이 금지되며, 개인의 비밀이 보장됩니다.

4. 연구방법

- 조사 기간 : 2021년 5월
- 조사 대상 : 만17~24세 자립준비 중인 청소년
- 자료수집 : 방문 인터뷰(1~2시간)와 녹취, 필요시 추가 전화 인터뷰

=====

()는 위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1년 5월 일

연구참여자 : (서명)

연구자 : (서명)

6. 진로준비행동 척도

〈진로준비행동 척도〉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지난 몇 주 동안 친구들과 나의 적성 및 앞으로의 진로(취업)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2	지난 몇 주 동안 나는 보호자와 나의 적성 및 앞으로의 진로(취업)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3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선생님(혹은 전문가)과 나의 적성 및 앞으로의 진로(취업)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4	지난 몇 주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책이나 팸플릿 등을 구입하거나 혹은 읽어보았다	①	②	③	④
5	지난 몇 주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교육 훈련기관 혹은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에 대한 안내 책자나 팸플릿 등을 구입하거나 읽어보았다	①	②	③	④
6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기관을 직접 방문해 보았거나 혹은 그 같은 방문계획을 세운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7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TV프로그램, 전시회, 설명회 등을 시청하거나 참관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8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9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분야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10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진로문제를 상담하기 위하여 학생생활연구소나 그 밖의 상담기관을 방문한 경험이 있다	①	②	③	④
11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나의 적성과 흥미, 성격 등을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서 검사를 받아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12	나는 앞으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진학)에 입문하기 하기 위해서 그 준비에 필요한 교재, 참고서적, 기타 필요한 기자재 등을 구입하였다	①	②	③	④
13	나는 앞으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진학)에 입문하기 위해서 이미 구입한 교재, 참고서적, 기타 필요한 기자재 등을 가지고 진로 준비를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14	나는 앞으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진학)에 입문하기 위해서 학원 등에 다니면서 그 준비를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15	나는 내가 깊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체(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취업방법, 보수, 승진제도, 전망)를 수집하였거나 혹은 그 같은 계획을 세우고 있다	①	②	③	④
16	나는 내가 설정한 진로목표(취업 혹은 진학)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한 일들을 항상 체크하고 있으며, 앞으로 할 일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	①	②	③	④

7.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척도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척도〉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능력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2	나에게 이상적인 직업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①	②	③	④
3	직업 선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가치들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4	진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가 어떤 희생은 감수할 수 있고, 어떤 것은 어려운지를 구분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5	내가 원하는 생활방식(라이프스타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①	②	③	④
6	내가 관심 있는 직업들에 대한 정보를 도서관이나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7	향후 10년간의 관심 있는 직업에 대한 고용 경향을 알아낼 수 있다	①	②	③	④
8	생각하고 있는 직업의 평균 수입과 연봉을 알아낼 수 있다	①	②	③	④
9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해 볼 수 있다	①	②	③	④
10	(만약 상급학교에 진학한다면) 대학 혹은 대학원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11	여러 가지 전공이나 직업들이 나열되어 있는 목록 중에서 내가 원하는 전공이나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12	마음에 두고 있는 직업목록들 중에서 한 가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13	내가 선호하는 생활방식(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진로를 결정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14	진로결정을 하고 나면, 그것이 잘한 일인지 못한 것인지에 대해 걱정(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15	관심 있는 전공이나 진로를 선택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16	진로목표에 대하여 앞으로 5년간의 계획을 세울 수 있다	①	②	③	④
17	선택한 직업을 갖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알 수 있다	①	②	③	④
18	나는 나의 이력서를 잘 쓸 수 있다	①	②	③	④
19	나의 적성이나 능력에 맞는 직종과 관련된 기업이나 기관에 대해 알아 볼 수 있다	①	②	③	④
20	취업면접과 관련되는 절차들을 잘 다루어 나갈 수 있다	①	②	③	④
21	선택한 직업과 관련해 어려움이 있을 경우, 어떤 방법들을 취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22	힘든 상황에서도 내가 선택한 전공이나 진로목표를 이루기 위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23	처음 선택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전공이나 직업을 바꿀 수도 있다.	①	②	③	④
24	선택한 진로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바꿀 수도 있다	①	②	③	④
25	처음 선택한 진로분야가 불가능하다면 다른 전공이나 진로의 대안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①	②	③	④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the measure of Independent Living Readiness Level after comprehensive analysis of problems on existing Youth Independent Living Readiness. For this, we conducted domestic and foreign literature review on the independent living readiness, field experts Focus Group Interview (FGI) and in-depth interview with youths to deduce the construct and develop basic questions. Also, we developed preliminary questions revised after content validity by academic and field experts.

And then, we conducted main survey for independent living-support institutes for youths, implementing item refinement,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finalized the revision of the measure of independent living readiness. Besides, via difference analysis, we presented basic data on independent living readiness level of the disadvantage youths, and introduced the user manual for responsibilities supporting youths independent living.

The specific process of the measure development is as follows.

First, in the stage of literature review, the constituent and validation of foreign measures for the independent living readiness level were explored and we identified possible problems which can happen when we apply them to Korean cases. Domestic measures were mainly developed for facility children of child welfare filed and children after termination of institutional care. We've identified that the recent measure development studies have been progressed in terms of runaway youth, drop out youth, and out of family youth who live in unmarried mother facility. We deduced the constituent of independent living readiness level from the fact.

Second, we conducted FGI with field experts two times and in-depth interviews with seven youths. We could get implication to correct our questions, reflecting the recent finance issues (i.e. mobile payment, financial fraud, etc.), and the aspect of changing eating habits (i.e. meal kit, food delivery, instant food, etc.).

Third, in the development stage of basic survey questionnaire and pilot survey questionnaire, the basic questions(new 37 items, existing 26 items, revision 26 items), which

consisted of 9 areas of readiness for independent living, 36 factors and 89 items, were modified and supplemented to 91 questions by conducting a content validity assessment.

Fourth, in the stage of main survey and data analysis, we gathered 428 results of youths (128 boys and 246 girls) from the supporting institute for youth independent living readiness, conducting item analysi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s a result, we extracted eleven factors and improved the model's goodness of fit. Then, we identified the Construct Reliability, Average Variance Extracted and discriminant validity among the sub-factors, verifying concurrent validity to complete the development of measures of independent living readiness level which consist of 43 questions under 11 factors (independence will, housing management, life skills, food preparation, preparing for a job, organizational adaptation at workplace, economic management, social skills, resources utilization, health care, and protection against sex offenses).

Fifth, the result of difference analysis of independent living readiness level of participation group illustrated that the level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higher in male group than female group by gender, age older than 20 years than under 19, and youth with certificate than youth without certificate. In contrast, the level was significantly lower in high school graduate than drop-out and school youth, and the out-of-school youth support center than other facilities, in facilities.

Through this result, we suggest that it is better to reduce the number of questions and to specify the area of independent living readiness. It will be useful to reduce the psychological burden on independent living readiness level survey and to suggest specific direction of independent living readiness. Also, it can be comprehensively used for children and youth of the similar age group. And it is expected that it will contribute to improving the service imbalance between government departments by objectively presenting changes in independent living readiness for differentiated services between departments. Despite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t will be necessary to prepare standardized standards, compare the difference in independent living readiness according to intervention by departments, and increase the validity of other measures through follow-up studies.